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7



목 차

제1장 서장

1. 서론	12
2.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15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18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22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40
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41
3. 통일의 이유	44
4. 통일의 방식과 예상시기	45
5. 통일에 대한 기대이력	48
6. 통일정책에 대한 효용감	50
7. 소결	54

제3장 대남인식

1. 서론	60
2. 남한의 존재 인식	62
3. 북핵위험	67
4. 대남인지도	70
5. 남한의 대북지원	73
6. 소결	80

제4장 북한실태인식

1. 서론	86
2. 의식 실태 분석	87
3. 소결	99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104
2.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북한 주민의 마음	107
3.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북한 주민의 두려움	115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 주민의 마음	122
5. 소결	127

제6장 남한사회 적응실태

1. 서론	132
2. 친근감과 포용성: 기대와 현실 사이	134
3.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과 남한생활의 만족도	138
4. 2017년 조사문항에서 추가된 문항과 결과	142
5. 소결	146

제7장 결장

결장	1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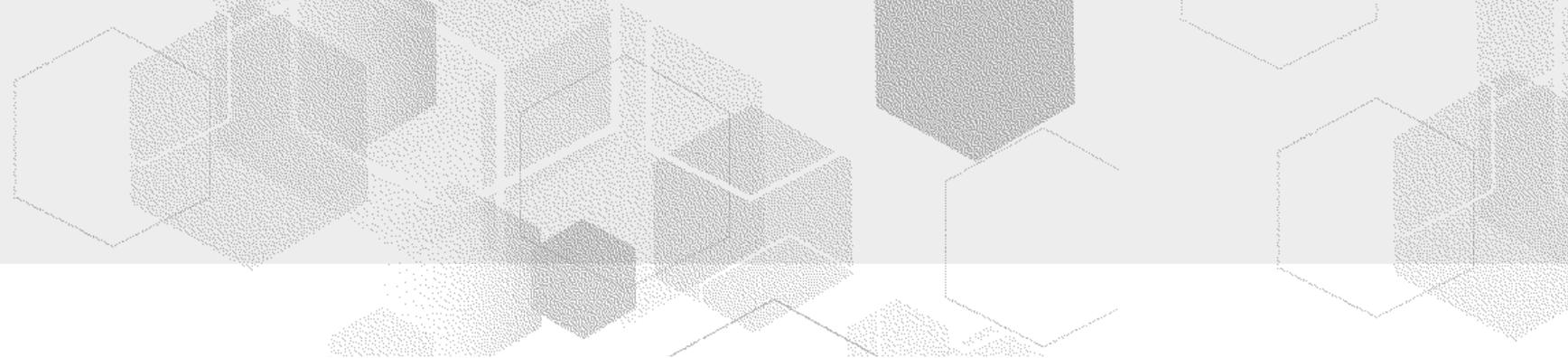
부록	집계표 2017	155
	설문지 2017	232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20	〈표 3-1〉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7)	73
〈표 1-2〉 성별, 연령별 분포	22	〈표 4-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88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4	〈표 4-2〉 김정은 지지도	89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5	〈표 4-3〉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93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6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108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27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111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28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12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30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14
〈표 1-9〉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31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16
〈표 1-10〉 장사활동 경험 유무	32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18
〈표 1-11〉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34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20
〈표 1-12〉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35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121
〈표 1-13〉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36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23
〈표 1-14〉 자녀의 수 분포	37	〈표 5-10〉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125
〈표 2-1〉 통일의 이유	45	〈표 5-11〉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126
〈표 2-2〉 통일의 방식	46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136
〈표 2-3〉 통일의 예상시기	48	〈표 6-2〉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136

표목차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 (2016)	137
〈표 6-4〉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 (2017)	138
〈표 6-5〉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정체성	139
〈표 6-6〉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140
〈표 6-7〉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140
〈표 6-8〉 남한에서의 생활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교차표 (2017)	141



그림목차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42	〈그림 3-13〉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79
〈그림 2-2〉	통일의 의지	43	〈그림 4-1〉	김정은 직무 평가	90
〈그림 2-3〉	통일의 기대이익	49	〈그림 4-2〉	사회통제 유지도	91
〈그림 2-4〉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효용감	51	〈그림 4-3〉	비판행위 정도	92
〈그림 2-5〉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효용감	52	〈그림 4-4〉	핵무기 보유 견해	94
〈그림 2-6〉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감	53	〈그림 4-5〉	경기 침체 원인	95
〈그림 2-7〉	남북 정기회담에 대한 효용감	54	〈그림 4-6〉	집단 대 개인 우선도	97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63	〈그림 4-7〉	다른 지역 방문 경험	98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64	〈그림 6-1〉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	144
〈그림 3-3〉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인식	66	〈그림 6-2〉	남한생활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현실 차이	146
〈그림 3-4〉	남북한 비교: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7			
〈그림 3-5〉	북핵 위협의식	68			
〈그림 3-6〉	남북한 비교: 북핵위협인식	69			
〈그림 3-7〉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71			
〈그림 3-8〉	대북지원 인지도(1)	74			
〈그림 3-9〉	대북지원 인지도(2)	75			
〈그림 3-10〉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평가	76			
〈그림 3-11〉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77			
〈그림 3-12〉	대북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78			



제1장 서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서장

1. 서론

2017년 4월 5일 오전 6시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안가에서 신형 중거리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의 강원 강릉하키센터에서는 북한 국가가 연주되고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이 날 경기장에서 북한 국가가 흘러나올 때 1600여 명의 관중들은 기립하며 영국과 경기하여 승리를 거둔 북한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경기장을 채웠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6·15 강원본부가 주도해 결성한 남북공동응원단 230여 명은 하늘색 한반도기가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통일조국” “우리는 하나”를 외쳤다. 구슬프게 “아리랑”을 부르다 흥겨운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를 울동과 함께 따라 하기도 하였다. 북한 선수들 역시 경기를 마친 후 응원단 앞에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들거나 스틱을 흔들며 고마움을 드러냈다.¹⁾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벌어진 남북 화합의 현장. 이렇듯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일이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난 것은 통일이 그만큼 양면적이고 복잡 미묘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제

도적 차원의 통일은 남북 간의 관계와 국제정세 등 수많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만, 남북 주민의 정서와 생각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이 다른 체제로 분단 된지 어언 70여 년이 지난 현재 양측의 이질적인 감정과 언어, 의식 등으로 인해 준비하지 못한 통일을 맞이한다면 막대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서로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서로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방향과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는 어떠한 통일 논의와 정책도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남한의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외식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2017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 진보정권으로의 교체,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 등 안팎으로 진행된 급격한 정치적 격랑 속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통일외식을 확인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아젠다에 보다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안보불안 속에서도 새로운 정권 아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것이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

1) “北 미사일 쏜 날, 강릉엔 인공기 평양엔 태극기 ‘기묘한 공존’” 『동아일보』 온라인, 2017년 4월 6일; <<http://news.donga.com/3/all/20170406/83715269/1>>

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주민들은 과연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의 생각은 남한 국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고 얼마나 다를까? 물론 본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조사시점이 탈북 직전 1년 시기(2016년)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남한 국민의 통일외식조사와 시기적으로 정확한 대칭을 이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생각을 묻기도 하였고 또한 작금의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시작점이 2016년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비교하며 이해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일환으로 대외적 군사력과 대내적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 국제적으로 신장된 군사력을 자랑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내부적으로 경제난을 해소하여 북한주민의 불만을 완화하고자 제한적이나마 경제적 자유화 조치를 늘려가고 있는 김정은식 병진노선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대에 이은 권력승계는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체제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내구성은 곧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사적·경제적으로 한층 나아진 북한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증가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자체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혹은 통일의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화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고도로 통제된 북한체제의 공간을 흔들 수도 있다.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사적 경제영역에 대한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정보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곧 김정은 정권 및 나아가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올해의 북한주민 의식조사에서는 이러한 병진노선의 양면적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북한이 통일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듯 각자의 체제 속에서 어떠한 통일을 그리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반 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통일과 통합의 정책 역시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의 조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통일외식조사』를 수행하여 남한주민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대북정책 평가, 주변국 관계 인식, 한국사회의 변화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는 아직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주민의 의식에 대한 경험적이고 계량적이며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따라서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

로나마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및 대남인식, 북한사회의 변화 인식, 주변국 관계 인식, 적응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관련 조사의 양적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조사들과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의식을 파악하려거나 통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조사는 부재하였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과 남북관계의 현실진단과 미래전망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통합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의 하나로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를 기획하고 다년간 수행하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어떠한 남한주민의 통일의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이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북한실태, 남한사회, 남한의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남한사회 적응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둔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한통합지수』의 의식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는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가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만의 통일의식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통일 또는 통합의 문제를 논하는 것 또한 ‘절름발이’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과 환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해가며 남북한 주민 모두의 통일의식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외식이다. 통일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이 설문범주는 2011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는 남한주민의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 만족

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 취업상태, 월평균 수입, 월평균 근로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포함된다. 2017년도부터 남한 거주시 항목별 어려움의 정도,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은 경로,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를 묻는 정도가 문항으로 추가 신설되었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의 외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외식이나 태도가 어땠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²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² 2017년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기간	7월	10월	4/15-6/4	4/6-6/2	6/13-7/16	5/20-7/7	7/1-7/24	6/10-8/8	6/8-8/6
입국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 - 2004	87	94							
2005 - 2008	142	-							
2005 - 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4	-	-	-	-	-	
2011			1	127	-	-	-	-	
2012			-	-	133	-	-	-	
2013			-	-	-	149	-	-	
2014			-	-	-	-	146	-	
2015	-	-	-	-	-	-	-	135	
2016	-	-	-	-	-	-	-	3	
2017		-	-	-	-	-	-	-	132
총 계	296	370	105	127	133	149	146	138	132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의식	Y	Y	Y	Y	Y	Y	Y	Y	Y
대남의식	Y	Y	Y	Y	Y	Y	Y	Y	Y
북한실태 변화	Y	Y	Y	Y	Y	Y	Y	Y	Y
남한적응 실태	-	-	Y	Y	Y	Y	Y	Y	Y
주변국 인식	-	-	-	Y	Y	Y	Y	Y	Y

〈표 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가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은 표본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조사가 진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2011년 조사부터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자단체 및 탈북자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표1-1〉에 나타나듯이, 2017년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 수는 132명이다.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1) 성별·연령별 분포

〈표 1-2〉는 7년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7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3.0%, 여성 47.0%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의 비율은 약 14.6% 증가했고, 여성의 비율은 약 14.6% 감소했다.³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 35.6%, 30대 29.5%, 40대 20.5%, 50대 12.9%, 60대 이상 1.6%로 2016년 조사 때 비율과 비슷하지만, 이전의 조사보다 남성 비율이 높았다.

〈표 1-2〉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	여성 (%)												
10대	0 (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20대	13 (41.9)	18 (58.1)	22 (51.2)	21 (66.7)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30대	12 (40.0)	18 (60.0)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40대	6 (37.5)	10 (62.5)	10 (32.3)	21 (67.7)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0대	1 (6.7)	14 (93.3)	6 (35.3)	11 (64.7)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60대 이상	4 (30.8)	9 (69.2)	7 (53.8)	6 (46.2)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합계	36 (34.3)	69 (65.7)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중은 약 83%이다.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응답자들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에 나타나듯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05명 중 104명은 2010년에 탈북했고, 1명은 2011년에 탈북했다.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했다. 2012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27명은 모두 2011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다. 2013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3명의 경우에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2명은 2012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3년에 입국했다. 2014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9명 중 141명이 2013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8명은 2013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4년에 입국했다. 2015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6명은 모두 2014년도에 탈북했으며, 이 중 129명은 2014년도에 입국했으며, 17명은 2014년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5년에 입국했다. 2016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8명 중 135명이 2015년도에 탈북하였으며, 이 중 99명이 같은 해 입국하였고 36명이 2016년 입국하였다. 2016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입국한 응답자는 3명이었다. 2017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2명 중 132명이 2016년도에 탈북하였으며, 이 중 113명이 같은 해에 입국하였고, 19명은 2017년에 입국하였다.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평균 3.63개월, 2012년 평균 3.57개월, 2013년 평균 3.37개월, 2014년 평균 2.26개월, 2015년 평균 2.49개월, 2016년 3.33개월, 2017년은 2.82개월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5년 69.8%, 2016년 44.9%, 2017년 61.4%를 보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탈북자

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하여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 연도 소요 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개월 미만	0.0	0.0	0.0	3.4	0.0	1.4	1.5
1개월	2.9	1.6	0.0	26.8	30.8	21.0	27.3
2개월	25.7	18.1	29.3	48.3	39.0	22.5	32.6
3개월	38.1	48.8	47.4	8.1	14.4	15.2	12.1
4개월	14.3	14.2	8.3	2.0	6.8	14.5	8.3
5개월	1.0	6.3	5.3	4.7	2.1	15.2	8.3
6개월	2.9	4.7	1.5	2.7	1.4	2.9	2.3
7개월	5.7	0.8	3.8	2.0	0.7	1.4	0.8
8개월	1.9	2.4	1.5	1.3	0.0	0.7	3.8
9개월	0.0	0.8	0.8	0.7	1.4	1.4	2.3
10개월	2.9	1.6	2.3	0.0	3.4	0.7	0.0
11개월	1.9	0.8	0.0	0.0	0.0	1.4	0.8
무응답	2.9	0.0	0.0	0.0	0.0	1.4	0.0
평균(개월)	3.63	3.57	3.37	2.26	2.49	3.33	2.82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응답자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4〉에 나타나듯,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5%,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 2015년 84.9%,

2016년 87.7%, 2017년 88.6%를 보이고 있다.⁴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양	0 (0.0)	0 (0.0)	1 (0.8)	3 (2.0)	3 (2.1)	5 (3.6)	2 (1.5)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남포	0 (0.0)	1 (0.8)	0 (0.0)	2 (1.3)	1 (0.7)	2 (1.4)	1 (0.8)
평안남도	5 (4.8)	0 (0.0)	2 (1.5)	4 (2.7)	3 (2.1)	2 (1.4)	0 (0.0)
평안북도	0 (0.0)	1 (0.8)	6 (4.5)	0 (0.0)	3 (2.1)	1 (0.7)	1 (0.8)
함경남도	4 (3.8)	14 (11.0)	11 (8.3)	9 (6.0)	5 (3.4)	4 (2.9)	6 (4.5)
함경북도	55 (52.4)	65 (51.2)	51 (38.6)	53 (35.6)	64 (43.8)	58 (42.0)	33 (25.0)
자강도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양강도	40 (38.1)	39 (30.7)	58 (43.9)	72 (48.3)	60 (41.1)	63 (45.7)	84 (63.6)
황해남도	0 (0.0)	3 (2.4)	0 (0.0)	1 (0.7)	1 (0.7)	0 (0.0)	4 (3.0)
황해북도	1 (1.0)	3 (2.4)	1 (0.8)	2 (1.3)	4 (1.3)	0 (0.0)	0 (0.0)
강원도	0 (0.0)	1 (0.8)	2 (1.5)	2 (1.3)	2 (1.4)	3 (2.2)	0 (0.0)
무응답	0 (0.0)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4)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61.0%, 15.0%를 차지한다.

(3) 교육수준·직업 분포

다섯 차례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등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등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 2012년 65.4%, 2013년 71.4%, 2014년 66.7%, 2015년 61.0%, 2016년 74.6%, 2017년 72.0%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 2012년 28.3%, 2013년 27.8%, 2014년 31.6%, 2015년 36.3%, 2016년 24.6%, 2017년 25.0%로 나타나 고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학교	11.4	10.2	16.5	13.6	19.9	13.0	7.6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16.4	11.6	17.4
고등 중학교	66.7	65.4	71.4	66.7	61.0	74.6	72.0
인민학교	1.0	3.2	0.0	1.6	2.1	0.7	2.3
무학	0.0	1.6	0.8	0.6	0.7	0.0	0.8
무응답	-	1.6	-	-	-	-	-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 1-6〉에서 보이듯 매년 비중이 줄어들었던 노동자 직업이 2017년 들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노동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7.6%, 2012년 37.0%, 2013년 31.6%, 2014년 30.6%, 2015년 26.0%, 2016년 22.5%, 2017년 43.9%이

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3년에는 주부(16.5%)가, 2014년에도 주부(19.1%)가, 2015년에는 장사(20.5%), 2016년에는 주부(13.0%), 2017년에는 주부(10.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특히, 장사의 비중이 2014년 4.8%에서 2015년 20.5%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12.3%), 2017년(9.8%)로 떨어졌다.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동자	27.6	37.0	31.6	30.6	26.0	22.5	43.9
농민	8.6	8.7	3.8	7.5	4.8	9.4	3.8
사무원	12.4	4.7	9.8	12.2	8.9	10.9	6.1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5.5	7.2	7.6
학생	6.7	6.3	6.0	7.5	4.8	4.3	2.3
군인	5.7	3.9	4.5	4.8	4.8	8.0	5.3
외화별일군	1.0	2.4	2.3	0.0	4.1	2.9	3.8
장사	10.5	11.1	13.5	4.8	20.5	12.3	9.8
주부	10.5	11.1	16.5	19.1	11.6	13.0	10.6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8.2	9.4	6.8
무응답	5.7	1.6	-	-	0.7	-	-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4) 당원 가입 여부

응답자의 당원 여부는 <표 1-7>에서 보이듯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17년 조사에서 18.2%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0.3%를 차지한다.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직업 분포를 보면, 사무원 30.8%, 노동자 19.2%, 군인 19.2%의 순서로 비중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모두 합한 경우에서 직업별 당원 비중을 보면, 노동자>사무원>군인 순서로 비중이 많이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노동자>사무원>전문가 순서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왔다. 2016년에는 사무원의 수가 가장 높았고 노동자와 군인의 비중이 같은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까지 비교적 높았던 전문가의 수는 2016년 3.8% 비중이 매우 낮았다. 장사, 외화벌이 직업을 가진 이는 없었다. 2017년도에는 노동자(45.8%)>사무원, 군인(12.5%)>전문가, 학생(8.3%) 순으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원	9.5	14.4	14.3	13.5	17.8	18.8	18.2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비당원	85.7	84.3	85.7	85.8	80.0	81.2	80.3
무응답	3.8	1.6	-	-	0.7	-	0.8
합계(N)	105	127	133	147	146	138	132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7년 연속 5,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응답률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1년 35.2%, 2012년 36.2%, 2013년 36.8%, 2014년 26.2%, 2015년 35.6%, 2016년 26.8%, 2017년 40.9%로 작년보다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 역시 2011년 25.7%, 2012년 25.2%, 2013년 51.9%, 2014년 61.1%, 2015년 54.8%, 2016년 58.0%, 2017년 47.0%로 나타나 최근 3년 간 10명 중 5명 이상이 공식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원	27 (25.7)	32 (25.2)	69 (51.9)	91 (61.1)	80 (54.8)	80 (58.0)	62 (47.0)
1,000원 이하	7 (6.7)	10 (7.9)	2 (1.5)	13 (8.7)	7 (4.8)	7 (5.1)	8 (6.1)
5,000원 이하	37 (35.2)	46 (36.2)	49 (36.8)	39 (26.2)	52 (35.6)	37 (26.8)	54 (40.9)
1만원 이하	2 (21.9)	4 (3.1)	5 (3.8)	2 (1.3)	1 (0.7)	4 (2.9)	0 (0.0)
10만원 이하	6 (5.7)	9 (7.1)	0 (0.0)	3 (2.0)	4 (2.7)	5 (3.6)	2 (1.5)
50만원 이하	2 (1.9)	5 (3.9)	4 (3.0)	0 (0.0)	0 (0.0)	3 (2.2)	3 (2.3)
100만원 이하	1 (1.0)	0 (0.0)	2 (1.5)	0 (0.0)	1 (0.7)	2 (1.4)	2 (1.5)
100만원 초과	0 (0.0)	0 (0.0)	0 (0.0)	1 (0.7)	1 (0.7)	0 (0.0)	1 (0.8)
무응답	23 (21.9)	21 (16.5)	2 (1.5)	0 (0.0)	0 (0.0)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는 점차 고소득 월수입의 응답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9〉에서 보이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만원 이하’로 2011년 23.2%, 2012년 40.4%, 2013년 40.6%, 2014년 30.3%, 2015년 29.5%, 2016년 26.8%, 2017년 34.1%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100만원 이하’의 응답과 ‘100만원 초과’의 응답으로 전자의 비중은 2011년 5.7%에서 2015년(24.7%), 2016년(23.9%)로 크게 증가하다 올해 13.6%로 감소하

였고, 후자의 비중은 2011년(5.7%)에서 2015년(23.3%), 2016년(15.2%)로 감소하였고 올해 들어 다시 26.5%로 증가한 점이다. 반면에 ‘10만원 이하’의 응답의 비중은 2014년 17.4%였으나 2015년부터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8.3%였다. 이와 같은 소득 격차의 변화는 공식 소득 부분에서보다 비공식 소득 부분에서 훨씬 더 불평등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소득 구성의 변화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의 차별적 분배 메커니즘에 의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9〉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비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원	18 (17.1)	21 (16.5)	32 (24.1)	33 (22.1)	24 (16.4)	32 (23.2)	18 (13.6)
1,000원 이하	6 (5.7)	0 (0.0)	3 (2.3)	4 (2.7)	0 (0.0)	2 (1.4)	1 (0.8)
5,000원 이하	7 (6.7)	2 (1.8)	0 (0.0)	2 (1.3)	0 (0.0)	1 (0.7)	4 (3.0)
1만원 이하	2 (1.9)	2 (1.6)	3 (2.3)	2 (1.3)	0 (0.0)	1 (0.7)	0 (0.0)
10만원 이하	18 (17.1)	25 (19.7)	9 (6.8)	26 (17.4)	9 (6.2)	11 (8.0)	11 (8.3)
50만원 이하	19 (18.1)	44 (34.6)	52 (39.1)	43 (28.9)	43 (29.5)	37 (26.8)	45 (34.1)
100만원 이하	6 (5.7)	8 (6.3)	12 (9.0)	17 (11.4)	36 (24.7)	33 (23.9)	18 (13.6)
100만원 초과	6 (5.7)	7 (5.5)	19 (14.3)	15 (10.1)	34 (23.3)	21 (15.2)	35 (26.5)
무응답	23 (21.9)	18 (14.2)	3 (2.3)	7 (4.7)	0 (0.0)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10>을 보면 응답자들의 10명 중 약 8명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 2015년 76.7%, 2016년 68.8%, 2017년 69.7%로 조사 연도별로 약간씩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7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7.7%, 농민 55.7%, 사무원 69.4%, 전문가 63.3%, 학생 39.0%, 군인 59.6%, 외화벌이 81.8%, 가정부인 86.3%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가정부인과 외화벌이 군으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 농민, 군인의 경우는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회 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1-10>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있다	68.6	69.3	74.4	69.8	76.7	68.8	69.7
없다	27.6	29.9	25.6	30.2	23.3	31.2	30.3
무응답	3.8	0.8	-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6) 탈북 후 정보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표 1-11>에서 보이듯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68.5%,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 2015년 74.0%, 2016년 76.8%, 2017년 76.6%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남북한 간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며 동시에 정보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에서 핸드폰은 주요 매개체이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수는 2014년 기준으로 280만대에 이르며, 평양을 포함한 15개 주요 도시와 86개의 작은 도시까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 이처럼 북한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빠른 보급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직행탈북자’의 증가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 구성원은 이미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탈북 방법 및 탈북 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탈북 후 입국의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5]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서울: KDB산업은행, 2015), p.756.; 미국의소리,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KDI 북한경제리뷰』(2014.3.)

〈표 1-11〉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3	19.7	22.6	24.8	19.2	26.1	20.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2	59.1	57.1	57.8	54.8	50.7	56.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6	21.3	20.3	17.5	25.3	23.2	23.5
무응답	2.9	-	-	-	0.7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유무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2〉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39.0%, 2012년 37.8%로 50% 미만이었다가 2013년 65.4%, 2014년 69.1%, 2015년 58.2%, 2016년 60.9%, 2017년 51.5%으로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남한의 친척 유무와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을 교차분석 해본 결과,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이 친척이 없는 경우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추가 탈북자들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2〉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없다	58.1	62.2	34.6	30.9	41.8	39.1	48.5
있다	39.0	37.8	65.4	69.1	58.2	60.9	51.5
무응답	2.9	-	-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 1-13〉에서 보이듯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 39.0%로, 2016년에는 42.0%, 2017년 40.2%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2.5%, 2016년에는 47.1%, 2017년 45.5%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6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0%, 2012년 9.4%, 2013년 9.0%, 2014년 14.1%, 2015년 17.8%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에 들어 10.9%로 다시 감소했고 2017년도에는 13.6%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혼 비율의 증가는 남한사회의 적응 및 정착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 응답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연령대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또는 가족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접근 및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13〉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혼	52.4	45.7	37.6	30.9	39.0	42.0	40.2
결혼 (동거포함)	41.9	44.1	53.4	55.0	42.5	47.1	45.5
이혼	0.0	9.4	9.0	14.1	17.8	10.9	13.6
무응답	5.7	0.8	-	-	0.7	-	0.8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 1-14〉에서 나타나듯 0명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다. 자녀의 수는 결혼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혼자의 수와 자녀의 수가 0명인 응답률이 동반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조사에서 1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와 같이 2순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중으로는 세 번째로 전년과 같게 나타났다.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2명, 2014년에 21명, 2015년에는 26명, 2016년에 15명, 2017년 18명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4〉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명	22.9	24.4	38.4	34.2	39.7	43.5	43.2
1명	27.6	27.6	32.3	27.5	35.6	33.3	36.4
2명	17.1	19.7	24.1	29.5	21.2	18.8	18.9
3명	5.7	7.1	4.5	6.7	2.1	4.3	0.8
4명	3.8	1.6	0.8	1.3	1.4	0.0	0.8
5명	-	-	-	0.7	-	0.0	-
무응답	22.9	19.7	-	-	-	-	-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제2장 통일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본 장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예상시기와 통일로 인한 기대편익, 그리고 통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입장 등, 통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문들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통일이란 것이 단순히 위로부터의 제도적 통합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통합을 포함한다고 할 때, 시민 차원에서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고 원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통일정책의 동력이 지속되고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남한 측의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강요될 경우, 북한주민의 소외감과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원하는 통일의 모습과 방식 등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

본 설문의 조사시점이 되는 2016년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였다. 김정은 집권의 본격화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으로 한 때 보수정권 주도 하의 남북 화합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개성공단 철수 등 우리 측

의 강경 대응으로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 경색되고 말았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연속된 미사일과 핵 실험으로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정은 공포정치와 제한된 경제적 자유화 조치라는 이중적 정책을 펼치며 내부 결속을 다져나갔다.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군사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이는 김정은을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즉, 군사력 강화를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적 자유화를 통한 체제변화라는 김정은식 병진노선의 양면성은 통일에 대한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2016년 당시까지 북한에 거주했던 탈북민들의 응답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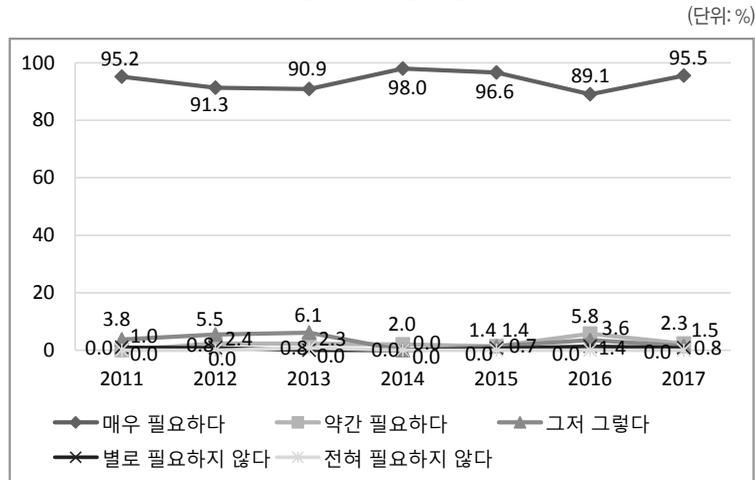
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먼저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통일이 필요하고 바라는지를 알아보고자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질문을 하였다. 전자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묻은 반면, 후자는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북한주민들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를 물었다. 하지만 질문의 형식과 관계없이 두 질문 모두에서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이 매우 필요

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총 132명의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5.5%에 해당하는 126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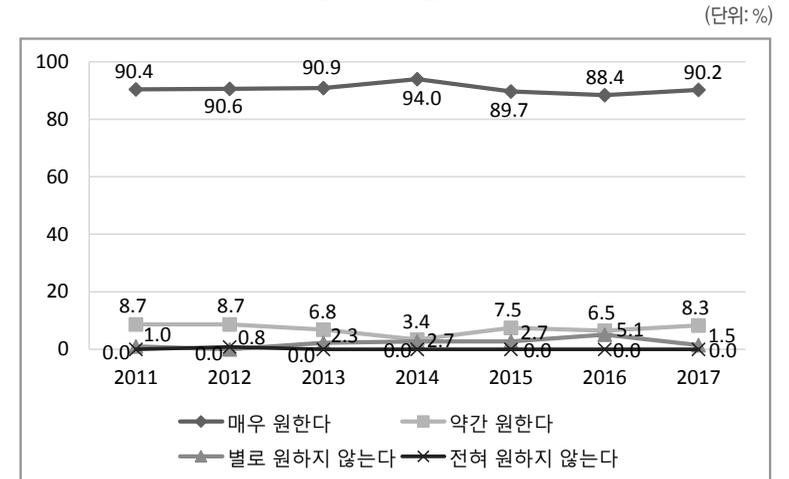
이러한 수치는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그림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남한 시민들의 응답과는 대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6년 남한주민들은 53.7%의 응답자만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21.0%, '약간 필요하다' 32.7%)고 답하였고, 특히 '매우 필요하다'란 응답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남북 주민들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두 번째는 북한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어떤 수준인지를 물었다. 남북한의 큰 경제적 격차를 생각할 때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므로 통일이 필요하다 여길 수 있지만, 정서적 차원에서는 통일을 그다지 바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의 조사결과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에서 통일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0.2%의 응답자가 '매우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8.3%의 응답자가 '약간 원한다'고 응답하는 등, 모두 98.5%에 달하는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림 2-2>에서 보듯 통일에 대한 바람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역시 67.9%의 응답자만이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2016년 남한주민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2016년 들어 악화된 남북 관계와 국제적 긴장 가운데서도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2-2> 통일의 의지



3. 통일의 이유

올해의 북한주민 조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 중 하나가 통일의 이유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해마다 가장 큰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란 경제적 관점의 응답이었다. <표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응답은 매년 4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다른 항목을 압도하였으나 올해의 조사에서는 29.5%의 응답률로 떨어졌다. 대신 ‘북한의 선진국 도약’이란 응답이 12.1%로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두 응답을 합해도 41.6%로 예년보다는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응답은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적어도 지난 4년간의 응답만을 놓고 볼 때,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은 강화되는 반면 실용주의적 필요성은 조금씩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들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진 것은 김정은 체제 아래 서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통일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성향이 약해지고 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민족주의적 응답이 감소하고 있는 남한주민의 결과(2007년 50.7% → 2016년 38.6%)와는 사뭇 대조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항 구성이 가지는 특성도 일부 고려되어야 한다. 문항이 선택지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을 묻기보다는, 그 중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고르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문항만으로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 힘들다. 통일의 경제적 필요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해에 민족의식이 강화될만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둘 다일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경제적, 실용적 이유가 예년보다 감소하였고, 여기에는 예상외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1> 통일의 이유

(단위: %)

	2014	2015	2016	2017
같은 민족이니까	24.1	28.2	30.4	37.1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7.6	3.5	8.7	8.3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	11.7	8.5	12.3	9.8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7.6	47.9	42.0	29.5
북한의 선진국 도약	8.3	9.9	4.3	12.1
합계(명)	145	142	138	132

4. 통일의 방식과 예상시기

통일의 이유에 이어 예년과 다른 응답 패턴을 보인 또 하나의 설문항목이 바로 통일의 방식이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끝났고 표본인 탈북민이 이미 이러한 남한의 우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 쉽

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작년까지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표 2-2>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2016년까지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수위를 차지했지만,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 안팎의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의 결과에서는 남한 체제로의 통일이 38.2%로 감소한 데 비해 북한 체제로의 통일은 11.5%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 이상을 기록하였다. 예상외로 남한 체제로의 통일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가 김정은 집권 이후 공고화되면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본 설문은 시점이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점이란 점에서 이러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러한 자신감이 지속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조사결과를 통해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 통일의 방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	2.0	3.4	5.8	11.5
남북한의 체제 절충	21.6	17.1	14.5	15.3
남북한 두 체제 공존	4.7	6.8	8.0	9.2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	39.9	48.6	42.8	38.2

	2014	2015	2016	2017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음	31.8	24.0	29.0	26.0
합계(명)	148	146	138	131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5년 이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던 응답자는 전체의 6.9%에 불과해, 예년의 10%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단기라 할 수 있는 ‘10년 이내’의 경우도 19.1%의 응답자만이 응답하여 예년의 결과를 밑돌았다. 두 응답을 합해보면 향후 10년 안 쪽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는 전체의 26%로, 40% 안팎을 기록했던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통일이 ‘30년 이상’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9.2%와 55.7%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 응답이 조사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넘어 통일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증가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설문결과들과 일관된 점을 시사한다. 즉, 여러 가지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승계, 체제 유지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을 보며 빠른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가 한 층 꺾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연이은 성공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체제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믿게 하는 강력한 선전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안정화가 일관적으로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표 2-3〉 통일의 예상시기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이내	20.2	11.8	11.4	18.9	11.0	13.0	6.9
10년 이내	30.8	29.1	22.7	18.2	30.3	31.9	19.1
20년 이내	12.5	8.7	8.3	9.5	6.9	6.5	5.3
30년 이내	2.9	1.6	4.5	3.4	2.1	2.2	3.8
30년 이상	6.7	5.5	8.3	4.7	6.2	2.2	9.2
불가능하다	26.9	43.3	44.7	45.3	43.4	44.2	55.7
합계(명)	104	127	132	148	145	138	131

5. 통일에 대한 기대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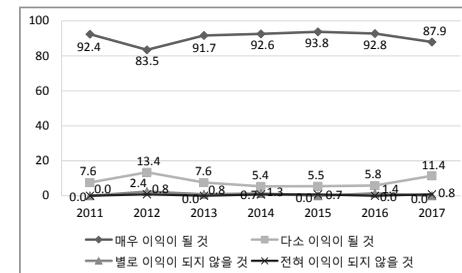
통일은 북한 사회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총 132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통일이 북한에 ‘매우’(116명)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15명)이라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림 2-3〉의 위 그래프에서 보듯,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이 예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면서 2012년 이후 5년 만에 90%를 넘지 못하였다. 통일이 북한사회에 무조건 이익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이나마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통일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이 북한사회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였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대이익은 이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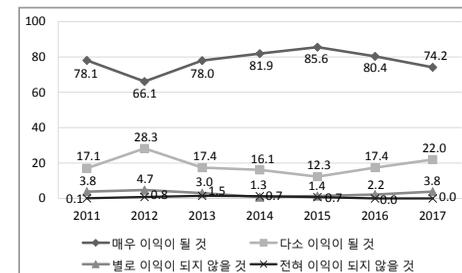
통일이라는 큰 정치·경제적 변혁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전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이익의 기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대로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사회적 차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의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란 응답은 앞선 질문의 응답보다 일관되게 낮게 나왔다.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예년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이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섞인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통일의 기대이익

(단위: %)



통일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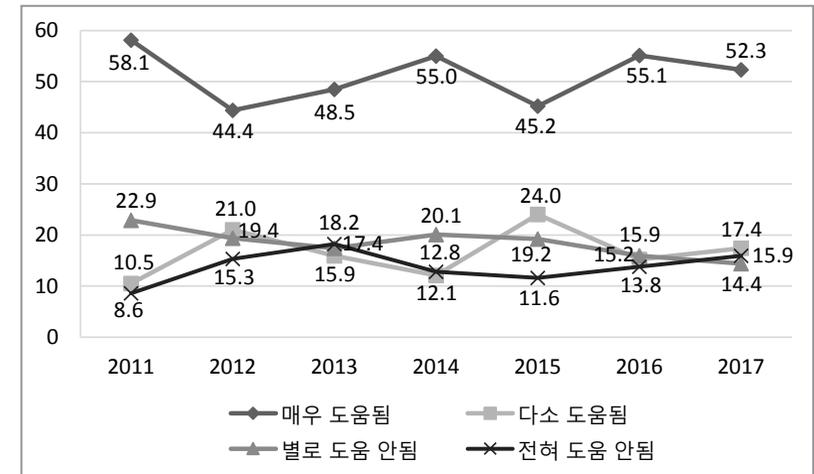
6. 통일정책에 대한 효용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남북한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일련의 통일정책이 얼마나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본 조사는 크게 네 가지의 통일정책 -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정기적 회담 개최 - 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7년간의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네 가지 정책 모두에서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통일정책들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올해의 결과도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먼저 남한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림 2-4>에서 보듯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될 것’(52.3%)이다와 ‘다소 도움이 될 것’(17.4%)이라는 응답을 합하여 69.7%의 응답자가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의 평균치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여전히 30% 정도의 응답자가 대북지원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 남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만큼 북한주민들이 그 효용성을 체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효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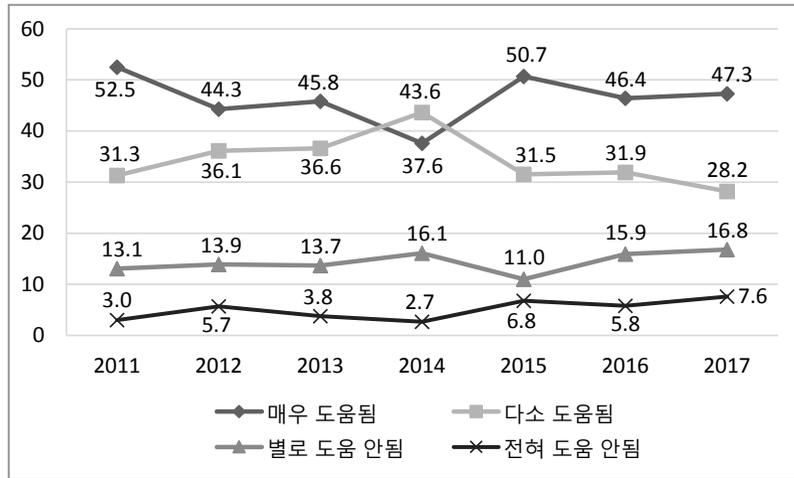
(단위: %)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조금 효용감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조금씩 하락하는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더라도 올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긴장 국면에 접어들자 민간 수준의 교류가 쉽게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낮은 차원의 교류가 갖는 정책적 한계가 북한주민들의 인식에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2-5〉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효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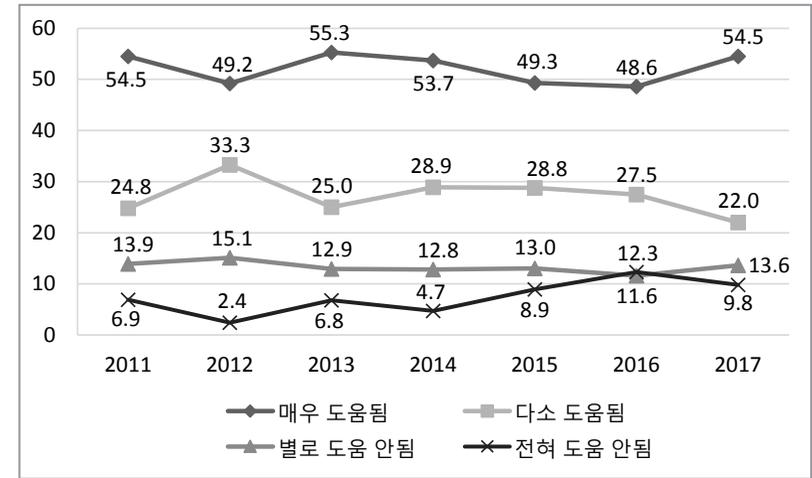
(단위: %)



이와는 반대로 경제협력이 통일에 갖는 중요성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2-6〉에서 보듯 경제협력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4.5%를 차지, 조사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작년의 12.3%에서 9.8%로 하락하였다. 사회문화 교류와 달리 경제협력의 중단은 개성공단 폐쇄 등과 같이 북한사회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협력의 재개를 시작으로 통일에 대한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라는 북한주민의 기대가 담겨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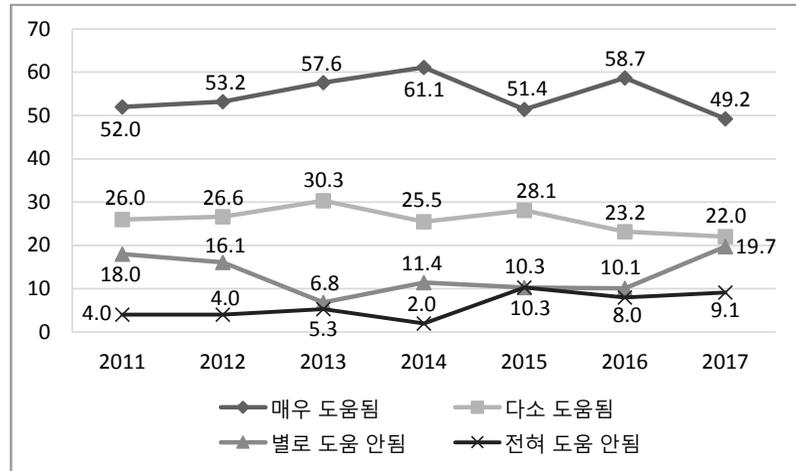
(단위: %)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정기적 회담에 대한 인식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2-7〉과 같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작년 대비 10% 가까이 하락한 데 반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응답은 그만큼 증가, 작년에 비해 한층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에도 여러 층위에서 반복되었던 남북 간의 크고 작은 회담들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 채 국내외적 정세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회담이 갖는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7> 남북 정기회담에 대한 효용감

(단위: %)



7. 소결

본 장에서는 2016년에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해의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들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조사결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염원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와 방식, 그리고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작년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통일의 이유에 있어 경제적, 실용적인 경향이 약화된 반면 민족적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통일의

예상시기에 있어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등, 전반적으로 비관적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권 5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란 병진노선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야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그들의 통일인식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주민들이 북한 체제가 남한보다 우월하거나, 그들의 경제사정이 우리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통일의 기대이익에 대한 응답에서 여전히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것이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간 사회문화적 교류나 정기적 회담에 대해 갖는 효용감은 낮아진 반면,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감은 증가하였다. 과거 수차례 반복된 정기적 회담이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교류 역시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통일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협력의 중단은 북한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부문에서의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병진노선은 뚜렷한 명과 암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제한적이거나 경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유화의 증가가 체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 체제의 유지와 결속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식 병진노선의 추진은 북한주민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회복으로 통일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경향은 다소 약화되었고, 체제의 안정성과 자신감의 증가로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남북 간의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든, 혹은 줄어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인식의 격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체제 안정성의 증가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더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 통일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의 증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체제의 공고화로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향후 일정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병진노선의 추진이 어떠한 방향으로 북한사회를 변화시켜 나갈지는 향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장을 닫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통일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본 조사의 문항들은 양적조사라는, 그리고 남한주민과의 비교연구라는 특성상 보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통일에 대한 부분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통일의 개념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통일을 제도적 통합이란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사회가 하나의 가치로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다

양한 정치체제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북한주민의 경우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문맥 아래 질문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응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설문문의 구성을 보다 세련되게 정교화하고, 필요한 경우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 **대남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대남인식

1. 서론

2016년 9월 5일 북한은 황해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에 남한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엄중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해내외 전체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오히려 남북한과 해외 청년들이 참가하는 '조선청년 통일대회합'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남한 정부는 통일전선 공세라고 일축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결국 9월 9일 제5차 북핵 실험으로 나타났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일심단결로 끄떡없고 무진막강한 군력에 의해 그 불패성이 담보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라며 "천만대적도 일격에 짓밟개버릴 수 있는 무진막강한 자위적 핵억제력에 의해 더욱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⁶ 남한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대북 압박 및 제재의 수위를 높여 나갔다. 또한 남한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의 강도도 높여 나갔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고,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다.

2017년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무력도발 행위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2017년 5월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남한의 새로운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이를 남과 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남한의 새로운 정부에게 남북 합의의 존중과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의 일환으로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단절됐던 민간 교류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 재개를 북한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7월 6일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7월 28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한층 더 경색되었다.⁷ 더군다나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됨으로써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전쟁을 우려하였다.

2017년 조사에 나타난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017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남북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융합되는 것이라

6] "北, 차 대통령 재차 비난... '정신 통제 불능 상태'", 『뉴스1』, 2016년 9월 13일:
(<http://news1.kr/articles/?2774182>)

7]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 검색.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중심에는 궁극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융합, 나아가 마음의 융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통일을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들과 북한주민들이 서로의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 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또한 본 장은 남북 간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등도 평가할 것이다.

2. 남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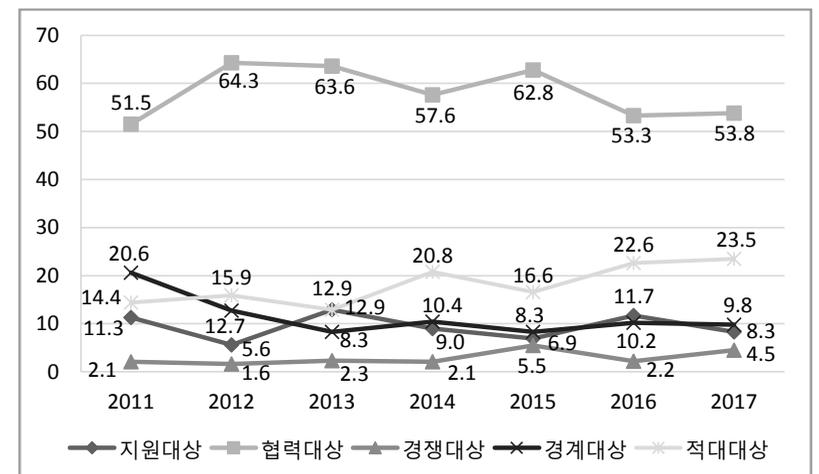
(1) 북한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북한주민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도외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여 볼 때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즉,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22.6%에서 23.5%로 겨우 0.9%p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협력대상’ 인

식도 수치상으로는 53.3% → 53.8%로 조금 상승했지만, 사실상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적대대상’으로서 남한에 대한 인식은 2012년 5.6%에서 2013년 12.9%로 증가했고, 또다시 2014년 20.8%를 기록함으로써 2년 동안 15.2%p가 증가했다. 이는 2012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가장 적대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후 2015년에 16.6%로 4.2%p 하락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부정적 인식 증가로 주목할 부분은 ‘경계대상’에 대한 응답이다. 2015년 8.3%에서 2016년 10.2%로 1.9%p 증가한 이후 2017년에 9.8%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0.4%p),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2016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북제재에 대한 대남 비난 선전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 한미군사훈련, 북핵외교,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비난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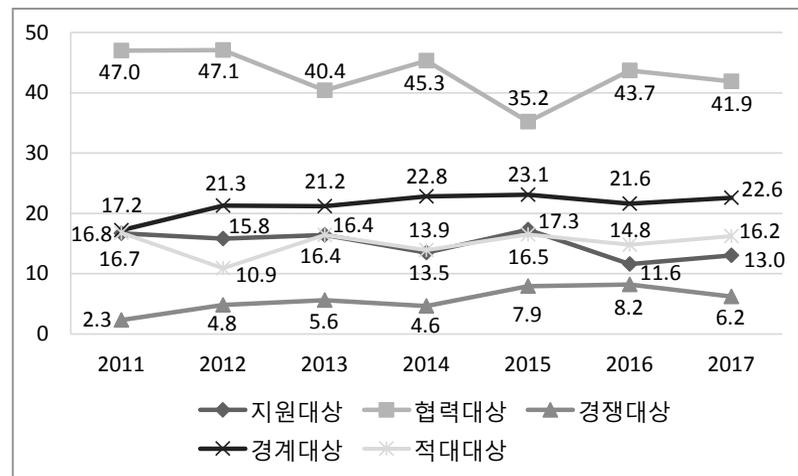
(단위: %)



북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남한주민들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했다. ‘협력대상’으로서 대북인식은 2014년 45.3%에서 2015년 35.2%로 10.1%p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2016년 43.7%로 8.5%p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2017년 큰 변화는 아니지만 또 한 번 41.9%로 1.8%p 낮아졌다. 하지만 ‘지원대상’으로서 대북인식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13.0%로 1.4%p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17.3% 기준으로 볼 때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경계대상’으로서 대북인식은 2016년 21.6%에서 2017년 22.6%로 상승했고, ‘적대대상’도 2016년 14.8%에서 2017년 16.2%로 1.4%p 소폭 상승했다.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단위: %)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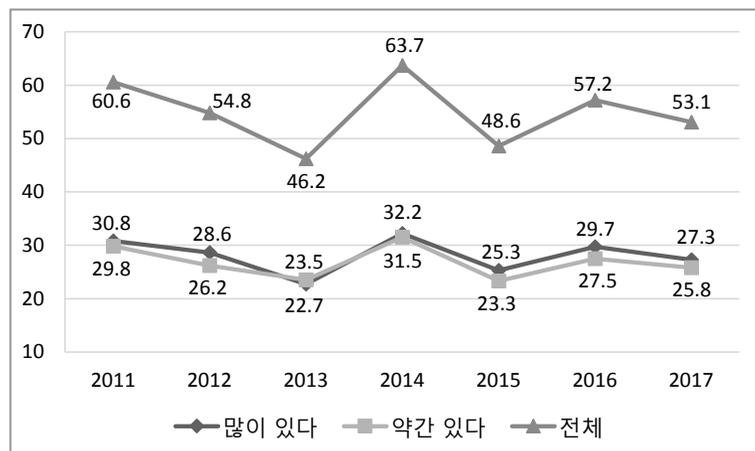
북한주민들은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27.3%), ‘약간 있다’(25.8%)를 합하여 53.1%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전혀 없다’(17.4%), ‘별로 없다’(29.5%)를 합하여 ‘없다’(46.9%)는 응답은 ‘있다’라는 응답보다 6.2%p 낮았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 같다는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 46.2%로 가장 낮았다가 2014년 63.7%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모함지피 사건’이 발생했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는 가운데 극적으로 합의(825합의)가 되면서 다시 48.6%로 낮아졌다. ‘825 합의’ 이후 2015년 12월 11일부터 1박 2일간 남북 차관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큰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남북관계는 더 이상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 달라”며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한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가 표출됨으로써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이 다시 57.2%로 높아졌다. 하지만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정책을 피력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이 53.1%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북한이 남한 및 미국의 군사적 호전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이 다소 감소한 것은 북한 당국의 핵억제력 선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북한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대로 핵무기가 남한으로 하여금 무력으로 침공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의 선전대로 남한의 군사력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낮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이 있다' 29.7% → 27.3%, '약간 있다' 27.5% → 25.8%, '별로 없다' 22.5% → 29.5%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전혀 없다'는 20.3% → 17.4%로 하락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을 나타냈다.

〈그림 3-3〉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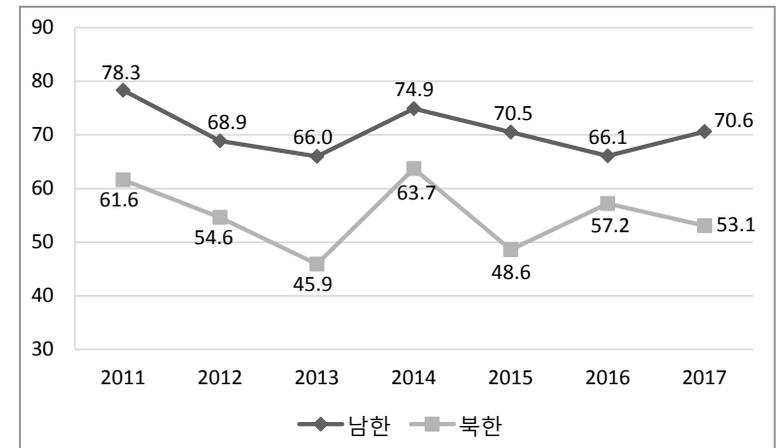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남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남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2016년 66.1%에서 70.6%로 4.5%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과 이후 반복된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비난, 남북관계 단절, 강대강 북미 대립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 남북한 비교: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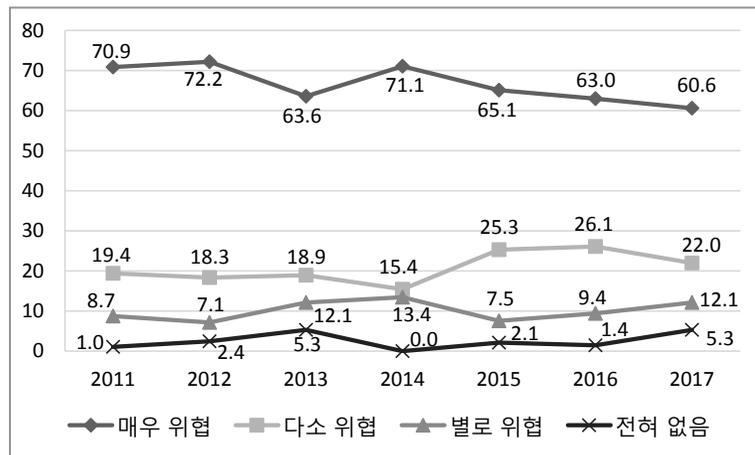
3. 북핵위험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2.6%가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중 60.6%가 ‘매우 위협적인 것’이라고 응답했고, 22.0%는 ‘다소 위협적일 것’이라

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의 '매우 위협적일 것' 63.0%, '다소 위협적일 것' 26.1%를 합한 전체 89.1%보다 6.5%p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2015년 90.4%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추세이다. 같은 맥락에서, 15.4%가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중 12.1%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5.3%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이라는 응답률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듯이, 북한주민들은 북한 핵무기 위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북한 당국이 군사적 위기상황을 상시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또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3-5〉 북핵 위협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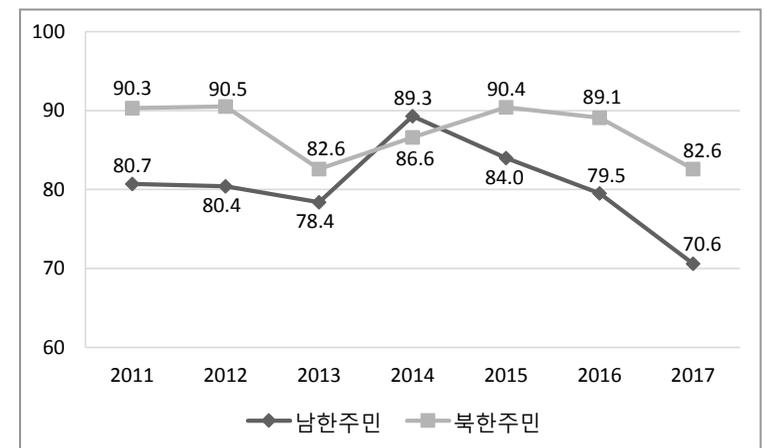


그런데 북한 핵무기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핵무기를 더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주민들보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남한주민들은 2014년 89.3%, 2015년 84.0%, 2016년 79.5%, 2017년 70.6%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14년 남한주민은 북핵 무기에 대해 89.3%가 위협적이라고 본 반면, 북한주민은 86.6%로 2.7%p가 낮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2015년에 들어서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남한주민 84.0%, 북한주민 90.4%로 그 격차가 6.4%p로 벌어졌다. 이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고, 2017년 현재 남한주민 70.6%, 북한주민 82.6%로 그 격차가 12%p로 벌어졌다. 남한주민들의 인식이 하락한 것은 안보불감증일 수도 있고, 북한의 주장대로 체제생존 수단인 협상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이 아닌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림 3-6〉 남북한 비교: 북핵위협인식

(단위: %)



4. 대남인지도

(1)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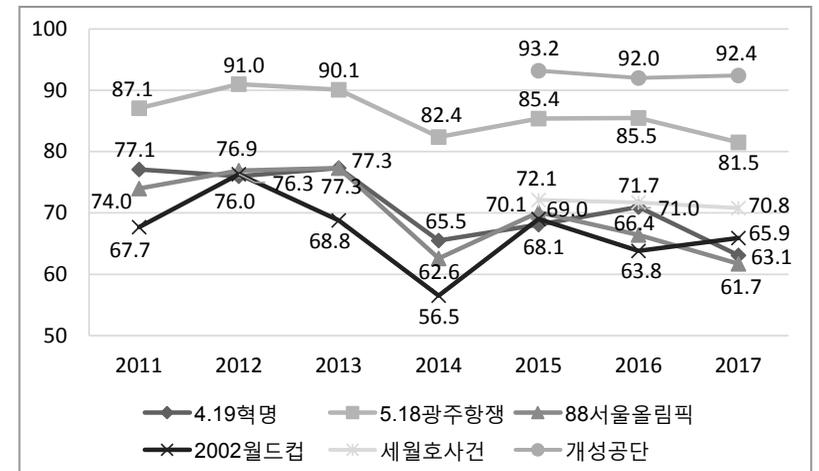
〈그림 3-7〉 2011-2017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 시기별로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2015년부터 제시하기 시작한 ‘개성공업지구’(92.4%)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18광주항쟁’(81.5%), 세 번째로는 ‘세월호 사건’(70.8%)을 많이 알고 있었다.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 중 ‘개성공단’과 ‘세월호 사건’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5.18광주항쟁’, ‘4.19혁명’,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변화를 보였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2016년 92.0%에서 2017년 92.4%로 큰 변화(+0.4%p)가 없었고, ‘세월호 사건’도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6년 71.7%에서 2017년 70.8%로 0.9%p 낮아졌다. ‘5.18광주항쟁’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2016년 85.5%에서 2017년 81.5%로 4.0%p 낮아졌고, ‘4.19혁명’에 대해서도 2016년 71.0%에서 2017년 63.1%로 7.9%p 낮아졌다. ‘88서울올림픽’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2016년 66.4%에서 2017년 61.7%로 4.7%로 낮아졌지만, ‘2002월드컵’은 2016년 63.8%에서 2017년 65.9%로 2.1%p 증가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가 특히 높았던 이유는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경색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02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사들을 노동신문에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도 노동신문은 남한을 비난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을 잘 나타냈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신문은 대남 비난 및 비방의 목적으로 관련 사건들을 보도한 바 있었다.

〈그림 3-7〉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단위: %)



2016년과 비교할 때 ‘2002월드컵’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2016년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들어본 수준일 수도 있고, 지난 9년 동안 별 진전이 없었던 남북관계에서도 대남 인지도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대남 인지도가 엄밀한 차원에서 상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남북 간 차이, 이질성 인식

북한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북한주민들은 선거방식 97.0%, 언어사용 90.9%, 생활풍습 96.2%, 가족중시 86.4%, 사회복지 80.3%, 돈에 대한 중시 81.1%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선거방식 91.8%, 언어사용 82.5%, 생활풍습 96.2%, 가족중시 86.4%, 사회복지 80.3%, 돈에 대한 중시 62.2%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남한주민들(평균 76.9%)은 북한주민들(평균 88.6%)보다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해 다소 낮게 느끼고 있었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느끼는 이질감 중 '가족중시(29.1%p)'가 가장 격차가 컸고, '선거방식(5.2%p)'이 가장 격차가 낮았다. 한편, 가족중시에서 이질성 격차가 가장 컸던 이유는 남한의 핵가족화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남한주민들은 '가족중시'의 이질성을 가장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도 다른 항목에 비해 가족중시의 이질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생활풍습에 대한 남북 간 이질성을 나타냈지만, 남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의 경우 남한주민들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남북 간 이질성을 평가했지만, 북한주민들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돈에 대한 중시는 남북 이질성 격차가 세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3-1>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7)

(단위: %)

	남한	북한	격차
선거방식	91.8%	97.0%	5.2%p
언어사용	82.5%	90.9%	8.4%p
생활풍습	77.1%	96.2%	19.1%p
가족중시	57.3%	86.4%	29.1%p
사회복지	90.5%	80.3%	10.2%p
돈에 대한 중시	62.2%	81.1%	18.9%p
평균	76.9%	88.6%	1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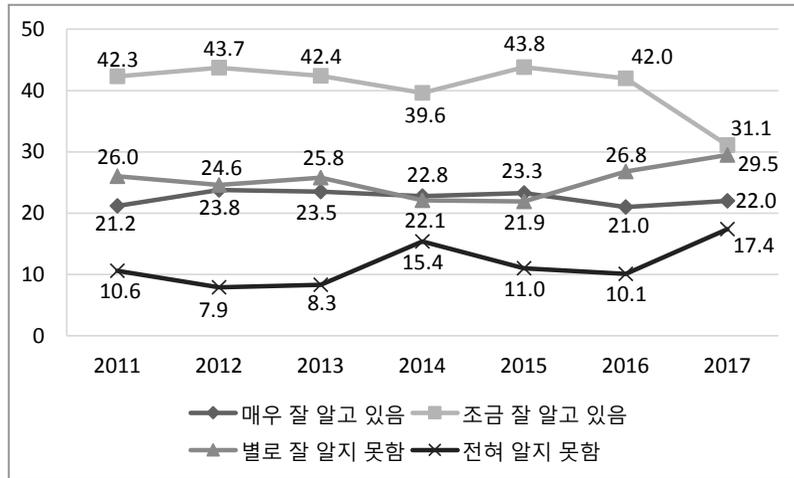
5. 남한의 대북지원

(1) 대북지원 인지도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 문제가 정치,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남남갈등의 뜨거운 쟁점이였다. 이에 북한주민들은 대북지원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북한주민들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매우 잘 알고 있음’ 22.0%, ‘조금 잘 알고 있음’ 31.1%, ‘별로 잘 알지 못함’ 29.5%, ‘전혀 알지 못함’ 17.4%로 나타났다.

〈그림 3-8〉 대북지원 인지도(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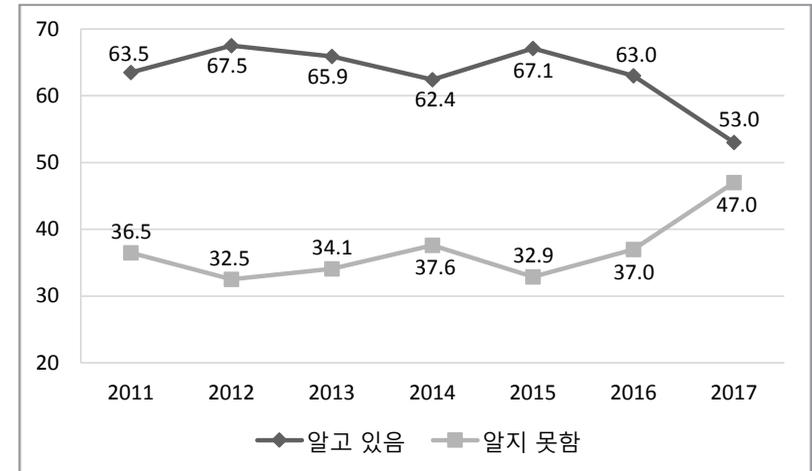


〈그림 3-9〉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2015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2015년 67.1%에서 2016년 63.0%로 4.1%p 소폭 감소한 이래로, 2017년에는 53.0%로 10.0%p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대북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2015년 32.9%에서 2016년 37.0%로 4.1%p 소폭 증가한 이래로, 2017년에는 47.0%로 10%p 증가했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가 하락한 것은 남북관계 단절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 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실상 남북 간 교류는 없었기 때문이다.⁸⁾

8]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1년... 남북 교역액 사실상 '제로'”, 『뉴스1』, 2017년 3월 20일: <<http://news1.kr/articles/?2941319>>

〈그림 3-9〉 대북지원 인지도(2)

(단위: %)



(2) 대북지원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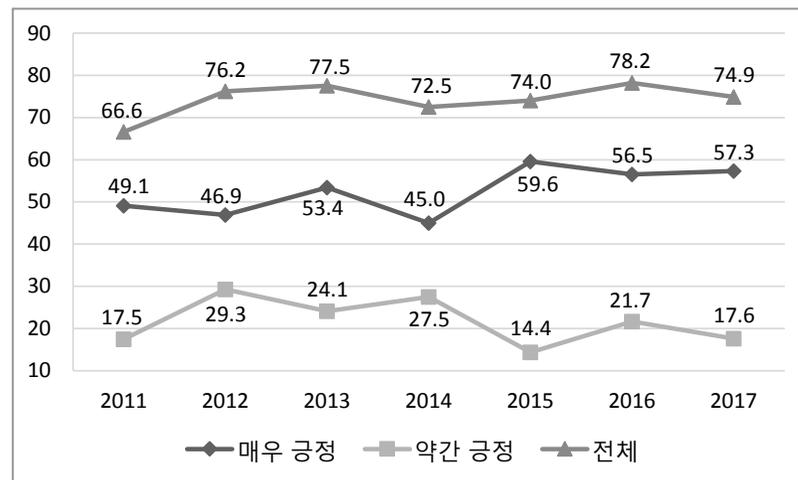
북한주민들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74.9%로 높았으며, 그 중 57.3%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북한주민 대다수는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변화에 대한 무용론과 대치되는 결과이다. 물론 2017년 조사(74.9%)는 2016년(78.2%)과 비교할 때 3.3%p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 인지도가 2012년 이래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듯이, 이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북

지원과 같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때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어도 둘 사이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교류와 협력을 단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3-10〉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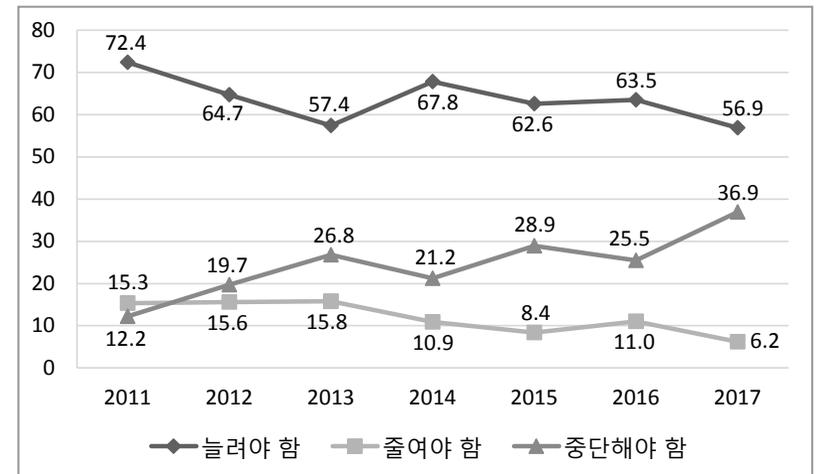
(3) 대북지원 정책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6년 25.9%에서 2017년 36.9%로 11.4%p 상승했다.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63.5%에서 2017년 56.9%로 6.6%p 감소했다. 하지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11.0%에서 2017년 6.2%로 4.8%p 감소했다. 다시 말하면,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63.1%, 중단해야 하는

의견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36.9%로 두 의견 간에는 두 배가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참고로 2016년의 경우 찬성 의견 63.1%, 반대 의견은 36.9%로 두 의견 간에는 약 세 배가량의 차이가 존재했었다. 최근 북한의 경제 회복에 따른 북한주민의 경제생활 회복이 대북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그림 3-11〉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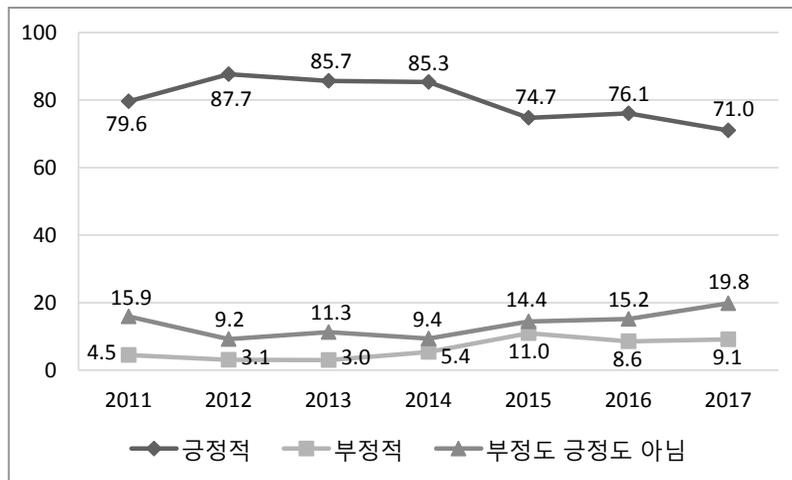
(4)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55.0%), ‘약간 긍정’(16.0%)을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71.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부정’(3.8%)과 ‘매우 부정’(5.3%)을 포함

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9.1%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긍정적 응답에 대한 의견이 2014년 85.3%에서 2015년 74.7%, 2016년 76.1%, 2017년 71.0%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남한의 대북경제투자자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의견이 19.8%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는 9.4% → 14.4% → 15.2% → 19.8%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대북 경제투자자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점차 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면 대북 경제투자자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림 3-12〉 대북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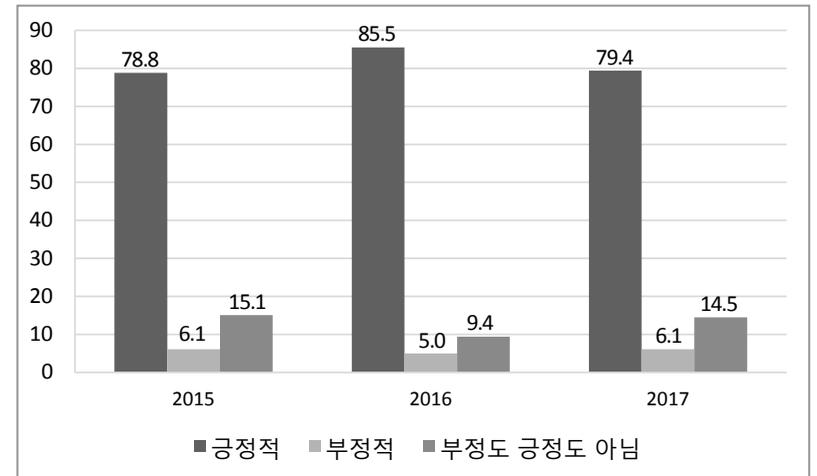


(5)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비록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매우 긍정’ 55.0%, ‘약간 긍정’ 24.4%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79.4%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약간 부정’ 3.8%, ‘매우 부정’ 2.3%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은 6.1%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한편, 부정도 긍정도 아니라는 의견이 14.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9.4%에서 2017년 14.5%로 5.1%p 상승했다. 긍정적 의견이 비록 2016년 85.5%에서 2017년 79.4%로 소폭 감소하고, 부정적 의견도 5.0%에서 6.1%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주민들은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단위: %)



6. 소결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대남 비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미군사훈련, 북핵 외교, 사드 배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지속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대남 안보불안인식은 소폭 하락하였다. 북한이 남한 및 미국의 군사적 호전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이 소폭 하락한 것은 북한 당국의 핵억제력 선전 때문이라고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53.1%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 같다는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46.2%) 가장 낮았다가 2014년에(63.7%)는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다시 48.6%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또다시 57.2%로 높아졌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와서는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이 53.1%로 소폭 하락하였다.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그 중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이 다소 감소한 것은 북한 당국의 핵억제력 선전 때문이라 판단된다. 즉, 북한이 남한 및 미국의 군사적 호전성을 지속해서 비

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이 감소한 것은 북한 당국의 선전대로 핵무기가 남한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남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남한주민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라는 남한주민의 안보불안인식은 2016년 66.1% → 70.6%로 4.5%p 상승한 것이다. 이는 제5차 북핵 실험과 이후 반복된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한반도 전쟁 위협, 남북관계 단절, 강대강 북미 대립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이라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북한주민들은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 및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 선제불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군사적 위기상황을 상시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또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핵무기를 더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이래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위협인식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냉전시기에도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던 핵에 대한 일종의 안보불감증일 수도 있고,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한 협상용으로 핵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북핵이 겨냥하는 곳이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소폭 변화를 보였다. 북한주민들은 2015년부터 제시하기 시작한 ‘개성공업지구’(92.4%)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5.18광주항쟁’(81.5%), 세 번째로는 ‘세월호 사건’(70.8%)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인지도 중 ‘개성공단’과 ‘세월호 사건’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5.18광주항쟁’, ‘4.19혁명’,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본 설문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고학력이며, 연령대도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편차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선거방식(97.0%), 언어사용(90.9%), 생활풍습(96.2%), 가족중시(86.4%), 사회복지(80.3%), 돈에 대한 중시(81.1%)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 간에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과 북한이 약 70여 년간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유지한 채 대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2015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가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단절이 큰 이유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인지도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북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북한주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은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 변화 무용론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이는 대북지원과 같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지점이다.

그렇게 볼 때 남북갈등을 완화하고 나아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공해준다.



제4장 **북한실태
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북한실태인식

1. 서론

북한주민의 의식을 조사·평가하는 일은 접근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의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북 간에 전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한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국내에 입국한지 1년 안팎의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에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다고 묻는 조사방식은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탈북민 심층면접, 유사사례 분석을 결합해 보완할 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의식'을 조사·평가하는 일 역시 수시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역시 힘든 일이다. 이는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 즉 북한주민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무엇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포함한다. 아래에서 다루는 북한주민들이 갖는 문항들이 의식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가령, 북한에 살면서 나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얼마나 누렸다고 보는가, 혹은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영위할 수 있었는가를 물을 수도 있다.

이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북한체제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이해와 태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감정은 지지도, 사회통제 유지도, 핵무기 보유에 관한 견해, 북한경제 평가, 생활총화 참석 비율, 외부 접촉 경로 등 모두 12개 사항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오늘과 내일을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 소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각각의 설문조사 내용을 서술하면서 북한주민들의 현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동시에 그런 의식 상태의 추이를 지난 시기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논의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시사점을 생각해 볼 것이다.

2. 의식 실태 분석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에 관해 북한주민들은 '자부심이 있다'(매우 큰 자부심+약간의 자부심)가 2016년 63.0%에서 2017년 65.1%로 2.1%p 상승하였다. 세대별 반응에서 40-50대에서 평균 이상의 자부심을 보였는데, 이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 20-30대였던 세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경의 시기를 겪어온 당사자로서의 회한과 함께 자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단위: %)

	연령대					
	20대 (47명)	30대 (39명)	40대 (27명)	50대 (17명)	60대 (1명)	70대 (1명)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4.0	33.3	51.9	35.3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7.7	30.8	18.5	35.3	100.0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31.9	30.8	22.2	29.4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6.4	5.1	7.4			100.0

(2) 주민들의 김정은 지지도

북한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이었다. 50% 이상의 지지도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58.1%, 2016년 63.0%, 2017년 63.4%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여론 변화는 경제 회복과 핵보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와 통제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었고, 정권이 미국과의 대결의식을 주입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조치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원들의 지지도(50% 상회)보다 비당원들의 지지도(64%)가 높은 것이 인상적인데, 이 역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상 및 정보 통제가 더 심해 이들의 지지도가 당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김정은 지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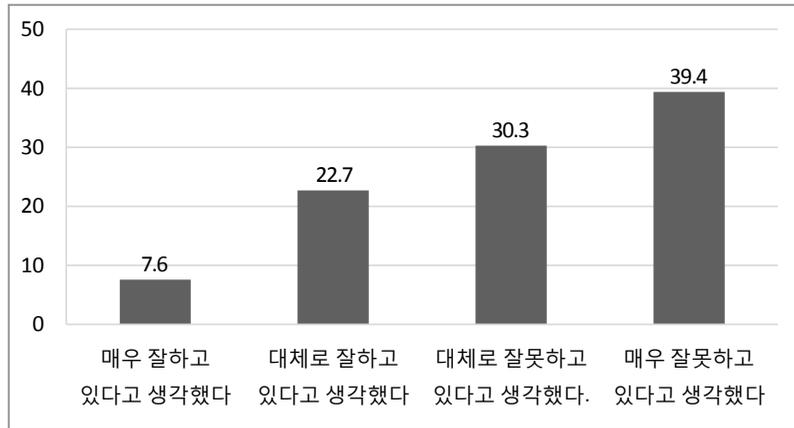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10% 미만	10.6	8.1	13.8	10.1	9.2
20%	6.8	7.4	12.4	8.0	3.8
30%	16.7	10.8	11.7	13.8	15.3
40%	4.5	8.8	3.4	5.1	8.4
50%	21.2	18.9	22.1	17.4	15.3
60%	8.3	8.8	12.4	9.4	11.5
70%	2.3	8.1	4.1	9.4	9.9
80%	15.9	10.8	7.6	10.1	9.9
90% 이상	13.6	18.2	12.4	16.7	16.8

(3) 김정은 직무 평가

한편, 김정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그에 대한 지지도와 달리 30.3%(매우 잘함+대체로 잘함)로 낮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못하고 있다(대체로 못함+매우 잘못함)는 평가가 69.7%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의 두 배를 넘어섰다. 여기서 김정은에 대한 높은 지지와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낮은 평가라는 격차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정권을 장악한 김정은과 그가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비교적 지지를 표하고 그것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달리 김정은의 직무 수행 평가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그가 보인 지도력과 제시했던 정책의 달성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다. 말하자면 북한주민들은 김정은이 자신들에게 표방한 목표와 그 이행 실적을 냉정하게 구분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4-1> 김정은 직무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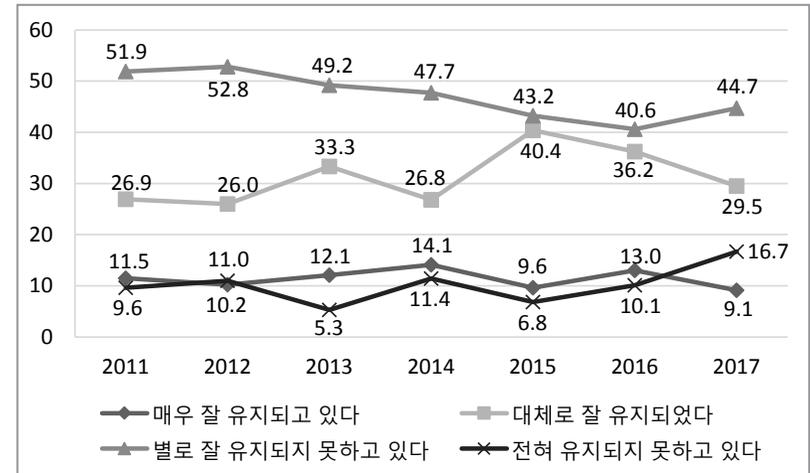


(4) 사회통제와 비판행위

사회통제 수준에 관해 북한주민들은 북한사회가 기본적으로 통제사회이지만 그 속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자유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 2.52%에서 2017년 2.31%로 통제 수준이 약간 낮아졌다. 이는 북한에서 통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자유로운 현상은 시장 허용과 거기서의 매매활동, 경제생활 관련 이동의 편의 등을 의미하고, 그렇게 된 배경으로는 북한체제의 근간인 계획경제 시스템이 주민들의 생존을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로 시장화를 목인한 데 있다. 2017년 반응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인데,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경제활동에서 주민들이 덜 통제받는 상황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런 현상은 주민 소득수준의 차이와 무관하게 골고루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림 4-2> 사회통제 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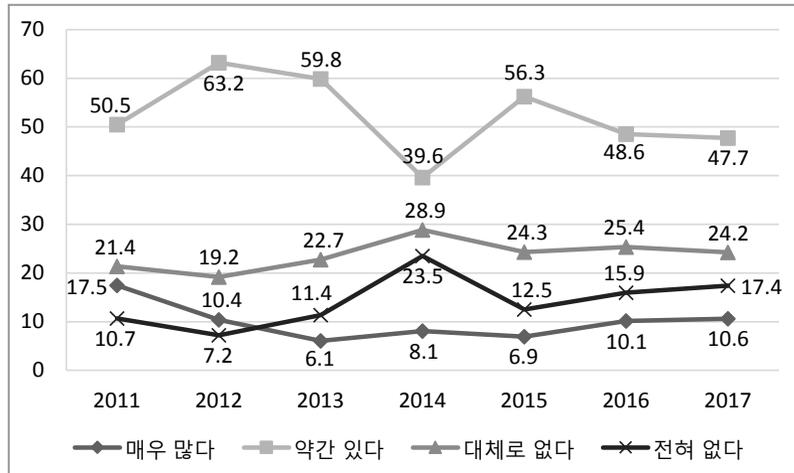
(단위: %)



한편, 북한주민들이 정권 등 지배집단에 대한 비판행위에 대한 긍정 응답(매우 많다+ 약간 있다)이 58.3%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해(58.7%)와 비슷한 수치이다. 평균치를 보면 2016-17년 크기(2.52-2.53)는 2015년(2.58)보다 약간 낮고, 2014년(2.32)보다는 비교적 높아 비판행위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런 응답 결과를 과대평가해 북한 정권과 주민의 거리가 커지고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저항 가능성으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설문 결과는 앞에서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등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과 함께 판단할 문제이며, 비판행위 자체에 대한 응답 역시 그 내용과 형태를 반체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살펴볼 북한정권이 유지될 기간에 대한 응답 결과도 비판행위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경계하도록 해준다.

〈그림 4-3〉 비판행위 정도

(단위: %)



(5)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이상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의 태도와 아래서 살펴볼 핵 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율을 종합해보면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응답 결과 북한주민들은 북한정권의 예상 유지 기간으로 5년 미만에 7.6%, 30년 이상에 28.2% 응답했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응답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런 응답은 2016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북한정권이 5년 미만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줄어들었고 3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늘어났다. 또 2017년 응답은 2011년부터 조사한 응답 결과 중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장기 존속에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의 나이가 젊다는 점, 경제-핵 병진노선이 지속되고 그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가 높고, 스킨십을 늘리는 그의 통치방식

등을 종합 고려해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물론 이런 응답에는 김정은 자신과 정권 등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는 크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표 4-3〉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미만	17.5	8.7	11.4	12.8	11.0	10.1	7.6
5-10년	25.2	27.0	18.2	23.5	24.7	23.9	18.3
10-15년	15.5	14.3	10.6	11.4	13.0	16.7	9.2
15-20년	5.8	4.8	6.1	4.7	5.5	5.8	3.1
20-30년	6.8	10.3	3.8	6.0	9.6	6.5	9.2
30년 이상	7.8	11.1	18.2	16.1	18.5	16.7	28.2
생각해 본 적 없다	21.4	23.8	31.8	25.5	17.8	20.3	24.4

(6) 핵무기 보유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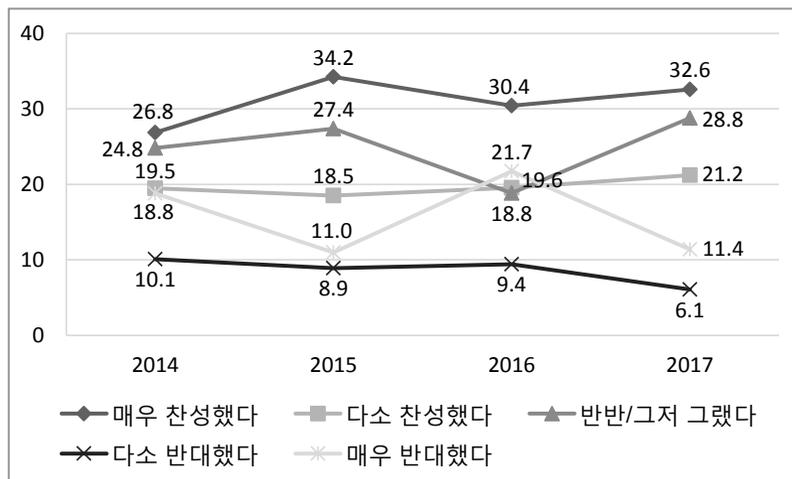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네 차례 핵실험과 수 십 차례의 중장거리미사일 실험이 이루어졌다. 경제-핵 병진노선에 입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조치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그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는 높게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은 정권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2016년 50.0%에서 2017년 53.8%로 찬성했다. 그에 비해 반대는 31.1%에서 17.5% 줄어들었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18.8%에서 28.8%로 늘어났다. 찬성이 늘고 반대가 줄어 전체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한 셈이다. 미국의 '대

북 적대시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강화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의 핵무기 보유 지지 의사는 다시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 외교안보정책을 정당화시켜 주는 꼴이다. 특히, 응답 가운데 핵보유 지지도에 있어 당원 지지율(87.5%)이 비당원의 경우(45.3%)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김정은 정권 들어 당·국가 체계(party-state system)가 복원되었고 김정은의 적극적인 핵무력 강화 정책이 당의 지지 기반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4-4〉 핵무기 보유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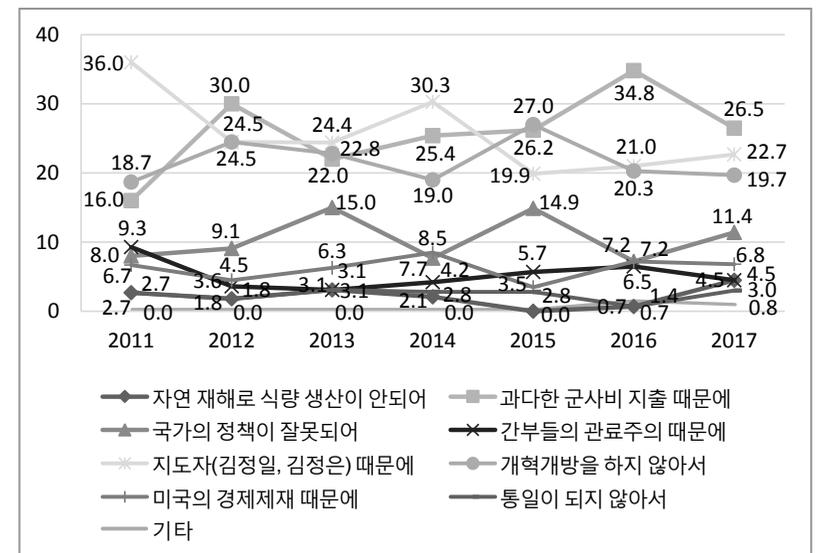


(7) 경제침체 원인

한편, 북한경제가 침체한 원인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들은 <군비지출> <지도자 책임> <개혁개방 없음> <국가정책 오류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북한 정권이 거론해온 미국의 경제제재, 분단, 자연재해 요인은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비록 표현은 못하지만 적어도 의식상으로는 경제 침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주민 중에서도 저소득층에서 군비지출과 함께 지도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흥미로운데, 소득 차이가 경제 침체 원인을 달리하기 보다는 그에 대해 보다 뚜렷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5〉 경기 침체 원인

(단위: %)



(8) 생활총화 출석률

북한주민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갖는 생활총화는 1990년대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화 되거나 총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지나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그 수준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평가다. 이에 관한 설문에서 생활총화에 50% 출석한다는 응답이 71.0%에서 76.9%로 5.9%p 증가했다. 이 응답 결과에서 생활총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북한체제의 안정화 징후로 볼 수 있고, 약간의 증가세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도 상승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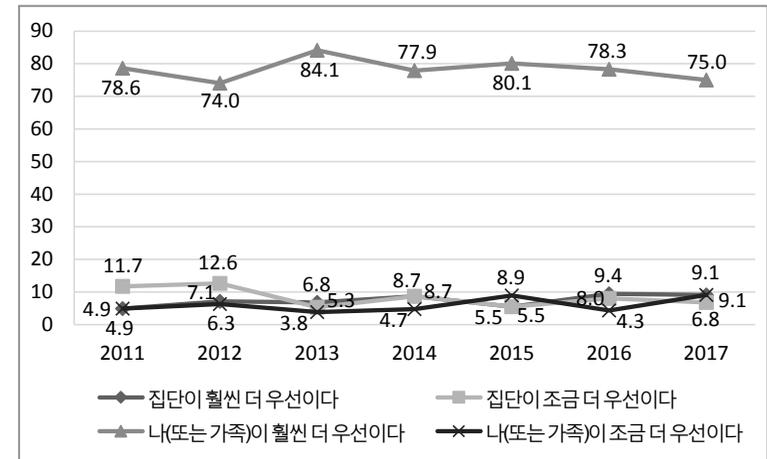
(9) 집단 대 개인 우선도

한편, 전체주의 사회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는 흥미로운 관심사이다. 크게 집단(국가 혹은 민족)을 우선하느냐, 개인(가족 포함)을 중시하느냐로 물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체제의 공식 입장과 달리 개인을 중시하고 그런 태도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개인(가족)이 우선이다(훨씬 우선+조금 우선)에 80%대의 지지를 나타냈고, 2011년부터 8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종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상적으로 계획경제가 공식 경제체제이지만 시장과 민간에서 비사회주의 경제행위가 성행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의식상으로도 당 지도하의 집단주의 의식 밖에 개인을 중시하는 의식도 높아지고 있음을 이 설문결과는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4-6〉 집단 대 개인 우선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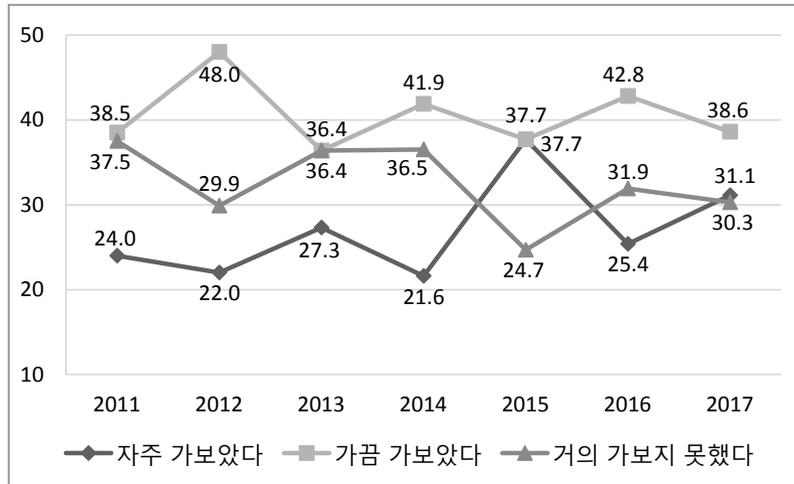


(10) 이동과 외부 접촉

북한주민들이 북한 내 다른 지역 방문 경험이 높아지고 나아가 외 부소식을 접할 기회와 경로가 많아지고 있다. 시장화 추세로 북한 내 이동 지역의 증가, 변경무역, 외부세계에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등이 그 배경이다. 설문에서 북한주민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험(자주+가끔)이 2016년 68.2%, 2017년 69.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 방문 경험은 노동자, 사무원, 전문직 종사자, 군인, 상인, 무역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이 설문에 대한 평균값이 1.8-2.1의 범위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사회통제 유지도 2.3-2.5와 비교해 낮다. 사회통제 유지는 시장활동을 포함해 포괄적인 개념인데 비해, 이 설문은 통제와 자유의 구분이 뚜렷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응답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 하겠다.

〈그림 4-7〉 다른 지역 방문 경험

(단위: %)



북한주민들이 외부 소식에 접근하는 경로도 다양해졌다. 2017년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접촉 경로 중 주변사람(47.7%), 남한을 포함한 외부매체(방송, 통신, 뼈라 등)의 비중(25.0%)에 높게 응답했다. 이 외에도 북한 신문(12.1%), 강연·학습(9.1%), 북한 방송(6.1%)의 응답도 나왔다. 이 중 남한 등 외부매체의 비중이 2016년 20.3%에서 2017년 25.0%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외부에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과 외부정보를 구하려는 북한주민의 욕구가 만나 외부매체의 비중은 북한정권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3. 소결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와 정권의 경제 및 안보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생존과 미래를 위해 그들 스스로의 의식 및 생활세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주체사상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60%대의 지지도는 경제 회복과 핵보유에 대한 자부심에 기반을 둔 것이고, 정권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그 연장선상에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와 그 직무 평가 간에 작지 않은 격차는 유의할 대목이다. 이런 평가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태도는 당원 여부와 세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한주민들의 태도는 크게 지속성과 변화의 두 차원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사회통제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핵보유에 대한 높은 지지도, 그리고 생활총화 참석률 증가 현상에서 발견되었다. 그에 비해 변화의 측면은 이동의 자유 확대, 정부 및 지도자에 대한 비판의식 증대, 외부소식 접근 통로 증대 및 다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침체에 대한 비판의식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 생존책을 찾아감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자력갱생 의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화와 시장화의 확대가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비판의식과 생존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올해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북한사회는 앞으로도 통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정한 자유가 공존하는 가운데 양자가 서로 긴장을 일으키며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정권의 체제결속 조치와 주민들의 생존욕구가 결탁과 갈등을 번갈아가면서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속에서 북한주민들은 거시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지속을 인정하면서도,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체제와 국경을 넘나들면서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2016-17년 북한의 핵무력은 두 측면에서 질적으로 증강되었다. 첫째, 북한은 핵탄두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시했다. 북한은 2016년 두 차례 핵실험을 진행했고,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6차 핵실험 후 북한이 공개한 핵폭탄은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의 중간 유형인 증폭형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으로 추정된다.⁹ 증폭핵분열탄은 핵분열 물질을 소량으로 사용하면서 원자폭탄보다 더 높은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졌다. 둘째, 소형화된 핵탄두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

9] 증폭형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이다. 증폭형 핵분열탄은 네 단계의 연쇄반응으로 폭발력과 열 에너지를 얻는다. 첫째,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혼합물을 감싼 플루토늄-239 주위에 고폭발을 일으켜 플루토늄-239를 압축한다. 고폭발 이전 플루토늄-239의 질량은 핵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압축당한 플루토늄-239가 핵분열한다. 이 과정에서 고압과 고열이 발생한다. 셋째, 압축당한 플루토늄-239의 핵분열로 인하여 생긴 열과 압력 때문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헬륨-4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잉여중성자가 나온다. 넷째,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과정 중 발생한 잉여중성자가 비분열성 핵물질(리튬, 우라늄-238 등)의 핵분열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압력이 큰 폭발을 일으킨다.

을 보였다. 북한은 2016년 10여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2017년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와 11월 29일 화성-15형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인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¹⁰

2016-17년 북한의 핵도전으로 동아시아는 전쟁의 공포를 경험했다.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정상들은 “화염과 분노,” “불바다”와 같은 수사를 사용하였고, 일반인들마저 선제타격, 예방공격, 참수작전, 억제와 같은 전문군사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접했다. 북한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이 한반도와 주변 해상, 육상, 공중에서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북한발 전쟁 공포의 정중앙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상황을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할 정도였다.¹¹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분쟁 위협을 지적하면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7년 한반도는 북한발 ‘검은 백조’(black swan)의 출현 가능성으로 숨을 죽였다.

10] 북한의 핵무력은 두 측면에서 미완성 상태다. 첫째, 북한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은 화성-14형 2차 발사 후 “수천℃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이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조정장치가 정상 작동하였다”고 주장했다(북한 국방과학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2017년 7월 4일), 실제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소멸되었다. [이정민, “北 ICBM급 화성-14형, 대기권 재진입 실패 韓·美·日 공동 결론 내려,” 조선일보(2017년 8월 12일)]. 화성-15형 시험발사에도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깨졌다[최은경, “北 ICBM 화성-15형 재진입 실패한 듯,” 조선일보(2017년 12월 4일)].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공기저항으로 인하여 받는 고온과 고압을 견디면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입증시키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 발사의 궤적과 탄착 지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국제사회가 실제 북한 탄도미사일의 궤적과 탄착 지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후 궤적과 탄착점을 공개하였다.

11] 청와대, “한·캐나다 화담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청와대 뉴스룸 (2017년 7월 8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도전에 최고 수위의 제재로 맞섰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경유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과 무기 금수조치를 정한 결의 2270호(2016년 3월 2일), 북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결의 2321호(2016년 11월 30일),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56호(2017년 6월 2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을 담은 결의 2371호(2017년 8월 5일), 원유공급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해외수출을 금지하며, 해상차단의 가능성을 열어둔 결의 2375호(2017년 9월 11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며, 석유 정제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한도를 50만 배럴로 정하는 결의 2397호(2017년 12월 22일)를 채택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북한은 무기 관련 물질의 거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교류마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도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국가는 북한의 상주사절단 규모를 축소하고 심지어 대사까지 추방하는 외교적 제재를 진행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인하여 철회되거나 축소되었다.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이 북한 유치원생 19만 명에게 제공하던 영양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¹²

북한의 핵도전으로 촉발된 긴장 국면이 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인

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탈북 후 1년이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탈북 이후 관점의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라는 문항에 단서를 달아 북한이탈주민이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가지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려 했다. 주변국 인식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 위협감,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하였다.

2.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북한 주민의 마음

북한 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에게 친밀감을 느낄까? 통일평화연구원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꼈습니까?”였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북한 주민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중국, 북한의 과거 동맹국인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대하여 전통적 친밀감이 유지되는지 여부, 북한의 개방과 한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2] Anna Fifield, "Sanctions Are Hurting Aid Efforts — and Ordinary People — in North Korea," Washington Post (16 December 2017); Taryn Tarrant-Cornish, "North Korea Facing Savage Famine That Risks Starving 190,000 Children After UN Funding Cut," Express (6 December 2017).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

(단위: %)

북한 주민의 인식						남한 주민의 인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5	1.4	2.1	0.0	0.0	미국	76.2	74.9	78.3	73.8	72.9
일본	0.0	0.0	0.07	0.07	0.0	일본	5.1	4.3	3.9	5.2	8.6
한국	13.0	16.2	22.9	15.0	22.7	북한	11.0	8.9	8.1	10.8	11.4
중국	83.2	79.7	72.9	76.8	71.2	중국	7.3	10.3	8.8	9.7	5.4
러시아	2.3	2.7	1.4	6.5	6.1	러시아	0.5	1.0	0.9	0.4	0.1
합계 (명)	131	148	144	138	132	합계 (명)	1200	1200	1200	1200	1196

최근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 중 중국에 가장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표 5-1〉이 보여주듯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은 압도적으로 높다. 북한 정권의 수립 이후 중국의 대북한 지원, 특히 냉전 이후 북한 정권의 위기를 중국의 도움으로 견딘 경험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아직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 보인다. 대중 친밀감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하락했지만 (76.8% → 71.2%), 중국은 여전히 북한 주민의 마음에 가장 친밀한 국가로 인식된다고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은 제한적으로 가졌었다고 응답하였는데, 북한과 구소련 간 유대관계를 반영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실제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낸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가 높았다.

아직 명확한 추세인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초반 사이

북한을 이탈하였는데, 중국에 대하여 가장 높은 친밀감을 보였다. 반면, 2014년 조사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대중 친밀감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¹³ 2017년 조사결과에서 대중 친밀감이 통일평화연구원의 인식 조사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만약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면, 북한 주민의 대중 친밀감 약화가 진행 중인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북한의 반발, 북한 정권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북한 주민에게 설파하려는 움직임 등 다양한 원인이 대중 친밀감 약화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15.0% → 22.7%) 한국과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으나, 민족적 유대감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국을 향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은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개인 차원의 상관계수 -0.6450 , p -value < 0.001 ; 연도별 집단 차원의 상관계수 -0.9644 , p -value = 0.0019). 2017년 조사에서 대중 친밀감이 최저점을 찍을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역대 2위였다. 반면, 2013년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최고점을 찍을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서로 맞물리며 변화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서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현상이 남북관계를 반영하는지 중국의 대북 정책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남북관계가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면, 2012년 북한 장

13] 김병로 외, 『북한주민 통일인식 2016』(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129-130.

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가 2013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 저하,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악화가 2016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 저하, 2014년 남북관계의 호전이 2015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반대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북한 주민의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북한 주민의 대중 친밀감 저하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 친밀감을 가장 많이 느꼈던 중국과 한국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2015년 조사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 친밀감을 높게 가진 반면, 2016년 조사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 친밀감을 높게 가졌다. 2016년 조사에 비하여 2017년 조사에서 성별 간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남성이 중국에 대하여 가진 친밀감이 여성보다 높았다.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성별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겠지만, 주변국에 대한 성별 간 친밀감 차이는 흥미롭다.¹⁴ 둘째, 중국에 대한 성별 간 친밀감 차이와 한국에 대한 성별 간 친밀감 차이가 연결되어 있다. 2013년 조사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친밀감을 더 가진 반면, 2016년 조사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친밀감을 더 가진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서는 사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눈여겨볼 사안이다.

14) 2015년 이전 조사 자료와 2016년 이후 조사 자료를 분리하여 분석해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중국	한국	기타	합계(명)
2013	남성	78.9	14.0	7.0	57
	여성	86.5	12.2	1.4	74
2014	남성	79.6	12.2	8.2	49
	여성	79.8	18.2	2.0	99
2015	남성	63.6	29.1	7.2	55
	여성	78.7	19.1	2.2	89
2016	남성	83.0	13.2	3.8	53
	여성	72.9	17.6	9.5	53
2017	남성	72.7	21.4	5.7	70
	여성	69.4	24.2	6.5	6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수준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까? 북한에서 교육이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교육이 강한 정치사회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국 중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에 따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하고, 북중관계가 나쁠 때 교육 수준에 따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외부 세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한국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상기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¹⁵ 2017년 조사에서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 40%가 북한에 거주 당시 한국에 가장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4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중학교 졸업자보다 한국에 더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4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중학교 졸업자보다 중국에 친밀감을 덜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에 따라 북한 주민이 한국과 중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화한다고 추정된다. 이 결과는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정치사회화의 결과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개별적 지적 능력을 더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¹⁶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3			2014			2015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0.0	0.0	2.1	0.0	0.0	2.2	0.0	0.0	3.4
일본	0.0	0.0	0.0	0.0	0.0	0.0	0.0	4.2	0.0
한국	23.8	13.3	10.6	10.0	9.4	19.8	27.6	20.8	23.0
중국	71.4	86.7	85.1	85.0	87.5	75.8	69.0	75.0	73.6
러시아	4.8	0.0	2.1	5.0	3.1	2.2	3.4	0.0	0.0
합계(명)	21	15	94	20	32	91	29	24	87

15] 김병로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132.

16]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 간 관계는 통계학적 유의미성에 근접한다. (F -statistic = 2.35, p -value = 0.0707). 2014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F -statistic = 3.13, p -value = 0.0252). 반면,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교육 수준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다.

	2016			2017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미국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한국	27.8	0.0	16.5	40.0	13.0	24.2
중국	72.2	93.8	74.8	60.0	87.0	69.5
러시아	0.0	6.3	7.8	0.0	0.0	6.3
합계(명)	18	16	103	10	23	95

북한에 거주할 당시 정치적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은 어떤 연관성을 보일까? 2016년 조선노동당의 당원 규모를 약 346만 명, 북한 인구를 2,537만 명으로 추산하면,¹⁷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원은 전체 북한 사람 중 13.6%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조선노동당 가입이 정치적 의견과 활동을 반영한다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은 북한에게 적대적인 국가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북한에게 우호적인 국가에는 친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체제인 북한에서 당원증은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능성이 낮지만, 조선노동당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충원한다면 당원 경력이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대중 친밀감의 저하, 대한 친밀감의 상승과 연결될 수도 있다.

17] 조선노동당 당원의 규모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2016년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 "각급 당 대표회에 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가했다는 공식 보고와 당원 천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는 관행(3차 당대회(1956) 대의원 916명/당원 106만 명, 4차 당대회(1961) 대의원 1657명/당원 131만 천 명, 5차 당대회(1970) 대의원 1734명/당원 160만 명)으로 조선노동당 당원은 약 346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진철, "북 당대회 이모저모," 한겨레(2016년 5월 8일); 이영태, "김정은 북한 7차 노동 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뉴스핌(2016년 5월 7일)].

2017년 조사 결과는 통념과 일치한다. 2016년 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은 비당원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는 중국에 더 친밀감을 느꼈지만 한국에는 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2015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모든 조사에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당원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중국에게 더 친밀감을 느꼈고, 한국에게 덜 친밀감을 느꼈었다고 응답했다.¹⁸ 2015년 조사 결과가 전체 추세와 상이한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게 우호적인 국가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5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2017년 조사에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중국에게 가진 친밀감이 최저점을 찍었다. 2017년 조사가 예외적인지 아니면 추세인지 여부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원	비당원								
미국	0.0	1.8	0.0	1.6	7.7	0.9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3.8	0.0	0.0	0.9	0.0	0.0
한국	11.1	13.3	10.0	17.3	26.9	22.2	7.7	17.9	20.0	23.6
중국	88.9	82.3	90.0	78.0	61.5	75.2	92.3	73.2	80.0	70.0
러시아	0.0	2.7	0.0	3.1	0.0	1.7	0.0	8.0	0.0	6.6
합계 (명)	18	113	20	127	26	117	26	112	25	106

주: 2014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 중 후보당원 각각 1명을 당원으로 처리함.

18) 김병로 외, 「북한주민 통일인식 2016」(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133.

3.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북한 주민의 두려움

북한 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로부터 위협감을 느낄까?¹⁹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주체 노선을 설파하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는 ‘피포위의식’을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투영하였다.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국가와 주변국 간 오랜 갈등의 역사 또한 북한 주민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다. 북한 주민의 마음에 자리를 잡은 위협 인식의 원인을 현 상태에서 추적하기 어렵지만,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위협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였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19)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서 친밀감은 위협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대중국 친밀감과 위협감을 교차분석하면, 통계적 유의미성을 겨우 충족한다. [Pearson chi2(1) = 3.1372, p-value = 0.077]. 대한민국 친밀감과 위협감을 교차분석해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겨우 충족한다. [Pearson chi2(1) = 3.6656, p-value = 0.056].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북한 주민의 인식						남한 주민의 인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71.4	73.8	65.7	84.1	75.8	미국	4.4	5.4	4.7	4.7	5.0
일본	6.8	9.7	12.6	3.6	5.3	일본	16.0	24.6	16.1	10.0	7.8
한국	1.5	2.1	1.4	2.9	1.5	북한	56.9	49.8	54.8	66.7	62.4
중국	20.3	14.5	19.6	8.0	15.2	중국	21.3	17.6	23.3	16.8	23
러시아	0.0	0.0	0.7	1.4	0.0	러시아	1.3	2.6	1.3	1.7	1.8
합계 (명)	121	133	145	143	138	합계 (명)	1200	1199	1200	1200	1200

최근 북한을 떠난 사람들은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2016년 역대 최고점을 찍은 미국발 위협감이 2017년 조사에서 75.8%로 줄어들었지만, 절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미국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가졌던 대미 위협감은 북미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2011년과 2014년 상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미미했던 현상을 반영하여 2012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는 대미 위협감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2013년 위기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북한에서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조사와 2016년 조사에서 미국발 위협을 높게 평가했다.²⁰⁾ 이 조사 결과는 북한 정권이 미국을 위협국으로 지목하지만, 북한 주민의 마음에서 미국발 위협감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점을 의미한다.

20) 김병로 외, 「북한주민 통일인식 2016」(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135-136.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졌던 중국발 위협감은 미국발 위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2016년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 중국발 위협감이 역대 최저점을 찍을 때, 미국발 위협감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2014년 조사에서 중국발 위협감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때, 미국발 위협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위협 인식은 북미관계의 변화에서 유래한다고 추정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던 시기 북중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중국발 위협감은 상승하지 않았다. 이 시기 오히려 대중 위협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미국발 위협감은 북미관계의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중국에 대하여 잠재적 위협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발 위협의 변화에 따라 반응한다고 추정된다.

일본발 위협감도 미국발 위협감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듯하다. 2017년 조사에서 미국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악화되었는데, 일본발 위협감이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2016년 조사에 미국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급격히 올라갔는데, 일본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 이 현상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된다. 이 조사 결과는 북한 주민의 마음에 일본발 위협이 잠재적으로 약하게 존재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발 위협감에 묻힌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때 가졌던 한국에 대한 위협감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이다.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통상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고, 남북 간 적대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실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남북이 교전할 위험이 매우 크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응답하지 않았다.

이 조사결과는 북한 사람은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게 한다.

성별 위협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017년 조사에서는 북한에 거주했을 때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졌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대미 위협감은 전년 조사와 유사했지만,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대미 위협감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3년 조사 이후 개별 연도의 조사에서 성별 간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만, 성별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여성의 대미 위협감이 2013년 조사, 2015년 조사, 2017년 조사에서는 남성보다 높았지만, 2014년 조사, 2016년 조사에서는 남성보다 낮다. 즉, 조사 연도별로 성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성별 간 순위가 통시적으로 바뀐다. 연도별 성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미국	중국	기타	합계(명)
2012	남성	66.0	22.6	11.4	53
	여성	66.2	22.1	11.7	68
2013	남성	61.0	28.8	10.2	59
	여성	79.7	13.5	6.8	74
2014	남성	77.1	14.6	8.3	48
	여성	72.2	14.4	13.4	97
2015	남성	53.6	30.4	16.0	56
	여성	73.6	12.6	13.8	87

		미국	중국	기타	합계(명)
2016	남성	90.6	5.7	3.7	53
	여성	80.0	9.4	10.6	85
2017	남성	75.4	17.4	7.2	70
	여성	80.0	13.3	6.2	62

2013년 조사와 2014년 조사간 변화, 2015년 조사와 2016년 조사간 변화는 성별 간 차이에 관하여 흥미로운 잠정적 추정을 제공한다. 2013년 한반도 위기를 북한에서 겪고 탈북하여 2014년 조사에 응한 남성과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겪고 탈북하여 2016년 조사에 응한 남성이 북한에 대해 가졌던 미국발 위협감이 여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탈북 직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탈북하여 2015년 조사에 응한 남성이 북한에서 가졌던 미국발 위협감이 여성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 조사결과는 북미관계의 변화가 여성 위협감보다 남성 위협감에 더 크게 반영된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이 여성보다 북미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와 원인에 관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3			2014			2015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
미국	77.3	60.0	71.6	85.0	73.3	72.2	46.4	75.0	69.0
일본	9.1	6.7	6.3	5.0	10.0	11.1	25.0	4.2	11.5
한국	0.0	0.0	2.1	0.0	3.3	2.2	0.0	4.2	1.1
중국	13.6	33.3	20.0	10.0	13.3	14.4	28.6	16.7	18.4
러시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명)	22	15	95	20	30	90	28	24	87

	2016			2017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
미국	77.8	75.0	87.4	60.0	73.9	81.5
일본	0.0	12.5	1.9	0.0	8.7	4.3
한국	5.6	6.3	1.9	0.0	0.0	2.2
중국	11.1	6.3	7.8	40.0	17.4	12.0
러시아	5.6	0.0	1.0	0.0	0.0	0.0
합계(명)	18	16	103	10	23	95

조선노동당 당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거주 당시 비당원에 비하여 주변국에 대하여 상이한 위협감을 가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 인구의 13.6%를 포함하는 조선노동당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하여 2017년 조사에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의 미국발 위협감이 현저하게 줄었다. (83% → 75.7%) 반면, 당원의 대미 위협감은 약간 감소하였다. (88.5% → 84.0%)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이래 당원과 비당원의 위협감 순위가 조사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4년 조사, 2016년 조사, 2017년

조사에서 당원의 대미 위협감이 비당원의 대미 위협감보다 높았지만, 2013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는 당원의 대미 위협감이 비당원의 대미 위협감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당원과 비당원 간 위협감의 차이가 구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원 여부와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간 관계에서 잠정적이지만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북한을 떠나기 전 북한에서 위기를 겪었던 조선노동당 당원은 비당원에 비하여 미국발 위협을 높게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위기를 북한에서 겪고 2014년 조사에 응했던 과거 조선노동당 당원과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북한에서 겪고 2016년 조사에 응했던 과거 조선노동당 당원은 비당원에 비하여 높은 대미 위협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북한을 떠나기 전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북관계/북미관계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조선노동당 당원은 대미 위협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졌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당원은 진행 중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위협감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원	비당원								
미국	68.4	71.9	75.0	73.4	53.8	68.1	88.5	83.0	84.0	75.7
일본	10.5	6.1	15.0	8.9	15.4	12.1	7.7	2.7	4.0	5.8
한국	0.0	1.8	0.0	2.4	0.0	1.7	0.0	3.6	4.0	1.0
중국	21.1	20.2	10.0	15.3	30.8	17.2	3.8	8.9	8.0	17.5
러시아	0.0	0.0	0.0	0.0	0.0	0.9	0.0	1.8	0.0	0.0
합계(명)	19	114	20	124	26	116	26	112	25	106

주: 2014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 중 후보당원 각각 1명을 당원으로 처리함.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중국과 일본으로 받은 위협감이 미국발 위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현상은 당원과 비당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미국발 위협감이 커지면(2016-17년 조사), 당원과 비당원의 중국발 위협감이 작아진다. 반면, 미국발 위협감이 감소하면(2013년 조사와 2015년 조사), 당원과 비당원의 중국발 위협감이 커진다. 당원과 비당원 간 위협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집단이 느끼는 위협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간다. 일본발 위협감도 미국발 위협감 간 음의 상관관계도 당원과 비당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 주민의 마음

주변국의 행보는 통일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스스로 통일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협조가 통일 과정에서부터 최종 지점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이 통일 과정에서 취할 행동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행보에 관한 몇 가지 문항을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질문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행보에 관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추적하려 하였다.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주변국	통일 희망 정도	북한 주민의 인식					남한 주민의 인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원함	19.5	21.1	33.1	18.8	23.5	40.6	41.1	48.1	37.8	40.2
	원하지 않음	80.5	78.9	66.9	81.2	76.5	59.4	58.9	51.9	62.2	59.8
	합계 (명)	133	147	145	138	132	1200	1195	1200	1200	1200
중국	원함	16.7	14.9	14.4	17.4	14.4	18.3	19.2	22.3	14.9	14.7
	원하지 않음	83.3	85.1	85.6	82.6	85.6	81.7	80.8	77.7	85.1	85.3
	합계 (명)	132	148	146	138	132	1200	1198	1199	1200	1200
일본	원함	6.8	6.8	8.3	10.9	3.8	14.4	12.6	14.0	14.9	1.3
	원하지 않음	93.2	93.2	91.7	89.1	96.2	85.6	87.4	86.0	85.1	98.7
	합계 (명)	132	146	145	138	132	1200	1197	1199	1200	1200
러시아	원함	34.4	30.1	26.6	34.8	23.5	17.6	16.5	17.0	15.8	15.5
	원하지 않음	65.6	69.9	73.4	65.2	76.5	82.4	83.5	83.0	84.2	84.5
	합계 (명)	131	146	143	138	132	1200	1195	1198	1200	1200

2017년 조사 결과는 이전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모든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했었고, 중국이 2순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미국이 3순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경우, 통일 한국이 일본의 경쟁국으로 부상할 위험을 북한이탈주민이 염두

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현상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생각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 당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형성되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잠정적이지만 흥미로운 추정으로 이어진다. 북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을 때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의 통일 희망을 높게 평가한다고 보인다. 미국의 통일 희망에 관하여 긍정적 조사 결과가 2012년과 2015년에 나왔는데, 2011년과 2014년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반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후 미국의 통일 희망에 관하여 북한이탈북한이탈주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큰 틀에서는 북미관계의 변화가 미국의 통일 희망에 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인다.²¹ 반면, 중국, 일본, 러시아의 통일 희망에 관한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의 협력 필요성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문항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 데 한반도 주변국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고, 조사 참여자는 5개 선택지(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중 한 가지를 골랐다. 2017년 조사는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하향 평가 추세를 보여준다. 상기 문항으로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통일에

21] 2018년 조사에서 미국의 통일 희망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 응답이 확인된다면, 이 추정의 신뢰성이 더 올라갈 것이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²² 둘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 주변국 중 어떤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37.9%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단계에서 상기 두 현상의 원인을 지목하기 조심스럽지만, 북한주민의 자신감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중국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졌고 북한의 핵무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북한 정권이 자신감을 회복했고 주민의 마음에 이 자신감이 투영됐다고 판단된다. 북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북한이 통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북한주민의 마음에 퍼진 결과로 보인다.

〈표 5-10〉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성

(단위: %)

	2014		2015		2016		2017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중국	76	52.8	68	48.6	60	43.8	52	39.4
미국	30	20.8	24	17.1	17	12.4	19	14.4
러시아	5	3.5	8	5.7	16	11.7	11	8.3
없음	33	22.9	40	28.6	44	32.1	50	37.9
합계(명)	149	149	146	146	138	138	132	132

22] 미국의 협조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 사안도 차후 조사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번영에 어떤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2016년 조사부터 추가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 조사 참여사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중국이 1위(47.1%)였지만 2017년 조사에는 한국이 1위(56.1%)가 되었다. 능력 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발전에 더 필요하지만, 탈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의 발전에 한국과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도 북한 주민의 마음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해석하도록 한다.

〈표 5-11〉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단위: %)

	2016		2017	
	빈도	%	빈도	%
미국	6	4.3	8	6.1
일본	1	0.7	2	1.5
한국	60	43.5	74	56.1
중국	65	47.1	45	34.1
러시아	6	4.3	3	2.3
합계(명)	138	100	132	100

5. 소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을 추정하려고 하였다. 친밀감과 관련하여 네 가지 중요한 조사 결과가 확인되었다. 첫째, 북한 주민이 중국에 대하여 강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약화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7년 조사에서 대중 친밀감이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이 현상이 2018년 조사로 이어지면, 대중 친밀감의 감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둘째,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한국을 향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은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확인된다. 셋째,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졌었다고 응답했다. 2017년 조사에서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40%가 북한에 거주 당시 한국에 가장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북한에서 교육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정치사회화를 의미하기보다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지와 평가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게 한다. 넷째,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북한이탈주민은 비당원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중국에 더 친밀감을 가졌지만 한국에 덜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북한 전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조선노동당의 당원은 북한의 일반 주민과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사 결과가 확인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였으며,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미 위협감이 변화한다. 둘째, 중국발 위협감은 미국발 위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북한주민의 마음에 중국발 위협감과 미국발 위협감이 병존하지만,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표출된다고 해석된다. 셋째,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이 여성보다 북미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한 연도 다음에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 남성이 미국발 위협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넷째,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었던 북한이탈주민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일반인보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통념이 확인되었다.

통일과 관련된 인식조사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주변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은 통일 한국에 대해 경계를 한다고 예상하는 듯하며, 미국과 중국은 현상유지를 원한다고 예상하는 듯하다. 둘째,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자체 역량에 기반을 둔 통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7년 조사에서 주변국 중 어떠한 국가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응답이 37.9%까지 증가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간다는 통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018년 진행될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마음이 정세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의 악화,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복원 노력이 북한주민

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2018년 조사에서 일부 확인될 것이다. 2018년 조사에서도 대중국 친밀감과 대미국 위협감이 동시에 증가하는 반면 대한국 친밀감이 하락한다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북한주민의 마음이 거둬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북한주민의 마음에 미친 영향도 관심거리이다. 만약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자력에 기반을 둔 통일을 언급한다면 북한의 자신감이 주민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가 더 진행되면서 잠재적 추정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이다.



제6장 남한사회
적응실태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남한사회 적응실태

1. 서론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 기점을 넘어선 지도 일 년이 지났다. 2016년 11월, 마침내 현실이 되기까지 매체와 정책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라는 어구는 단순한 수치를 기록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남한 내에 존재하긴 하지만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북한이탈주민이 이제는 분명한 실체임을,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담아내는 중요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3만 명 시대를 넘어선 지 일 년이 넘는 지금, 과연 이러한 표현의 내포적 의미와 희망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한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세와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숫자상의 부침이야 있겠지만,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따라서 단순히 전체 몇 명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갱신하며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2017년 동안 우리사회에 전해진 북한이탈주민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들려 온 소식은 그들이 특정 정치단체에 불

법적인 방식으로 연계되었다거나, 방송을 통해 남한에서 성공적인 적응의 모습을 보여주던 탈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 이제는 남한체제의 실상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보다 최근의 사례로는, 판문점을 통과해서 남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며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았던 북한군의 탈북의도가 사실은 북측에서의 사고와 연관된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한 매체의 확인되지 않은 전언도 있었다. 국제제재와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며 정권의 견재함과 국제 합의를 거스르는 독자노선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소식들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적응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처럼 기사화되거나 공론화되는 것은 주로 부정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란,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체제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적응이란 유명인이 되는 것도 엄청난 재력가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 사회의 가장 표준적인 일원의 모습으로서 매일의 일상을 영위하며 주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 사회를 충실히 구성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합리적 기대치로 상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준의 적응일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적응은 크게 이목을 끌거나 인구에 회자되기 어렵고 따라서 가시적으로 측정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실태를 꾸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어 놓는 것은, 형식적·내용적 차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본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는 사회 통합 및 복지 정책 개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도구적 중요성을 지닐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해 온 이들의 삶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나은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권존중이라는 본질적 중요성 역시 가진다.

이 장에서는 2017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결과를 살펴봄에 있어 수치와 통계상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고자 한다. 물론 당장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사데이터로부터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들의 방향과 초점을 본 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고민해 보는 것은 장기간의 심층조사를 통해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적응”이라는 주제의 특수성을 조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할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2. 친근감과 포용성: 기대와 현실 사이

2016년까지 사용되었던 “남한주민을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시점이 탈북이전인지 탈북이후인지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의 경우 “귀하는 남한에 오신 후, 남한주민을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로 질문을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친근감과 포용성을 느끼는 시점을 모두 남한입국 후로 명시한

2017년 조사에서는 친근감과 포용성에서 긍정-부정의 패턴을 보이는 응답이 17%에서 13.6%로 약간 감소하였다.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양측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을 보면, 친근감은 2016년 긍정 90.6%-부정 9.4%에서 2017년 긍정 92.4%-부정 7.6%, 포용성은 2016년 긍정 76.1%-부정 23.9%에서 2017년 긍정 78.8%-부정 21.2%로 전년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해 전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2016년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강한 긍정은 감소하고 약한 긍정이 폭넓게 증가한 면은 주목할 만하다. “(남한 주민이)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2016년 44.2%에서 2017년 37.1%로 감소했지만,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2016년 46.4%에서 2017년 55.3%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남한 주민이)매우 포용적이다”는 응답 역시 2016년 31.9%에서 2017년 25.0%로 감소하였으나 “약간 포용적이다”는 응답은 2016년 44.2%에서 2017년 53.8%로 증가하였다.

2017년 조사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볼 때, 2016년 대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성별과 소득부분 정도이다. 이전 조사들과 비교하여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아졌으며(남성 53.0%, 여성 47.0%) 소득수준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과 비교하여 조사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응답패턴에서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의 응답이 감소하고 약한 긍정과 약한 부정의 응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2017년 조사의 인구통계학적인 차이와 연결하여 교차분석하였을 때 의미있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성별이나 이전 연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소득수준을 응답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인으로 지목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남한의 정부의 공식정책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장과 그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예기치 않았던 남한 내 정권 교체와 이에 따른 정세변화와 같은 외적요인이 의견표시의 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42.9	33.6	39.3	44.2	37.1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44.4	57.0	52.4	46.4	55.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2.0	9.4	7.6	8.0	6.1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0	0.0	0.7	1.4	1.5
합계 (N)	133	149	145	138	132

〈표 6-2〉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우 포용적이다	24.8	24.2	20.5	31.9	25.0
약간 포용적이다	54.9	52.3	52.1	44.2	53.8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19.5	21.5	27.4	22.5	20.5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0.8	2.0	0.0	1.4	0.8
합계 (N)	133	149	146	138	132

2016년 조사결과를 분석할 때,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으로 파악하고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구체적인 현실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친근감보다 포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지표를 교차분석하여 친근감에서는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나 포용성에서는 부정의 패턴을 보이는 응답(매우 친근함/별로 포용적이지 않다, 매우 친근함/전혀 포용적이지 않다)에 주의 를 기울였다.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남한주민을 친근한 존재로 여겼으나, 남한에서의 생활을 통해 실제로 경험한 남한 주민의 포용성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조합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친근감과 포용성의 교차분석 결과를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래 2016년과 2017년의 교차분석표 중 굵은 숫자로 처리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2017년도에 이 부분의 수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왔으나, 전체 응답자의 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를 친근감과 포용성의 두 문항에서 도출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2017년부터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문항을 새로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부분은 뒤의 4절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 (2016)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이지 못함	합계
매우 친근함	37(60.7)	18(29.5)	5(8.2)	1(1.6)	61(100)
다소 친근함	7(10.9)	39(60.9)	18(28.1)	0(0)	64(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0)	3(27.3)	7(63.6)	1(9.1)	11(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1(50)	1(50)	0(0)	2(100)
합계	44(31.9)	61(44.2)	31(22.5)	2(1.4)	138(100)

〈표 6-4〉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분석 (2017)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이지 못함	합계
매우 친근함	26(53.1)	20(40.8)	3(6.1)	0(0)	49(100)
다소 친근함	7(9.6)	51(69.9)	14(19.2)	1(1.4)	73(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0)	0(0)	8(100)	0(0)	8(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0(0)	2(100)	0(0)	2(100)
합계	33(25)	71(53.8)	27(20.5)	1(0.8)	132(100)

3.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과 남한생활의 만족도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어떠한 집단에 소속하는지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에 따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다. 한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데, 북한주민 의식조사에서는 이 중에서 국민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오고 있다. 2017년 결과를 보면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정체성이 다소 증가(68.1% → 72.7%)하였고 반면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자기정체성이 다소 감소(23.9% → 2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지난 5년간의 조사 중 남한 국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서며 가장 높은 비율의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는 바람직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남한사람 혹은 북한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응답자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세계 대부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차원에서 남한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지, 탈북하여 남한에 왔으니 남한사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는 현실적 사고의 발로인지, 혹은 내 자식의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남한의 문화와 가치, 습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에 따라 같은 응답이라도 의무, 부담, 자부심, 희망, 체념과 같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이 적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표 6-5〉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정체성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나는 남한사람이다	63.9	67.8	68.5	68.1	72.7
나는 북한사람이다	31.6	26.2	26.7	23.9	20.5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5	6.0	4.8	8.0	6.8
합계 (N)	133	149	146	138	132

남한생활의 만족도 역시 전년에 비해 강한 긍정은 감소하고 약한 긍정이 증가(매우 만족 49.3% → 40.9%, 대체로 만족 26.8% → 39.4%)하였으며,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세 응답을 모두 합한 값도 20% 미만으로 지난 5년 중에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남한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질문인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질문은 본인들이 직접 수혜대상인 정부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2016년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간 수치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2017년도 정책 만족도는 90%를 상회하고 불만족도는 10% 아래쪽에 머물고 있어서 꾸준히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6-6〉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우 만족한다	44.4	38.9	41.8	49.3	40.9
대체로 만족한다	34.6	41.6	37.7	26.8	39.4
보통이다	18.1	15.4	16.4	21.7	14.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3	2.0	4.1	2.2	4.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8	2.0	0.0	0.0	0.8
합계 (N)	133	149	146	138	132

〈표 6-7〉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우 만족한다	55.6	56.8	65.8	69.6	56.8
대체로 만족한다	31.6	31.1	23.3	23.2	33.3
보통이다	11.3	8.8	8.9	5.8	7.6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0.8	2.0	1.4	0.7	2.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8	1.4	0.7	0.7	0
합계 (N)	133	148	146	138	132

남한생활에의 만족도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교차분석한 표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남한생활과 지원정책, 어느 한쪽에서 불만족을 보이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보통이상의 만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한생활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 이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지원정책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는 이는 반대로 남한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생활의 불만족과 지원정책의 불만족이 반드시 연동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한 생활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 중 경제적, 제도적 부분 이외의 항목들을 파악하여 생활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8〉 남한에서의 생활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교차표 (2017)
(단위: 명(%))

		남한에서의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합계
탈북자 지원 정책	매우 만족	41(54.7)	29(38.7)	3(4.0)	2(2.7)	0(0)	75(100)
	대체로 만족	10(22.7)	20(45.5)	11(25.0)	3(6.8)	0(0)	44(100)
	보통	2(20.0)	2(20.0)	4(40.0)	1(10.0)	1(10.0)	10(100)
	별로 만족하지 않음	1(33.3)	1(33.3)	1(33.3)	0(0)	0(0)	3(100)
	전혀 만족하지 않음	0(0)	0(0)	0(0)	0(0)	0(0)	0(0)
	합계	54(40.9)	52(39.4)	19(14.4)	6(4.5)	1(0.8)	132(100)

4. 2017년 조사문항에서 추가된 문항과 결과

2017년 북한이탈주민 남한적응 실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음의 세 문항이 추가되었다.

44.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문화적 차이,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사회적 편견, 심리적 외로움)

46.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정부지원 정책, 민간단체 지원, 종교단체 지원, 기존탈북자 도움, 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

47.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 분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질문지를 가능한 유지하는 가운데 위의 문항들이 추가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적조사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세부적 내용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44번 문항의 경우, 남한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기본 가정 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인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까지의 척도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예시로 든 여섯 가지 요인들은 기존 유사한 조사에서 쓰이는 항목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토로하는 어려움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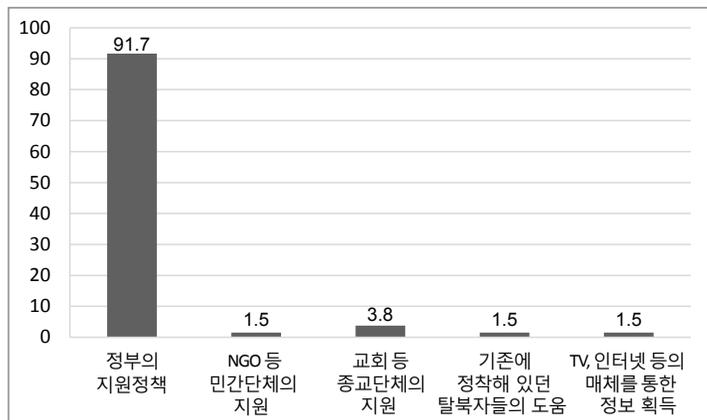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적 차이(78%)»경제적 문제(64.4%)»심리

적 외로움(62.1%)»사회적 편견(59.2%)»인간관계(34.9%)»건강문제(26.5%)의 순으로 어려움(매우+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 심리적 외로움은 다른 유사 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상위로 나온 것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보다 사회적 편견이나 인간관계가 어려움의 요인으로 지목된 바가 훨씬 낮다는 것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회로 이주하여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에 서투르다는 것은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여지를 내포하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스스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부정적 느낌이 들게 되기 쉬운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4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문화적 차이 자체에는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나 사회적 편견이라는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바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더구나 본 조사가 북한을 이탈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또한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 의료계의 열악한 상황이나 하나원에서 의료진이 체감하는 것에 비해 건강문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반면 개인적 외로움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아직 지역사회나 혹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충분히 성립되지 못한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언어

진 결과인 만큼, 향후 적응과정에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 추가된 46번 문항에서는 남한사회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에 대해 정부지원정책, 민간단체 지원, 종교단체 지원, 기존탈북자 도움, 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에 대해 척도평가를 하게 했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압도적으로 선택(91.7%)되었다. 응답자들이 탈북 후 1년 미만이며 남한 입국 직후 하나원에 2개월간 입소하여 생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에 노출될 기회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로 이러한 응답이 나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에의 적응을 경제적, 제도적인 부분과 일상적, 감정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질문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포의 응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의 지원은 정부지원정책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일상적인 도움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은 대면 상호작용을 하는 소규모 집단에서 얻게 되는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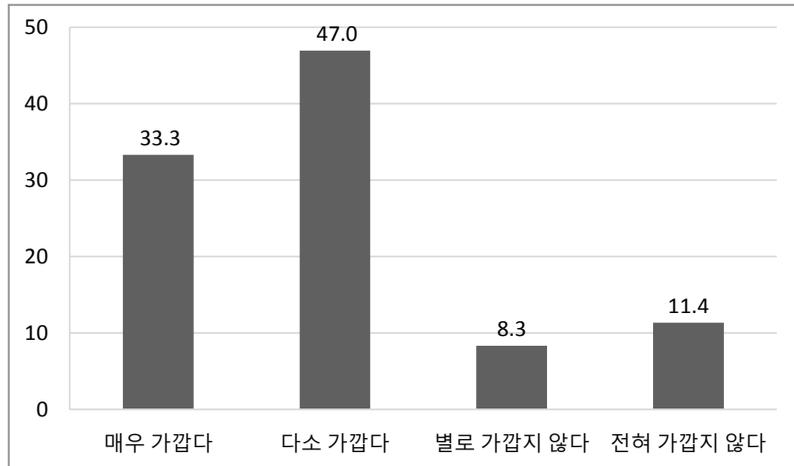
〈그림 6-1〉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 (단위: %)



47번 문항에서는 북한이탈 이전에 가졌던 남한 생활에 대한 기대와 남한 입국 이후 경험하게 된 현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매우 가깝다 33.3%, 다소 가깝다 47.0%)로 나타났으나, 별로 가깝지 않거나(8.3%) 전혀 가깝지 않다(11.4%)는 의견도 전체의 1/5을 차지한다. 이 문항의 경우, 기대치에 현실이 부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 어떠한 부분에서 간극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보완한다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하여, 이들이 남한에 입국할 때 가지고 있던 남한 생활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생활에 대한 기대는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미디어에 비친 남한의 모습에 의해 조성될 수도 있고 이미 탈북하여 남한생활을 시작한 가족이나 친지, 이웃의 소식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는데, 특히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남한의 모습의 경우, 내가 아는 누군가가 직접 생활한 결과로 전해 준 경험과 달리 재현된 현실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게 나타났다는 점에 집중하기 전에, 그 기대가 어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그림 6-2〉 남한생활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현실 차이

(단위: %)



5. 소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다양한 기관과 집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조사결과들은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짧은 기사를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때로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포장되어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를 양산하기도 한다. 최근에 보도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 중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3.0%가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었다. 지역을 막론하고, 자의와 타의를 구분치 않고, 누구라도 본인이 수십 년간 생활하며 익숙해진 공간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 보면 원 거

주지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북한이탈 주민 10명 중 2명,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때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 함의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의 목적과 방법, 시사점 등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조사결과가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는 여러 방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 실태를 한 번의 조사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계속되어 행해진 조사결과를 통해 유형과 추이를 짐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주민 의식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를 알아보려는 노력은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했고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짐작가능한 부분과, 또 자료들에 내포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까지 관심을 발전시켜 연구를 지속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의 실태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한 의미 있는 개선책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7장 결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장 결장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설치 사건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 관계는 이후 2016년 김정은의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급랭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을 철수시키는 초강수를 띄우며 맞대응하였고, 이후 모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으로 돌리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불러왔고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가 단행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 북한사회를 통제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나라의 위상을 선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적이나마 경제개혁과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해소시켜가는, 김정은식 병진노선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병진노선은 과연 북한주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올해 나타난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북한주민에게 양면적으로 작용하였음이 나타났다. 핵실험의 성공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의 정권이 공고함을 알

리는 선전도구가 되고 있고, 이러한 선전이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주듯 여러 조사부문에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의 안정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만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고자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자유화 조치로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닐지라도 김정은 및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확대되고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먼저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증가는 올해 조사의 여러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통일인식의 측면에서 통일의 경제적, 실용적 이유가 감소한 반면 민족정체성에 기댄 이유가 증가하였고, 통일의 방식에 있어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 거듭된 핵실험의 성공으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가지는 전쟁 역지력을 선전함에 따라 남한으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안감은 작년 대비 줄어들었다. 또한 주변국들의 도움 없이도 남북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역시 이러한 자신감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북한의 실태에 관한 인식이었다. 북한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고, 북한주민의 김정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도가 50%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 역시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이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응답이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반면, 5년 미만이 될 것이란 응답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진 경제적 개혁과 자유화 조치가 이러한 체제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본 조사결과는 보여주었다. 먼저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이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타지역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외부소식의 접촉 경로가 다변화되는 등 북한사회 내부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김정은과 국가의 정책실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김정은의 직무역량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70% 가까이 나옴으로써, 정책의 결과와 정권의 평가를 연결시키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수준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한층 강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자유화의 정도가 진전되고 주민들의 정치적 책임성이 향상된다면,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 김정은 정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과 효과적인 내치를 바탕으로 한 체제의 내구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적 자유화 조치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원하는 만큼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것이 곧 지도부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정부의 실패가 곧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지만,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 현재의 실패한 정부를 바꿀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²³ 김정은 정권에

23]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대한 비판이 곧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자유화가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변혁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자유화 없이는 민주화도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²⁴ 이러한 지속적인 자유화 조치의 이행이 북한주민들의 남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통일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김정은의 병진노선이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지,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반응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갈지, 앞으로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24] Guillermo O'Donnell and Philippe Schmitter,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in Guillermo O'Donnell, Phillippe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Vol. 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p. 1-72; Adam Przeworski,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부록

집계표 2017

설문지 2017

통일의 필요성

문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0.0%(0)	95.5%(126)	2.3%(3)	1.5%(2)	0.8%(1)	0.0%(0)
성별	남자	0.0	95.7	2.9	0.0	1.4	0.0
	여자	0.0	95.2	1.6	3.2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93.6	4.3	0.0	2.1	0.0
	30대	0.0	97.4	2.6	0.0	0.0	0.0
	40대	0.0	96.3	0.0	3.7	0.0	0.0
	50대	0.0	94.1	0.0	5.9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0	0.0	0.0	0.0	0.0
	전문학교	0.0	95.7	4.3	0.0	0.0	0.0
	고등중학교	0.0	94.7	2.1	2.1	1.1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94.3	2.8	1.9	0.9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94.6	2.2	2.2	1.1	0.0
	없다	0.0	97.5	2.5	0.0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8.9	3.7	3.7	3.7	0.0
결혼상태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8.6	1.4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3.5	3.2	3.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97.1	1.5	1.5	0.0	0.0
	없다	0.0	93.8	3.1	1.6	1.6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96.2	1.9	0.0	1.9	0.0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95.0	3.3	1.7	0.0	0.0
	이혼	0.0	94.4	0.0	5.6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외지

문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90.2%(119)	8.3%(11)	1.5%(2)	0.0%(0)
성별	남자	0.0	90.0	10.0	0.0	0.0
	여자	0.0	90.3	6.5	3.2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7.2	12.8	0.0	0.0
	30대	0.0	89.7	10.3	0.0	0.0
	40대	0.0	96.3	0.0	3.7	0.0
	50대	0.0	88.2	5.9	5.9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0	0.0	0.0	0.0
	전문학교	0.0	91.3	4.3	4.3	0.0
	고등중학교	0.0	88.4	10.5	1.1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91.7	8.3	0.0	0.0
장사경험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89.6	8.5	1.9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90.2	7.6	2.2	0.0
	없다	0.0	90.0	10.0	0.0	0.0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5.2	14.8	0.0	0.0
결혼상태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1.9	6.8	1.4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0.3	6.5	3.2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89.7	8.8	1.5	0.0
	없다	0.0	90.6	7.8	1.6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92.5	7.5	0.0	0.0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0.0	88.3	10.0	1.7	0.0
	이혼	0.0	88.9	5.6	5.6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통일 이유

문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0.0%(0)	37.1%(49)	8.3%(11)	9.8%(13)	29.5%(39)	12.1%(16)	3.0%(4)
성별	남자	0.0	37.1	7.1	11.4	30.0	11.4	2.9
	여자	0.0	37.1	9.7	8.1	29.0	12.9	3.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34.0	14.9	10.6	25.5	12.8	2.1
	30대	0.0	41.0	5.1	7.7	30.8	12.8	2.6
	40대	0.0	33.3	3.7	7.4	33.3	14.8	7.4
	50대	0.0	35.3	5.9	17.6	35.3	5.9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0.0	0.0	20.0	40.0	0.0
	전문학교	0.0	34.8	13.0	13.0	26.1	13.0	0.0
	고등중학교	0.0	38.9	7.4	9.5	32.6	7.4	4.2
	인민학교	0.0	0.0	33.3	0.0	0.0	66.7	0.0
	무학	0.0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54.2	4.2	4.2	25.0	12.5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33.0	9.4	11.3	30.2	12.3	3.8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39.1	8.7	8.7	29.3	9.8	4.3
	없다	0.0	32.5	7.5	12.5	30.0	17.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5.9	11.1	7.4	37.0	18.5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6.5	9.5	6.8	33.8	10.8	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8.4	3.2	19.4	12.9	9.7	6.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30.9	11.8	13.2	36.8	5.9	1.5
	없다	0.0	43.8	4.7	6.3	21.9	18.8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32.1	9.4	7.5	35.8	11.3	3.8
	결혼(동거 포함)	0.0	45.0	6.7	10.0	23.3	13.3	1.7
	이혼	0.0	22.2	11.1	16.7	33.3	11.1	5.6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통일시기

문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0.8%(1)	0.0%(0)	6.8%(9)	18.9%(25)	5.3%(7)	3.8%(5)	9.1%(12)	55.3%(73)
성별	남자	1.4	0.0	7.1	21.4	4.3	4.3	12.9	48.6
	여자	0.0	0.0	6.5	16.1	6.5	3.2	4.8	62.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0.0	4.3	17.0	6.4	6.4	17.0	48.9
	30대	0.0	0.0	7.7	25.6	2.6	5.1	0.0	59.0
	40대	3.7	0.0	0.0	22.2	3.7	0.0	11.1	59.3
	50대	0.0	0.0	17.6	5.9	11.8	0.0	5.9	58.8
	60대	0.0	0.0	10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30.0	20.0	10.0	10.0	30.0
	전문학교	0.0	0.0	8.7	30.4	4.3	4.3	8.7	43.5
	고등중학교	1.1	0.0	5.3	15.8	4.2	3.2	9.5	61.1
	인민학교	0.0	0.0	66.7	0.0	0.0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0.0	10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8.3	25.0	8.3	4.2	4.2	5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100.0
장사경험	비당원	0.9	0.0	6.6	17.9	4.7	3.8	10.4	55.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1.1	0.0	7.6	16.3	6.5	2.2	9.8	56.5
	없다	0.0	0.0	5.0	25.0	2.5	7.5	7.5	52.5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0.0	3.7	14.8	0.0	7.4	7.4	63.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6.8	16.2	6.8	4.1	12.2	54.1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9.7	29.0	6.5	0.0	3.2	51.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7.4	14.7	2.9	2.9	11.8	60.3
결혼상태	없다	1.6	0.0	6.3	23.4	7.8	4.7	6.3	5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5.7	18.9	7.5	9.4	7.5	50.9
	결혼(동거 포함)	1.7	0.0	6.7	16.7	1.7	0.0	13.3	60.0
결혼상태	이혼	0.0	0.0	11.1	27.8	11.1	0.0	0.0	5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 개인 이익

문5) 그럼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0)	74.2%(98)	22.0%(29)	3.8%(5)	0.0%(0)
성별	남자	0.0	77.1	20.0	2.9	0.0
	여자	0.0	71.0	24.2	4.8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70.2	21.3	8.5	0.0
	30대	0.0	79.5	20.5	0.0	0.0
	40대	0.0	66.7	33.3	0.0	0.0
	50대	0.0	82.4	11.8	5.9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70.0	30.0	0.0	0.0
	전문학교	0.0	73.9	13.0	13.0	0.0
	고등중학교	0.0	75.8	23.2	1.1	0.0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75.0	25.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74.5	20.8	4.7	0.0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79.3	17.4	3.3	0.0
	없다	0.0	62.5	32.5	5.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5.2	14.8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0.3	23.0	6.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4.2	25.8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73.5	23.5	2.9	0.0
	없다	0.0	75.0	20.3	4.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3.6	22.6	3.8	0.0
	결혼(동거 포함)	0.0	76.7	21.7	1.7	0.0
	이혼	0.0	66.7	22.2	11.1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

문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0)	87.9%(116)	11.4%(15)	0.0%(0)	0.8%(1)
성별	남자	0.0	90.0	8.6	0.0	1.4
	여자	0.0	85.5	14.5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76.6	21.3	0.0	2.1
	30대	0.0	94.9	5.1	0.0	0.0
	40대	0.0	96.3	3.7	0.0	0.0
	50대	0.0	88.2	11.8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80.0	20.0	0.0	0.0
	전문학교	0.0	87.0	13.0	0.0	0.0
	고등중학교	0.0	89.5	9.5	0.0	1.1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91.7	8.3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86.8	12.3	0.0	0.9
장사경험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91.3	7.6	0.0	1.1
	없다	0.0	80.0	2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5.2	11.1	0.0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5.1	14.9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6.8	3.2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88.2	11.8	0.0	0.0
	없다	0.0	87.5	10.9	0.0	1.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1.1	17.0	0.0	1.9
	결혼(동거 포함)	0.0	96.7	3.3	0.0	0.0
	이혼	0.0	77.8	22.2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빈부격차

문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8%(1)	0.0%(0)	56.8%(75)	23.5%(31)	9.8%(13)	5.3%(7)	3.8%(5)
성별	남자	0.0	0.0	54.3	21.4	12.9	7.1	4.3
	여자	1.6	0.0	59.7	25.8	6.5	3.2	3.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20대	2.1	0.0	46.8	36.2	8.5	4.3	2.1
	30대	0.0	0.0	64.1	12.8	10.3	5.1	7.7
	40대	0.0	0.0	59.3	22.2	11.1	3.7	3.7
	50대	0.0	0.0	64.7	11.8	11.8	11.8	0.0
	60대	0.0	0.0	0.0	10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80.0	10.0	10.0	0.0	0.0
	전문학교	0.0	0.0	47.8	39.1	4.3	8.7	0.0
	고등중학교	1.1	0.0	56.8	21.1	10.5	5.3	5.3
	인민학교	0.0	0.0	66.7	0.0	33.3	0.0	0.0
	무학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66.7	25.0	8.3	0.0	0.0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9	0.0	54.7	23.6	9.4	6.6	4.7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0.0	60.9	18.5	9.8	4.3	5.4
	없다	0.0	0.0	47.5	35.0	10.0	7.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0.4	14.8	3.7	0.0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0.0	50.0	23.0	14.9	9.5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1.3	32.3	3.2	0.0	3.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0.0	52.9	25.0	11.8	7.4	1.5
	없다	0.0	0.0	60.9	21.9	7.8	3.1	6.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9	0.0	50.9	26.4	9.4	3.8	7.5
	결혼(동거 포함)	0.0	0.0	56.7	23.3	11.7	6.7	1.7
	이혼	0.0	0.0	72.2	16.7	5.6	5.6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실업문제

문8)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0)	75.0%(99)	15.9%(21)	3.8%(5)	3.0%(4)	2.3%(3)
성별	남자	0.0	72.9	14.3	4.3	4.3	4.3
	여자	0.0	77.4	17.7	3.2	1.6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68.1	17.0	8.5	2.1	4.3
	30대	0.0	76.9	15.4	2.6	2.6	2.6
	40대	0.0	77.8	18.5	0.0	3.7	0.0
	50대	0.0	82.4	11.8	0.0	5.9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90.0	10.0	0.0	0.0	0.0
	전문학교	0.0	91.3	8.7	0.0	0.0	0.0
	고등중학교	0.0	68.4	18.9	5.3	4.2	3.2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79.2	16.7	0.0	4.2	0.0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74.5	15.1	4.7	2.8	2.8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78.3	16.3	3.3	0.0	2.2
	없다	0.0	67.5	15.0	5.0	10.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7.8	14.8	3.7	0.0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3.0	17.6	4.1	4.1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4	12.9	3.2	3.2	3.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0.6	17.6	4.4	5.9	1.5
	없다	0.0	79.7	14.1	3.1	0.0	3.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67.9	17.0	5.7	3.8	5.7
	결혼(동거 포함)	0.0	81.7	13.3	1.7	3.3	0.0
	이혼	0.0	72.2	22.2	5.6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지역갈등

문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1.5%(2)	0.0%(0)	34.8%(46)	19.7%(26)	10.6%(14)	27.3%(36)	6.1%(8)
성별	남자	1.4	0.0	35.7	20.0	8.6	24.3	10.0
	여자	1.6	0.0	33.9	19.4	12.9	30.6	1.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20대	4.3	0.0	29.8	25.5	6.4	27.7	6.4
	30대	0.0	0.0	33.3	15.4	15.4	30.8	5.1
	40대	0.0	0.0	40.7	18.5	11.1	22.2	7.4
	50대	0.0	0.0	47.1	5.9	11.8	29.4	5.9
	60대	0.0	0.0	0.0	100.0	0.0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40.0	0.0	40.0	0.0
	전문학교	0.0	0.0	34.8	13.0	17.4	30.4	4.3
	고등중학교	1.1	0.0	35.8	20.0	10.5	25.3	7.4
	인민학교	33.3	0.0	66.7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33.3	25.0	4.2	33.3	4.2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1.9	0.0	34.9	17.9	12.3	26.4	6.6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2	0.0	33.7	18.5	9.8	28.3	7.6
	없다	0.0	0.0	37.5	22.5	12.5	25.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51.9	22.2	11.1	3.7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7	0.0	23.0	21.6	12.2	36.5	4.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48.4	12.9	6.5	25.8	6.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0.0	27.9	19.1	14.7	29.4	7.4
	없다	1.6	0.0	42.2	20.3	6.3	25.0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3.8	0.0	32.1	15.1	7.5	30.2	11.3
	결혼(동거 포함)	0.0	0.0	30.0	26.7	10.0	30.0	3.3
	이혼	0.0	0.0	55.6	11.1	22.2	11.1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이념갈등

문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8%(1)	47.0%(62)	13.6%(18)	9.8%(13)	22.7%(30)	6.1%(8)
성별	남자	0.0	47.1	14.3	12.9	20.0	5.7
	여자	1.6	46.8	12.9	6.5	25.8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2.1	38.3	17.0	10.6	23.4	8.5
	30대	0.0	46.2	17.9	7.7	23.1	5.1
	40대	0.0	55.6	7.4	11.1	22.2	3.7
	50대	0.0	58.8	0.0	11.8	23.5	5.9
	60대	0.0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10.0	10.0	30.0	0.0
	전문학교	0.0	47.8	8.7	8.7	26.1	8.7
	고등중학교	1.1	46.3	14.7	9.5	22.1	6.3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0.0
	무학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54.2	12.5	4.2	25.0	4.2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9	45.3	13.2	11.3	22.6	6.6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47.8	12.0	9.8	21.7	7.6
	없다	0.0	45.0	17.5	10.0	25.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3.0	14.8	11.1	11.1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37.8	14.9	12.2	27.0	6.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4.8	9.7	3.2	22.6	9.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38.2	17.6	16.2	19.1	7.4
	없다	0.0	56.3	9.4	3.1	26.6	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9	45.3	15.1	9.4	20.8	7.5
	결혼(동거 포함)	0.0	43.3	11.7	10.0	30.0	5.0
	이혼	0.0	61.1	16.7	11.1	5.6	5.6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문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52.3%(69)	17.4%(23)	14.4%(19)	15.9%(21)
성별	남자	0.0	44.3	17.1	18.6	20.0
	여자	0.0	61.3	17.7	9.7	11.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61.7	14.9	8.5	14.9
	30대	0.0	41.0	23.1	17.9	17.9
	40대	0.0	48.1	18.5	14.8	18.5
	50대	0.0	52.9	11.8	23.5	11.8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30.0	30.0	40.0
	전문학교	0.0	47.8	17.4	26.1	8.7
	고등중학교	0.0	58.9	16.8	10.5	13.7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1.7	20.8	25.0	12.5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55.7	17.0	11.3	16.0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57.6	14.1	12.0	16.3
	없다	0.0	40.0	25.0	20.0	15.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5.6	18.5	7.4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0.0	18.9	16.2	14.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4.8	12.9	16.1	16.1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55.9	19.1	8.8	16.2
	없다	0.0	48.4	15.6	20.3	15.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8.5	15.1	9.4	17.0
	결혼(동거 포함)	0.0	50.0	20.0	13.3	16.7
	이혼	0.0	38.9	16.7	33.3	11.1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

문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8%(1)	47.0%(62)	28.0%(37)	16.7%(22)	7.6%(10)
성별	남자	0.0	44.3	27.1	20.0	8.6
	여자	1.6	50.0	29.0	12.9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42.6	38.3	12.8	6.4
	30대	0.0	53.8	17.9	20.5	7.7
	40대	3.7	44.4	33.3	14.8	3.7
	50대	0.0	47.1	11.8	23.5	17.6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30.0	10.0	20.0
	전문학교	0.0	56.5	30.4	4.3	8.7
	고등중학교	1.1	45.3	27.4	21.1	5.3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4.2	29.2	29.2	29.2	8.3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51.9	28.3	12.3	7.5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47.8	25.0	17.4	8.7
	없다	0.0	45.0	35.0	15.0	5.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55.6	18.5	18.5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9	31.1	17.6	9.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1.6	29.0	12.9	6.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1.2	30.9	16.2	11.8
	없다	1.6	53.1	25.0	17.2	3.1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9	49.1	32.1	9.4	7.5
	결혼(동거 포함)	0.0	46.7	25.0	23.3	5.0
	이혼	0.0	44.4	22.2	16.7	16.7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경제협력

문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54.5%(72)	22.0%(29)	13.6%(18)	9.8%(13)
성별	남자	0.0	47.1	21.4	15.7	15.7
	여자	0.0	62.9	22.6	11.3	3.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1.1	34.0	10.6	4.3
	30대	0.0	59.0	10.3	12.8	17.9
	40대	0.0	51.9	22.2	18.5	7.4
	50대	0.0	58.8	11.8	17.6	11.8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20.0	30.0	30.0
	전문학교	0.0	43.5	30.4	26.1	0.0
	고등중학교	0.0	61.1	20.0	8.4	10.5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4.2	16.7	16.7	12.5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55.7	23.6	13.2	7.5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58.7	19.6	12.0	9.8
	없다	0.0	45.0	27.5	17.5	1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3.0	18.5	7.4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4.1	18.9	16.2	10.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8.4	32.3	12.9	6.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52.9	27.9	10.3	8.8
	없다	0.0	56.3	15.6	17.2	10.9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8.5	20.8	9.4	11.3
	결혼(동거 포함)	0.0	55.0	21.7	13.3	10.0
	이혼	0.0	38.9	27.8	27.8	5.6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북회담

문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49.2%(65)	22.0%(29)	19.7%(26)	9.1%(12)
성별	남자	0.0	38.6	27.1	20.0	14.3
	여자	0.0	61.3	16.1	19.4	3.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42.6	38.3	12.8	6.4
	30대	0.0	46.2	20.5	20.5	12.8
	40대	0.0	59.3	7.4	22.2	11.1
	50대	0.0	58.8	5.9	29.4	5.9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30.0	20.0	10.0
	전문학교	0.0	47.8	21.7	26.1	4.3
	고등중학교	0.0	49.5	21.1	18.9	10.5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5.8	12.5	37.5	4.2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50.9	24.5	15.1	9.4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52.2	17.4	18.5	12.0
	없다	0.0	42.5	32.5	22.5	2.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4.4	22.2	14.8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0.0	21.6	23.0	5.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1.6	22.6	16.1	9.7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1.2	32.4	17.6	8.8
	없다	0.0	57.8	10.9	21.9	9.4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9.6	35.8	13.2	11.3
	결혼(동거 포함)	0.0	56.7	13.3	23.3	6.7
	이혼	0.0	55.6	11.1	22.2	1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통일방식

문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 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0.8%(1)	11.4%(15)	15.2%(20)	9.1%(12)	37.9%(50)	25.8%(34)
성별	남자	0.0	18.6	14.3	8.6	40.0	18.6
	여자	1.6	3.2	16.1	9.7	35.5	33.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2.1	10.6	10.6	8.5	44.7	23.4
	30대	0.0	10.3	17.9	2.6	43.6	25.6
	40대	0.0	11.1	14.8	7.4	33.3	33.3
	50대	0.0	17.6	23.5	23.5	11.8	23.5
	60대	0.0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0.0	0.0	10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20.0	0.0	50.0	20.0
	전문학교	0.0	13.0	26.1	8.7	21.7	30.4
	고등중학교	1.1	10.5	11.6	10.5	40.0	26.3
	인민학교	0.0	33.3	33.3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25.0	16.7	8.3	25.0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9	8.5	15.1	8.5	41.5	25.5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10.9	15.2	7.6	38.0	28.3
	없다	2.5	12.5	15.0	12.5	37.5	2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8.5	11.1	3.7	40.7	2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9.5	14.9	10.8	35.1	28.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7	19.4	9.7	41.9	19.4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5.9	14.7	11.8	38.2	29.4
	없다	1.6	17.2	15.6	6.3	37.5	21.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9	11.3	7.5	11.3	43.4	24.5
	결혼(동거 포함)	0.0	13.3	18.3	6.7	40.0	21.7
	이혼	0.0	5.6	22.2	11.1	16.7	44.4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통일 후 거주

문16)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0.0%(0)	31.8%(42)	44.7%(59)	22.7%(30)	0.8%(1)
성별	남자	0.0	38.6	35.7	24.3	1.4
	여자	0.0	24.2	54.8	21.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7.7	46.8	23.4	2.1
	30대	0.0	30.8	48.7	20.5	0.0
	40대	0.0	40.7	33.3	25.9	0.0
	50대	0.0	29.4	47.1	23.5	0.0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20.0	40.0	0.0
	전문학교	0.0	39.1	34.8	26.1	0.0
	고등중학교	0.0	29.5	48.4	21.1	1.1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41.7	25.0	33.3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30.2	49.1	19.8	0.9
	무응답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32.6	46.7	19.6	1.1
	없다	0.0	30.0	40.0	3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4.4	33.3	18.5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8.4	48.6	23.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9.0	45.2	25.8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22.1	55.9	20.6	1.5
	없다	0.0	42.2	32.8	25.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2.1	39.6	28.3	0.0
	결혼(동거 포함)	0.0	28.3	51.7	18.3	1.7
	이혼	0.0	38.9	38.9	22.2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對 남한 인식

문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0.0%(0)	8.3%(11)	53.8%(71)	4.5%(6)	9.8%(13)	23.5%(31)
성별	남자	0.0	10.0	47.1	2.9	12.9	27.1
	여자	0.0	6.5	61.3	6.5	6.5	19.4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10.6	48.9	6.4	12.8	21.3
	30대	0.0	5.1	53.8	7.7	15.4	17.9
	40대	0.0	11.1	66.7	0.0	0.0	22.2
	50대	0.0	5.9	47.1	0.0	0.0	47.1
	60대	0.0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70.0	0.0	10.0	20.0
	전문학교	0.0	4.3	65.2	8.7	4.3	17.4
	고등중학교	0.0	10.5	50.5	4.2	10.5	24.2
	인민학교	0.0	0.0	33.3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2.5	50.0	0.0	12.5	2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7.5	54.7	5.7	9.4	22.6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8.7	54.3	3.3	10.9	22.8
	없다	0.0	7.5	52.5	7.5	7.5	2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1.1	51.9	0.0	3.7	33.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1	55.4	4.1	13.5	18.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	51.6	9.7	6.5	25.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4	52.9	7.4	11.8	20.6
	없다	0.0	9.4	54.7	1.6	7.8	26.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9.4	58.5	1.9	7.5	22.6
	결혼(동거 포함)	0.0	6.7	48.3	8.3	15.0	21.7
	이혼	0.0	11.1	61.1	0.0	0.0	27.8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4.19 혁명

문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5%(2)	9.8%(13)	31.8%(42)	20.5%(27)	36.4%(48)
성별	남자	1.4	11.4	35.7	18.6	32.9
	여자	1.6	8.1	27.4	22.6	40.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4.3	27.7	25.5	42.6
	30대	2.6	7.7	28.2	17.9	43.6
	40대	3.7	14.8	40.7	14.8	25.9
	50대	0.0	23.5	29.4	23.5	23.5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0.0	30.0	10.0	30.0
	전문학교	0.0	21.7	34.8	26.1	17.4
	고등중학교	2.1	5.3	30.5	20.0	42.1
	인민학교	0.0	0.0	66.7	0.0	33.3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4.2	25.0	33.3	12.5	2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9	6.6	30.2	22.6	39.6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2	9.8	29.3	19.6	39.1
	없다	0.0	10.0	37.5	22.5	3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7.4	18.5	22.2	48.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6.8	37.8	17.6	36.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9.4	29.0	25.8	25.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	2.9	36.8	27.9	29.4
	없다	0.0	17.2	26.6	12.5	43.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	32.1	24.5	35.8
	결혼(동거 포함)	3.3	13.3	30.0	11.7	41.7
	이혼	0.0	5.6	38.9	38.9	16.7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5.18 광주항쟁

문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5%(2)	21.2%(28)	40.2%(53)	18.9%(25)	18.2%(24)
성별	남자	0.0	25.7	41.4	15.7	17.1
	여자	3.2	16.1	38.7	22.6	19.4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7.0	27.7	23.4	31.9
	30대	2.6	15.4	38.5	23.1	20.5
	40대	0.0	33.3	55.6	11.1	0.0
	50대	5.9	29.4	47.1	11.8	5.9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40.0	10.0	0.0
	전문학교	0.0	21.7	43.5	26.1	8.7
	고등중학교	2.1	17.9	40.0	18.9	21.1
	인민학교	0.0	33.3	33.3	0.0	33.3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5.0	50.0	20.8	4.2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1.9	20.8	36.8	18.9	21.7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2	20.7	41.3	17.4	18.5
	없다	0.0	22.5	37.5	22.5	17.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25.9	29.6	22.2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18.9	44.6	18.9	16.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2.6	38.7	16.1	22.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	16.2	44.1	16.2	20.6
	없다	0.0	26.6	35.9	21.9	15.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4.5	32.1	22.6	20.8
	결혼(동거 포함)	3.3	18.3	45.0	15.0	18.3
	이혼	0.0	22.2	50.0	22.2	5.6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88 서울올림픽

문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3.0%(4)	12.9%(17)	18.2%(24)	28.8%(38)	37.1%(49)
성별	남자	2.9	15.7	20.0	28.6	32.9
	여자	3.2	9.7	16.1	29.0	41.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2.1	4.3	12.8	29.8	51.1
	30대	0.0	17.9	12.8	33.3	35.9
	40대	7.4	18.5	25.9	22.2	25.9
	50대	5.9	17.6	35.3	23.5	17.6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0.0	40.0	20.0	10.0
	전문학교	4.3	8.7	21.7	26.1	39.1
	고등중학교	3.2	12.6	15.8	30.5	37.9
	인민학교	0.0	0.0	0.0	33.3	66.7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8.3	16.7	20.8	41.7	12.5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1.9	12.3	17.9	24.5	43.4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2	14.1	18.5	29.3	35.9
	없다	5.0	10.0	17.5	27.5	4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18.5	18.5	33.3	2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7	9.5	18.9	28.4	40.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	16.1	16.1	25.8	38.7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	10.3	19.1	29.4	38.2
	없다	3.1	15.6	17.2	28.1	35.9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3.8	7.5	11.3	35.8	41.5
	결혼(동거 포함)	3.3	20.0	16.7	26.7	33.3
	이혼	0.0	5.6	44.4	16.7	33.3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2002 월드컵

문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4.5%(6)	10.6%(14)	21.2%(28)	31.1%(41)	32.6%(43)
성별	남자	2.9	15.7	21.4	32.9	27.1
	여자	6.5	4.8	21.0	29.0	38.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2.1	8.5	21.3	38.3	29.8
	30대	0.0	15.4	23.1	25.6	35.9
	40대	11.1	11.1	25.9	22.2	29.6
	50대	11.8	5.9	11.8	35.3	35.3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30.0	40.0	10.0
	전문학교	4.3	4.3	13.0	34.8	43.5
	고등중학교	5.3	11.6	22.1	28.4	32.6
	인민학교	0.0	0.0	0.0	66.7	33.3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12.5	16.7	12.5	41.7	16.7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2.8	9.4	22.6	29.2	35.8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3	12.0	22.8	30.4	30.4
	없다	5.0	7.5	17.5	32.5	37.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25.9	29.6	22.2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1	6.8	17.6	37.8	3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6.5	6.5	22.6	22.6	41.9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5.9	8.8	19.1	32.4	33.8
	없다	3.1	12.5	23.4	29.7	31.3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5.7	9.4	20.8	43.4	20.8
	결혼(동거 포함)	5.0	15.0	20.0	21.7	38.3
	이혼	0.0	0.0	27.8	27.8	44.4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세월호 사건

문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5%(2)	18.2%(24)	29.5%(39)	22.0%(29)	28.8%(38)
성별	남자	2.9	22.9	27.1	21.4	25.7
	여자	0.0	12.9	32.3	22.6	32.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7.0	34.0	19.1	29.8
	30대	2.6	12.8	30.8	28.2	25.6
	40대	3.7	18.5	29.6	18.5	29.6
	50대	0.0	29.4	17.6	23.5	29.4
	60대	0.0	0.0	0.0	0.0	10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10.0	20.0	20.0
	전문학교	0.0	17.4	39.1	26.1	17.4
	고등중학교	2.1	15.8	29.5	22.1	30.5
	인민학교	0.0	0.0	33.3	0.0	66.7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8.3	29.2	20.8	16.7	25.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6.0	31.1	22.6	30.2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16.3	27.2	25.0	30.4
	없다	2.5	22.5	35.0	15.0	25.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18.5	22.2	2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7	14.9	33.8	23.0	25.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2.9	29.0	19.4	38.7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16.2	36.8	16.2	29.4
	없다	1.6	20.3	21.9	28.1	28.1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9	18.9	39.6	11.3	28.3
	결혼(동거 포함)	1.7	20.0	20.0	28.3	30.0
	이혼	0.0	11.1	33.3	33.3	22.2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운영

문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몰랐다
		0.8%(1)	25.8%(34)	45.5%(60)	20.5%(27)	7.6%(10)
성별	남자	1.4	22.9	52.9	17.1	5.7
	여자	0.0	29.0	37.1	24.2	9.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1.3	42.6	25.5	10.6
	30대	0.0	25.6	41.0	20.5	12.8
	40대	3.7	22.2	59.3	14.8	0.0
	50대	0.0	41.2	41.2	17.6	0.0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40.0	20.0	0.0
	전문학교	0.0	39.1	47.8	13.0	0.0
	고등중학교	1.1	20.0	47.4	22.1	9.5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4.2	25.0	45.8	20.8	4.2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26.4	44.3	20.8	8.5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28.3	46.7	17.4	6.5
	없다	0.0	20.0	42.5	27.5	1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7.0	44.4	11.1	7.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23.0	48.6	21.6	5.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2.6	38.7	25.8	12.9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23.5	47.1	19.1	8.8
	없다	0.0	28.1	43.8	21.9	6.3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4.5	47.2	24.5	3.8
	결혼(동거 포함)	1.7	25.0	41.7	18.3	13.3
	이혼	0.0	33.3	55.6	11.1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문화 경험

문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접해 봤다	한두번 접해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0.0%(0)	43.2%(57)	43.2%(57)	13.6%(18)
성별	남자	0.0	51.4	37.1	11.4
	여자	0.0	33.9	50.0	16.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0대	0.0	44.7	44.7	10.6
	30대	0.0	56.4	30.8	12.8
	40대	0.0	29.6	51.9	18.5
	50대	0.0	35.3	47.1	17.6
	60대	0.0	0.0	100.0	0.0
	70대	0.0	0.0	10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40.0	20.0
	전문학교	0.0	39.1	56.5	4.3
	고등중학교	0.0	45.3	38.9	15.8
	인민학교	0.0	0.0	100.0	0.0
	무학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1.7	45.8	12.5
	후보당원	0.0	0.0	100.0	0.0
	비당원	0.0	44.3	42.5	13.2
	무응답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51.1	38.0	10.9
	없다	0.0	25.0	55.0	20.0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1.9	37.0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7.3	39.2	13.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5.8	58.1	16.1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8.5	38.2	13.2
	없다	0.0	37.5	48.4	14.1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41.5	43.4	15.1
	결혼(동거 포함)	0.0	46.7	41.7	11.7
	이혼	0.0	38.9	50.0	11.1
	무응답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남한문화 친숙도

문25) (1과 2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무응답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0.8%(1)	57.6%(76)	24.2%(32)	4.5%(6)	1.5%(2)
성별	남자	1.6	68.3	28.6	1.6	0.0
	여자	0.0	61.1	25.9	9.3	3.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2.3	67.4	25.6	4.7	0.0
	30대	0.0	58.8	41.2	0.0	0.0
	40대	0.0	73.9	8.7	13.0	4.3
	50대	0.0	60.0	26.7	6.7	6.7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66.7	22.2	11.1	0.0
	전문학교	0.0	59.1	27.3	9.1	4.5
	고등중학교	1.2	64.6	29.3	3.7	1.2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1.9	33.3	4.8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1.1	65.3	26.3	5.3	2.1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2	69.9	24.1	2.4	2.4
	없다	0.0	52.9	35.3	11.8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8	76.9	15.4	0.0	3.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4.6	29.2	4.6	1.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8	34.6	11.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0.0	25.0	3.3	1.7
	없다	1.8	59.6	29.8	7.0	1.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2.2	69.6	21.7	6.5	0.0
	결혼(동거 포함)	0.0	61.8	32.7	3.6	1.8
	이혼	0.0	62.5	25.0	6.3	6.3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유통경로

문26)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십니까?

		무응답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갈 때 접했다
		0.8%(1)	5.3%(7)	47.7%(63)	22.0%(29)	12.9%(17)
성별	남자	1.6	7.9	60.3	11.1	19.0
	여자	0.0	3.7	46.3	40.7	9.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2.3	14.0	46.5	32.6	4.7
	30대	0.0	2.9	61.8	17.6	17.6
	40대	0.0	0.0	47.8	30.4	21.7
	50대	0.0	0.0	60.0	13.3	26.7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1.1	55.6	11.1	22.2
	전문학교	0.0	4.5	68.2	13.6	13.6
	고등중학교	1.2	4.9	50.0	29.3	14.6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66.7	9.5	23.8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1.1	7.4	50.5	28.4	12.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2	6.0	53.0	24.1	15.7
	없다	0.0	5.9	55.9	26.5	11.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8	15.4	50.0	11.5	19.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1	52.3	29.2	15.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	61.5	26.9	7.7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5.0	53.3	28.3	13.3
	없다	1.8	7.0	54.4	21.1	15.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2.2	10.9	56.5	21.7	8.7
	결혼(동거 포함)	0.0	1.8	56.4	23.6	18.2
	이혼	0.0	6.3	37.5	37.5	18.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문27) 귀하는 남한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0.0%(0)	60.6%(80)	18.9%(25)	8.3%(11)	0.0%(0)	0.0%(0)
성별	남자	0.0	68.3	23.8	7.9	0.0	0.0
	여자	0.0	69.8	18.9	11.3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81.4	11.6	7.0	0.0	0.0
	30대	0.0	64.7	29.4	5.9	0.0	0.0
	40대	0.0	54.5	27.3	18.2	0.0	0.0
	50대	0.0	60.0	26.7	13.3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5.6	33.3	11.1	0.0	0.0
	전문학교	0.0	54.5	31.8	13.6	0.0	0.0
	고등중학교	0.0	72.8	18.5	8.6	0.0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0	40.0	1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72.6	17.9	9.5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75.6	19.5	4.9	0.0	0.0
	없다	0.0	52.9	26.5	20.6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6.0	20.0	4.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3.8	16.9	9.2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0.0	34.6	15.4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6.7	15.0	8.3	0.0	0.0
	없다	0.0	60.7	28.6	10.7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6	22.2	2.2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65.5	21.8	12.7	0.0	0.0
	이혼	0.0	62.5	18.8	18.8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선거방식

문28)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94.7%(125)	2.3%(3)	1.5%(2)	1.5%(2)
성별	남자	0.0	95.7	1.4	1.4	1.4
	여자	0.0	93.5	3.2	1.6	1.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91.5	2.1	4.3	2.1
	30대	0.0	97.4	2.6	0.0	0.0
	40대	0.0	96.3	0.0	0.0	3.7
	50대	0.0	94.1	5.9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0	0.0	0.0	0.0
	전문학교	0.0	100.0	0.0	0.0	0.0
	고등중학교	0.0	94.7	2.1	2.1	1.1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00.0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93.4	2.8	1.9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93.5	3.3	2.2	1.1
	없다	0.0	97.5	0.0	0.0	2.5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6.3	0.0	0.0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4.6	2.7	2.7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3.5	3.2	0.0	3.2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92.6	2.9	2.9	1.5
	없다	0.0	96.9	1.6	0.0	1.6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96.2	0.0	1.9	1.9
	결혼(동거 포함)	0.0	93.3	3.3	1.7	1.7
	이혼	0.0	94.4	5.6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100.0	0.0	0.0	0.0

언어사용

문29)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83.3%(110)	7.6%(10)	4.5%(6)	4.5%(6)
성별	남자	0.0	87.1	4.3	4.3	4.3
	여자	0.0	79.0	11.3	4.8	4.8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3.0	6.4	8.5	2.1
	30대	0.0	84.6	7.7	5.1	2.6
	40대	0.0	81.5	11.1	0.0	7.4
	50대	0.0	82.4	5.9	0.0	11.8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90.0	10.0	0.0	0.0
	전문학교	0.0	87.0	13.0	0.0	0.0
	고등중학교	0.0	82.1	6.3	5.3	6.3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87.5	0.0	8.3	4.2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82.1	9.4	3.8	4.7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84.8	7.6	3.3	4.3
	없다	0.0	80.0	7.5	7.5	5.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1.5	7.4	3.7	7.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3.8	8.1	4.1	4.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3.9	6.5	6.5	3.2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5.0	10.3	7.4	7.4
	없다	0.0	92.2	4.7	1.6	1.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4.9	3.8	7.5	3.8
	결혼(동거 포함)	0.0	81.7	8.3	3.3	6.7
	이혼	0.0	83.3	16.7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생활풍습

문30)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59.1%(78)	37.1%(49)	3.0%(4)	0.8%(1)
성별	남자	0.0	61.4	34.3	2.9	1.4
	여자	0.0	56.5	40.3	3.2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9.6	34.0	4.3	2.1
	30대	0.0	56.4	41.0	2.6	0.0
	40대	0.0	63.0	37.0	0.0	0.0
	50대	0.0	58.8	35.3	5.9	0.0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50.0	0.0	0.0
	전문학교	0.0	52.2	47.8	0.0	0.0
	고등중학교	0.0	61.1	34.7	4.2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4.2	41.7	4.2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59.4	36.8	2.8	0.9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59.8	37.0	3.3	0.0
	없다	0.0	57.5	37.5	2.5	2.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3.0	33.3	3.7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8.1	37.8	4.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8.1	38.7	0.0	3.2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52.9	42.6	2.9	1.5
	없다	0.0	65.6	31.3	3.1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60.4	34.0	3.8	1.9
	결혼(동거 포함)	0.0	55.0	41.7	3.3	0.0
	이혼	0.0	72.2	27.8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가족중시

문31)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43.9%(58)	42.4%(56)	12.9%(17)	0.8%(1)
성별	남자	0.0	48.6	40.0	11.4	0.0
	여자	0.0	38.7	45.2	14.5	1.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1.1	31.9	17.0	0.0
	30대	0.0	48.7	38.5	10.3	2.6
	40대	0.0	37.0	55.6	7.4	0.0
	50대	0.0	17.6	64.7	17.6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0.0	40.0	30.0	0.0
	전문학교	0.0	21.7	73.9	4.3	0.0
	고등중학교	0.0	50.5	34.7	13.7	1.1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1.7	50.0	8.3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44.3	40.6	14.2	0.9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48.9	38.0	12.0	1.1
	없다	0.0	32.5	52.5	15.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1.9	33.3	14.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3.2	41.9	13.5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7	51.6	9.7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39.7	47.1	11.8	1.5
	없다	0.0	48.4	37.5	14.1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43.4	43.4	13.2	0.0
	결혼(동거 포함)	0.0	43.3	40.0	15.0	1.7
	이혼	0.0	50.0	44.4	5.6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사회복지

문32)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41.7%(55)	38.6%(51)	14.4%(19)	5.3%(7)
성별	남자	0.0	45.7	34.3	15.7	4.3
	여자	0.0	37.1	43.5	12.9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44.7	34.0	17.0	4.3
	30대	0.0	43.6	35.9	12.8	7.7
	40대	0.0	44.4	37.0	18.5	0.0
	50대	0.0	29.4	52.9	5.9	11.8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50.0	0.0	10.0
	전문학교	0.0	26.1	47.8	21.7	4.3
	고등중학교	0.0	46.3	33.7	14.7	5.3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3.3	45.8	16.7	4.2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43.4	36.8	14.2	5.7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41.3	41.3	10.9	6.5
	없다	0.0	42.5	32.5	22.5	2.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1.9	29.6	14.8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7.8	41.9	14.9	5.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1.9	38.7	12.9	6.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2.6	39.7	14.7	2.9
	없다	0.0	40.6	37.5	14.1	7.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41.5	37.7	15.1	5.7
	결혼(동거 포함)	0.0	40.0	38.3	15.0	6.7
	이혼	0.0	44.4	44.4	11.1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돈에 대한 중시

문33)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58.3%(77)	22.7%(30)	12.1%(16)	6.8%(9)
성별	남자	0.0	61.4	20.0	11.4	7.1
	여자	0.0	54.8	25.8	12.9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7.4	25.5	6.4	10.6
	30대	0.0	61.5	20.5	10.3	7.7
	40대	0.0	51.9	25.9	22.2	0.0
	50대	0.0	58.8	17.6	17.6	5.9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30.0	20.0	30.0
	전문학교	0.0	47.8	30.4	13.0	8.7
	고등중학교	0.0	65.3	18.9	11.6	4.2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4.2	25.0	16.7	4.2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59.4	21.7	11.3	7.5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57.6	22.8	13.0	6.5
	없다	0.0	60.0	22.5	10.0	7.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3.0	22.2	3.7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6.8	24.3	13.5	5.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8.1	19.4	16.1	6.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64.7	17.6	13.2	4.4
	없다	0.0	51.6	28.1	10.9	9.4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6.6	22.6	9.4	11.3
	결혼(동거 포함)	0.0	61.7	20.0	13.3	5.0
	이혼	0.0	50.0	33.3	16.7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

문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27.3%(36)	25.8%(34)	29.5%(39)	17.4%(23)
성별	남자	0.0	31.4	21.4	28.6	18.6
	여자	0.0	22.6	30.6	30.6	16.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7.7	29.8	34.0	8.5
	30대	0.0	28.2	23.1	25.6	23.1
	40대	0.0	22.2	22.2	29.6	25.9
	50대	0.0	35.3	29.4	23.5	11.8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20.0	30.0	30.0
	전문학교	0.0	17.4	30.4	39.1	13.0
	고등중학교	0.0	30.5	24.2	27.4	17.9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3.3	20.8	29.2	16.7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26.4	26.4	29.2	17.9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26.1	22.8	29.3	21.7
	없다	0.0	30.0	32.5	30.0	7.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7.0	29.6	14.8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8.9	27.0	36.5	17.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7	19.4	25.8	16.1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9.4	22.1	32.4	16.2
	없다	0.0	25.0	29.7	26.6	18.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4.0	18.9	34.0	13.2
	결혼(동거 포함)	0.0	25.0	28.3	28.3	18.3
	이혼	0.0	16.7	33.3	22.2	27.8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핵무기 위협

문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위험적이다	다소 위험적이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0.0%(0)	60.6%(80)	22.0%(29)	12.1%(16)	5.3%(7)
성별	남자	0.0	61.4	18.6	12.9	7.1
	여자	0.0	59.7	25.8	11.3	3.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59.6	25.5	12.8	2.1
	30대	0.0	61.5	15.4	17.9	5.1
	40대	0.0	63.0	14.8	11.1	11.1
	50대	0.0	58.8	35.3	0.0	5.9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30.0	0.0	20.0
	전문학교	0.0	52.2	30.4	8.7	8.7
	고등중학교	0.0	64.2	20.0	12.6	3.2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9.2	12.5	4.2	4.2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56.6	23.6	14.2	5.7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6.3	17.4	10.9	5.4
	없다	0.0	47.5	32.5	15.0	5.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0.4	14.8	7.4	7.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8.1	25.7	12.2	4.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8.1	19.4	16.1	6.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60.3	25.0	13.2	1.5
	없다	0.0	60.9	18.8	10.9	9.4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6.6	20.8	17.0	5.7
	결혼(동거 포함)	0.0	66.7	23.3	6.7	3.3
	이혼	0.0	55.6	16.7	16.7	11.1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대북지원 인식

문3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잘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0.0%(0)	22.0%(29)	31.1%(41)	29.5%(39)	17.4%(23)
성별	남자	0.0	28.6	25.7	28.6	17.1
	여자	0.0	14.5	37.1	30.6	17.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0.6	31.9	31.9	25.5
	30대	0.0	20.5	33.3	35.9	10.3
	40대	0.0	37.0	25.9	25.9	11.1
	50대	0.0	29.4	29.4	17.6	23.5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40.0	30.0	10.0
	전문학교	0.0	30.4	30.4	26.1	13.0
	고등중학교	0.0	20.0	31.6	28.4	20.0
	인민학교	0.0	33.3	0.0	66.7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3.3	29.2	33.3	4.2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19.8	31.1	28.3	20.8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23.9	33.7	23.9	18.5
	없다	0.0	17.5	25.0	42.5	15.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14.8	22.2	29.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0.3	36.5	29.7	13.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1	32.3	35.5	16.1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17.6	29.4	33.8	19.1
	없다	0.0	26.6	32.8	25.0	15.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1.3	35.8	35.8	17.0
	결혼(동거 포함)	0.0	30.0	23.3	26.7	20.0
	이혼	0.0	27.8	44.4	16.7	1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대북지원 규모

문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5%(2)	32.6%(43)	23.5%(31)	3.0%(4)	3.0%(4)	36.4%(48)
성별	남자	1.4	30.0	24.3	1.4	2.9	40.0
	여자	1.6	35.5	22.6	4.8	3.2	32.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29.8	36.2	4.3	2.1	27.7
	30대	0.0	35.9	28.2	0.0	2.6	33.3
	40대	7.4	29.6	7.4	0.0	3.7	51.9
	50대	0.0	41.2	5.9	11.8	0.0	41.2
	60대	0.0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40.0	0.0	0.0	40.0
	전문학교	4.3	43.5	13.0	0.0	8.7	30.4
	고등중학교	1.1	32.6	24.2	4.2	2.1	35.8
	인민학교	0.0	0.0	33.3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9.2	25.0	0.0	8.3	37.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1.9	34.0	23.6	3.8	1.9	34.9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2	33.7	21.7	3.3	3.3	35.9
	없다	0.0	30.0	27.5	2.5	2.5	37.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29.6	18.5	3.7	3.7	4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28.4	31.1	4.1	1.4	3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5.2	9.7	0.0	6.5	38.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38.2	23.5	4.4	2.9	30.9
	없다	3.1	26.6	23.4	1.6	3.1	42.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1.9	26.4	35.8	0.0	3.8	32.1
	결혼(동거 포함)	0.0	33.3	16.7	6.7	3.3	40.0
	이혼	5.6	44.4	11.1	0.0	0.0	38.9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지원

문3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8%(1)	56.8%(75)	17.4%(23)	18.2%(24)	1.5%(2)	5.3%(7)
성별	남자	0.0	51.4	14.3	27.1	2.9	4.3
	여자	1.6	62.9	21.0	8.1	0.0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57.4	23.4	14.9	2.1	2.1
	30대	2.6	56.4	10.3	23.1	2.6	5.1
	40대	0.0	55.6	14.8	22.2	0.0	7.4
	50대	0.0	58.8	17.6	11.8	0.0	11.8
	60대	0.0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10.0	30.0	0.0	10.0
	전문학교	0.0	56.5	26.1	13.0	0.0	4.3
	고등중학교	1.1	56.8	16.8	17.9	2.1	5.3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41.7	25.0	25.0	4.2	4.2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9	61.3	16.0	16.0	0.9	4.7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1	57.6	17.4	17.4	1.1	5.4
	없다	0.0	55.0	17.5	20.0	2.5	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8.1	25.9	11.1	3.7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58.1	14.9	21.6	1.4	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1.3	16.1	16.1	0.0	6.5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1.5	64.7	14.7	14.7	1.5	2.9
	없다	0.0	48.4	20.3	21.9	1.6	7.8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60.4	13.2	20.8	0.0	5.7
	결혼(동거 포함)	1.7	51.7	20.0	18.3	3.3	5.0
결혼상태	이혼	0.0	61.1	22.2	11.1	0.0	5.6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의 대북경제투자

문39)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8%(1)	54.5%(72)	15.9%(21)	19.7%(26)	3.8%(5)	5.3%(7)
성별	남자	0.0	51.4	14.3	25.7	4.3	4.3
	여자	1.6	58.1	17.7	12.9	3.2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59.6	14.9	21.3	2.1	2.1
	30대	2.6	51.3	12.8	17.9	10.3	5.1
	40대	0.0	51.9	18.5	22.2	0.0	7.4
	50대	0.0	47.1	23.5	17.6	0.0	11.8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20.0	10.0	10.0	10.0
	전문학교	0.0	60.9	17.4	13.0	4.3	4.3
	고등중학교	1.1	52.6	15.8	22.1	3.2	5.3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5.8	20.8	20.8	8.3	4.2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9	57.5	15.1	18.9	1.9	5.7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55.4	15.2	19.6	3.3	5.4
	없다	0.0	52.5	17.5	20.0	5.0	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8.1	18.5	22.2	0.0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54.1	13.5	21.6	5.4	4.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1.3	19.4	12.9	3.2	3.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57.4	19.1	14.7	2.9	4.4
	없다	0.0	51.6	12.5	25.0	4.7	6.3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6.6	15.1	20.8	1.9	5.7
	결혼(동거 포함)	1.7	50.0	16.7	20.0	6.7	5.0
	이혼	0.0	61.1	16.7	16.7	0.0	5.6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문4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8%(1)	54.5%(72)	24.2%(32)	14.4%(19)	3.8%(5)	2.3%(3)
성별	남자	0.0	50.0	25.7	17.1	5.7	1.4
	여자	1.6	59.7	22.6	11.3	1.6	3.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57.4	27.7	10.6	4.3	0.0
	30대	2.6	51.3	20.5	17.9	7.7	0.0
	40대	0.0	55.6	25.9	14.8	0.0	3.7
	50대	0.0	47.1	23.5	17.6	0.0	11.8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20.0	30.0	0.0	10.0
	전문학교	0.0	56.5	21.7	13.0	4.3	4.3
	고등중학교	1.1	54.7	26.3	12.6	4.2	1.1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4.2	20.8	12.5	8.3	4.2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9	55.7	25.5	14.2	1.9	1.9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56.5	26.1	10.9	3.3	2.2
	없다	0.0	50.0	20.0	22.5	5.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5.6	18.5	14.8	7.4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56.8	24.3	13.5	2.7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8.4	29.0	16.1	3.2	3.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57.4	27.9	8.8	1.5	2.9
	없다	0.0	51.6	20.3	20.3	6.3	1.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62.3	18.9	17.0	0.0	1.9
	결혼(동거 포함)	1.7	45.0	30.0	13.3	8.3	1.7
	이혼	0.0	66.7	16.7	11.1	0.0	5.6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주체사상 자부심

문41)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0.0%(0)	37.1%(49)	28.0%(37)	28.8%(38)	6.1%(8)
성별	남자	0.0	35.7	34.3	24.3	5.7
	여자	0.0	38.7	21.0	33.9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34.0	27.7	31.9	6.4
	30대	0.0	33.3	30.8	30.8	5.1
	40대	0.0	51.9	18.5	22.2	7.4
	50대	0.0	35.3	35.3	29.4	0.0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30.0	60.0	10.0	0.0
	전문학교	0.0	26.1	34.8	34.8	4.3
	고등중학교	0.0	41.1	24.2	27.4	7.4
	인민학교	0.0	33.3	0.0	66.7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5.8	33.3	20.8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35.8	26.4	30.2	7.5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4.8	27.2	30.4	7.6
	없다	0.0	42.5	30.0	25.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25.9	37.0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9	25.7	24.3	8.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9.0	35.5	32.3	3.2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9.4	32.4	30.9	7.4
	없다	0.0	45.3	23.4	26.6	4.7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45.3	20.8	28.3	5.7
	결혼(동거 포함)	0.0	30.0	35.0	30.0	5.0
	이혼	0.0	38.9	22.2	27.8	11.1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김정은 지지도

문4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0.8% (1)	9.1% (12)	3.8% (5)	15.2% (20)	8.3% (11)	15.2% (20)	8.3% (11)	9.8% (13)	9.8% (13)	16.7% (22)
성별	남자	1.4	7.1	5.7	15.7	11.4	12.9	10.0	8.6	11.4	15.7
	여자	0.0	11.3	1.6	14.5	4.8	17.7	12.9	11.3	8.1	17.7
	1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8.5	6.4	17.0	0.0	14.9	6.4	10.6	17.0	19.1
	30대	0.0	2.6	2.6	12.8	10.3	17.9	15.4	12.8	7.7	17.9
	40대	3.7	18.5	3.7	22.2	14.8	0.0	11.1	3.7	7.4	14.8
	50대	0.0	11.8	0.0	5.9	17.6	23.5	17.6	11.8	0.0	11.8
연령대	60대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대학교	0.0	0.0	0.0	40.0	0.0	10.0	20.0	20.0	0.0	10.0
	전문학교	0.0	8.7	0.0	8.7	13.0	17.4	8.7	13.0	13.0	17.4
	고등중학교	1.1	9.5	4.2	14.7	8.4	15.8	10.5	8.4	9.5	17.9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0.0	33.3	0.0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4.2	4.2	4.2	8.3	20.8	12.5	16.7	12.5	4.2	12.5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비당원	0.0	10.4	3.8	17.0	4.7	16.0	9.4	9.4	11.3	17.9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1.1	9.8	3.3	15.2	8.7	16.3	9.8	10.9	12.0	13.0
	없다	0.0	7.5	5.0	15.0	7.5	12.5	15.0	7.5	5.0	25.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4.8	7.4	18.5	7.4	11.1	7.4	7.4	14.8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8.1	2.7	13.5	9.5	12.2	14.9	13.5	8.1	16.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	3.2	16.1	6.5	25.8	6.5	3.2	9.7	22.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1.5	8.8	4.4	13.2	5.9	16.2	10.3	11.8	13.2	14.7
	없다	0.0	9.4	3.1	17.2	10.9	14.1	12.5	7.8	6.3	1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1.3	5.7	15.1	3.8	11.3	15.1	9.4	13.2	15.1
	결혼(동거 포함)	1.7	5.0	3.3	16.7	11.7	20.0	10.0	10.0	6.7	15.0
	이혼	0.0	11.1	0.0	11.1	11.1	11.1	5.6	11.1	11.1	27.8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회통제 유지도

문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0.0%(0)	9.1%(12)	29.5%(39)	44.7%(59)	16.7%(22)
성별	남자	0.0	5.7	32.9	45.7	15.7
	여자	0.0	12.9	25.8	43.5	17.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5	27.7	44.7	19.1
	30대	0.0	2.6	23.1	51.3	23.1
	40대	0.0	14.8	37.0	44.4	3.7
	50대	0.0	17.6	35.3	29.4	17.6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50.0	30.0	10.0
	전문학교	0.0	13.0	26.1	43.5	17.4
	고등중학교	0.0	8.4	28.4	45.3	17.9
	인민학교	0.0	0.0	33.3	66.7	0.0
	무학	0.0	0.0	0.0	10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8.3	33.3	54.2	4.2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9.4	28.3	42.5	19.8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10.9	29.3	43.5	16.3
	없다	0.0	5.0	30.0	47.5	17.5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7	29.6	51.9	14.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1	29.7	41.9	20.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1	29.0	45.2	9.7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11.8	23.5	39.7	25.0
	없다	0.0	6.3	35.9	50.0	7.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	30.2	47.2	15.1
	결혼(동거 포함)	0.0	8.3	30.0	43.3	18.3
	이혼	0.0	16.7	27.8	44.4	11.1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비판행위 정도

문4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0.0%(0)	10.6%(14)	47.7%(63)	24.2%(32)	17.4%(23)
성별	남자	0.0	8.6	48.6	24.3	18.6
	여자	0.0	12.9	46.8	24.2	16.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4.9	38.3	27.7	19.1
	30대	0.0	5.1	46.2	25.6	23.1
	40대	0.0	11.1	40.7	29.6	18.5
	50대	0.0	11.8	82.4	5.9	0.0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50.0	30.0	10.0
	전문학교	0.0	8.7	43.5	34.8	13.0
	고등중학교	0.0	10.5	48.4	22.1	18.9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0.0	0.0	10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4.2	54.2	20.8	20.8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2.3	46.2	24.5	17.0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10.9	53.3	21.7	14.1
	없다	0.0	10.0	35.0	30.0	25.0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2.2	51.9	7.4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4	51.4	24.3	18.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2.9	35.5	38.7	12.9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7.4	47.1	26.5	19.1
	없다	0.0	14.1	48.4	21.9	15.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	50.9	20.8	20.8
	결혼(동거 포함)	0.0	13.3	46.7	23.3	16.7
	이혼	0.0	5.6	44.4	38.9	11.1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문4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 없다
		0.8%(1)	7.6%(10)	18.2%(24)	9.1%(12)	3.0%(4)	9.1%(12)	28.0%(37)	24.2%(32)
성별	남자	0.0	7.1	21.4	8.6	1.4	7.1	32.9	21.4
	여자	1.6	8.1	14.5	9.7	4.8	11.3	22.6	27.4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8.5	12.8	10.6	2.1	12.8	27.7	25.5
	30대	0.0	7.7	12.8	12.8	2.6	10.3	25.6	28.2
	40대	0.0	7.4	33.3	0.0	0.0	3.7	37.0	18.5
	50대	5.9	5.9	17.6	11.8	11.8	5.9	23.5	17.6
	60대	0.0	0.0	10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	30.0	0.0	0.0	50.0	10.0
	전문학교	4.3	13.0	26.1	4.3	8.7	8.7	21.7	13.0
	고등중학교	0.0	5.3	17.9	7.4	2.1	10.5	28.4	28.4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0.0	4.2	29.2	4.2	8.3	12.5	29.2	12.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9	8.5	16.0	10.4	1.9	8.5	28.3	25.5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7.6	17.4	9.8	4.3	7.6	31.5	21.7
북한소식	없다	2.5	7.5	20.0	7.5	0.0	12.5	20.0	3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4.8	22.2	3.7	0.0	7.4	25.9	25.9
남한친척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4	14.9	12.2	2.7	10.8	32.4	2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	6.5	22.6	6.5	6.5	6.5	19.4	29.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7.4	14.7	8.8	2.9	10.3	26.5	29.4
	없다	1.6	7.8	21.9	9.4	3.1	7.8	29.7	18.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11.3	11.3	9.4	3.8	17.0	24.5	22.6
	결혼(동거 포함)	0.0	3.3	23.3	8.3	1.7	5.0	33.3	25.0
	이혼	0.0	11.1	22.2	11.1	5.6	0.0	22.2	27.8
	무응답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핵무기 보유 견해

문4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 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
		0.0%(0)	32.6%(43)	21.2%(28)	28.8%(38)	6.1%(8)	11.4%(15)
성별	남자	0.0	42.9	24.3	18.6	2.9	11.4
	여자	0.0	21.0	17.7	40.3	9.7	11.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34.0	17.0	40.4	4.3	4.3
	30대	0.0	30.8	15.4	28.2	7.7	17.9
	40대	0.0	40.7	25.9	11.1	7.4	14.8
	50대	0.0	23.5	29.4	29.4	5.9	11.8
	60대	0.0	0.0	10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50.0	20.0	10.0	0.0	20.0
	전문학교	0.0	39.1	17.4	26.1	4.3	13.0
	고등중학교	0.0	28.4	23.2	31.6	6.3	10.5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0.0
	무학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50.0	37.5	4.2	0.0	8.3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27.4	17.9	34.9	7.5	12.3
장사경험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29.3	20.7	27.2	7.6	15.2
북한소식	없다	0.0	40.0	22.5	32.5	2.5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14.8	29.6	3.7	18.5
남한친척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3.8	24.3	28.4	6.8	6.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9.0	19.4	29.0	6.5	16.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29.4	25.0	30.9	5.9	8.8
	없다	0.0	35.9	17.2	26.6	6.3	14.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39.6	18.9	30.2	5.7	5.7
	결혼(동거 포함)	0.0	21.7	26.7	28.3	6.7	16.7
	이혼	0.0	50.0	11.1	22.2	5.6	1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 경제 어려움의 이유

문47)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연 재해로 식량생산 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개방 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
		0.0%(0)	4.5%(6)	26.5%(35)	11.4%(15)	4.5%(6)	22.7%(30)	19.7%(26)	6.8%(9)	3.0%(4)	0.8%(1)
성별	남자	0.0	1.4	25.7	12.9	4.3	24.3	20.0	8.6	2.9	0.0
	여자	0.0	8.1	27.4	9.7	4.8	21.0	19.4	4.8	3.2	1.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6.4	27.7	6.4	10.6	19.1	23.4	4.3	0.0	2.1
	30대	0.0	5.1	17.9	23.1	2.6	20.5	17.9	7.7	5.1	0.0
	40대	0.0	3.7	25.9	3.7	0.0	25.9	22.2	11.1	7.4	0.0
	50대	0.0	0.0	35.3	11.8	0.0	35.3	11.8	5.9	0.0	0.0
	60대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10.0	0.0	30.0	50.0	10.0	0.0	0.0
	전문학교	0.0	0.0	34.8	17.4	4.3	8.7	26.1	8.7	0.0	0.0
	고등중학교	0.0	6.3	25.3	10.5	5.3	25.3	15.8	6.3	4.2	1.1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12.5	4.2	16.7	20.8	12.5	8.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5.7	26.4	11.3	4.7	24.5	18.9	5.7	1.9	0.9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3	27.2	10.9	4.3	27.2	16.3	6.5	3.3	1.1
	없다	0.0	7.5	25.0	12.5	5.0	12.5	27.5	7.5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1.1	22.2	3.7	3.7	29.6	18.5	3.7	7.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	29.7	12.2	5.4	18.9	21.6	6.8	1.4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2.6	16.1	3.2	25.8	16.1	9.7	3.2	3.2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9	26.5	10.3	2.9	29.4	17.6	5.9	2.9	1.5
	없다	0.0	6.3	26.6	12.5	6.3	15.6	21.9	7.8	3.1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7	30.2	1.9	7.5	17.0	26.4	7.5	3.8	0.0
	결혼(동거 포함)	0.0	5.0	20.0	20.0	3.3	23.3	16.7	6.7	3.3	1.7
	이혼	0.0	0.0	38.9	5.6	0.0	38.9	11.1	5.6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생산규율 유지

문48)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0%(0)	9.8%(13)	28.8%(38)	28.8%(38)	32.6%(43)
성별	남자	0.0	10.0	24.3	30.0	35.7
	여자	0.0	9.7	33.9	27.4	29.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5	19.1	36.2	36.2
	30대	0.0	12.8	25.6	30.8	30.8
	40대	0.0	7.4	51.9	18.5	22.2
	50대	0.0	5.9	23.5	23.5	47.1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40.0	30.0	20.0
	전문학교	0.0	4.3	30.4	30.4	34.8
	고등중학교	0.0	11.6	27.4	26.3	34.7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8.3	33.3	29.2	29.2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0.4	28.3	27.4	34.0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7.6	26.1	32.6	33.7
	없다	0.0	15.0	35.0	20.0	30.0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4.8	25.9	18.5	4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8	25.7	35.1	32.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2.9	38.7	22.6	25.8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7.4	27.9	27.9	36.8
	없다	0.0	12.5	29.7	29.7	28.1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11.3	22.6	32.1	34.0
	결혼(동거 포함)	0.0	8.3	30.0	28.3	33.3
결혼상태	이혼	0.0	11.1	38.9	22.2	27.8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생활총화 출석률

문49)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응답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1.5%(2)	8.3%(11)	14.4%(19)	28.8%(38)	26.5%(35)	20.5%(27)
성별	남자	0.0	7.1	7.1	34.3	24.3	27.1
	여자	3.2	9.7	22.6	22.6	29.0	12.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2.1	6.4	17.0	34.0	23.4	17.0
	30대	0.0	7.7	15.4	30.8	20.5	25.6
	40대	0.0	7.4	11.1	14.8	37.0	29.6
	50대	5.9	17.6	11.8	29.4	35.3	0.0
	60대	0.0	0.0	0.0	0.0	0.0	100.0
	70대	0.0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	30.0	40.0	20.0
	전문학교	0.0	13.0	8.7	39.1	26.1	13.0
	고등중학교	2.1	8.4	14.7	26.3	25.3	23.2
	인민학교	0.0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	8.3	37.5	20.8	29.2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9	9.4	15.1	27.4	28.3	17.9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2	7.6	16.3	30.4	23.9	19.6
	없다	0.0	10.0	10.0	25.0	32.5	22.5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14.8	11.1	48.1	3.7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4	16.2	25.7	32.4	20.3
남한친척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	9.7	12.9	19.4	32.3	22.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2.9	7.4	17.6	26.5	26.5	19.1
결혼상태	없다	0.0	9.4	10.9	31.3	26.6	21.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1.9	7.5	17.0	30.2	22.6	20.8
결혼상태	결혼(동거 포함)	1.7	8.3	13.3	30.0	26.7	20.0
	이혼	0.0	5.6	11.1	22.2	38.9	22.2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북한 경제시스템 지지도

문5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0.0%(0)	10.6%(14)	6.1%(8)	11.4%(15)	31.1%(41)	40.9%(54)
성별	남자	0.0	11.4	7.1	5.7	27.1	48.6
	여자	0.0	9.7	4.8	17.7	35.5	32.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10.6	8.5	17.0	21.3	42.6
	30대	0.0	7.7	0.0	10.3	38.5	43.6
	40대	0.0	11.1	11.1	11.1	25.9	40.7
	50대	0.0	17.6	5.9	0.0	52.9	23.5
	60대	0.0	0.0	0.0	0.0	0.0	100.0
	70대	0.0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	10.0	30.0	50.0
	전문학교	0.0	8.7	8.7	8.7	39.1	34.8
	고등중학교	0.0	12.6	5.3	12.6	30.5	38.9
	인민학교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2.5	8.3	4.2	41.7	33.3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0.4	5.7	13.2	27.4	43.4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8.7	3.3	10.9	31.5	45.7
	없다	0.0	15.0	12.5	12.5	30.0	3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8.5	3.7	14.8	14.8	48.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4	5.4	9.5	39.2	40.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1	9.7	12.9	25.8	35.5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8.8	5.9	11.8	29.4	44.1
	없다	0.0	12.5	6.3	10.9	32.8	37.5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13.2	7.5	9.4	30.2	39.6
	결혼(동거 포함)	0.0	6.7	6.7	13.3	30.0	43.3
결혼상태	이혼	0.0	11.1	0.0	11.1	38.9	38.9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다른 지역 방문

문5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가보았다	가끔 가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0.0%(0)	31.1%(41)	38.6%(51)	30.3%(40)
성별	남자	0.0	41.4	28.6	30.0
	여자	0.0	19.4	50.0	30.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0대	0.0	27.7	40.4	31.9
	30대	0.0	38.5	33.3	28.2
	40대	0.0	29.6	40.7	29.6
	50대	0.0	29.4	41.2	29.4
	60대	0.0	0.0	0.0	100.0
	70대	0.0	0.0	10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40.0	40.0
	전문학교	0.0	21.7	52.2	26.1
	고등중학교	0.0	34.7	35.8	29.5
	인민학교	0.0	33.3	33.3	33.3
	무학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3.3	33.3	33.3
	후보당원	0.0	100.0	0.0	0.0
	비당원	0.0	30.2	39.6	30.2
	무응답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7.0	38.0	25.0
	없다	0.0	17.5	40.0	42.5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4.4	29.6	2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8.4	37.8	3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5.8	48.4	25.8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6.5	38.2	35.3
	없다	0.0	35.9	39.1	25.0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26.4	35.8	37.7
	결혼(동거 포함)	0.0	35.0	36.7	28.3
	이혼	0.0	33.3	50.0	16.7
	무응답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문5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0.0%(0)	9.1%(12)	6.8%(9)	75.0%(99)	9.1%(12)
성별	남자	0.0	10.0	4.3	77.1	8.6
	여자	0.0	8.1	9.7	72.6	9.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0.6	12.8	74.5	2.1
	30대	0.0	7.7	0.0	82.1	10.3
	40대	0.0	3.7	11.1	74.1	11.1
	50대	0.0	17.6	0.0	70.6	11.8
	60대	0.0	0.0	0.0	0.0	10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10.0	60.0	10.0
	전문학교	0.0	4.3	8.7	87.0	0.0
	고등중학교	0.0	7.4	5.3	75.8	11.6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8.3	0.0	75.0	16.7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9.4	8.5	75.5	6.6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5	5.4	79.3	8.7
	없다	0.0	15.0	10.0	65.0	1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4	7.4	81.5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5	2.7	75.7	12.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7	16.1	67.7	6.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4	4.4	77.9	10.3
	없다	0.0	10.9	9.4	71.9	7.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	7.5	77.4	7.5
	결혼(동거 포함)	0.0	8.3	5.0	78.3	8.3
	이혼	0.0	16.7	11.1	55.6	16.7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5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0.0%(0)	27.3%(36)	39.4%(52)	26.5%(35)	6.8%(9)
성별	남자	0.0	27.1	42.9	24.3	5.7
	여자	0.0	27.4	35.5	29.0	8.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31.9	31.9	29.8	6.4
	30대	0.0	15.4	56.4	20.5	7.7
	40대	0.0	33.3	29.6	29.6	7.4
	50대	0.0	35.3	29.4	29.4	5.9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60.0	30.0	0.0
	전문학교	0.0	34.8	26.1	39.1	0.0
	고등중학교	0.0	27.4	40.0	23.2	9.5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37.5	41.7	16.7	4.2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24.5	38.7	29.2	7.5
	무응답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21.7	45.7	23.9	8.7
	없다	0.0	40.0	25.0	32.5	2.5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2.2	37.0	25.9	14.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7.0	41.9	25.7	5.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2.3	35.5	29.0	3.2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29.4	33.8	26.5	10.3
	없다	0.0	25.0	45.3	26.6	3.1
	무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32.1	35.8	28.3	3.8
	결혼(동거 포함)	0.0	20.0	45.0	23.3	11.7
	이혼	0.0	38.9	33.3	27.8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외부소식 접촉 경로

문5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조선신문 (로동신문)	조선 방송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 통신, 배라 등)	
		0.0%(0)	12.1%(16)	6.1%(8)	47.7%(63)	9.1%(12)	25.0%(33)	
성별	남자	0.0	11.4	4.3	45.7	5.7	32.9	
	여자	0.0	12.9	8.1	50.0	12.9	16.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14.9	6.4	53.2	8.5	17.0
		30대	0.0	10.3	7.7	33.3	7.7	41.0
		40대	0.0	18.5	0.0	40.7	14.8	25.9
		50대	0.0	0.0	11.8	70.6	5.9	11.8
교육수준	60대	0.0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0.0	
	대학교	0.0	30.0	0.0	20.0	10.0	40.0	
	전문학교	0.0	0.0	0.0	60.9	13.0	26.1	
	고등중학교	0.0	12.6	8.4	48.4	8.4	22.1	
	인민학교	0.0	33.3	0.0	33.3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10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16.7	8.3	37.5	8.3	29.2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11.3	5.7	49.1	9.4	24.5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8.7	6.5	51.1	7.6	26.1	
	없다	0.0	20.0	5.0	40.0	12.5	2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7	14.8	29.6	7.4	44.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7.6	2.7	50.0	6.8	23.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	6.5	58.1	16.1	12.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11.8	7.4	51.5	7.4	22.1	
	없다	0.0	12.5	4.7	43.8	10.9	28.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9.4	5.7	50.9	9.4	24.5	
	결혼(동거 포함)	0.0	11.7	6.7	46.7	8.3	26.7	
	이혼	0.0	22.2	5.6	38.9	11.1	22.2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주변국 친밀감

문5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0%(0)	0.0%(0)	0.0%(0)	22.7%(30)	71.2%(94)	6.1%(8)
성별	남자	0.0	0.0	0.0	21.4	72.9	5.7
	여자	0.0	0.0	0.0	24.2	69.4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0.0	0.0	19.1	70.2	10.6
	30대	0.0	0.0	0.0	30.8	64.1	5.1
	40대	0.0	0.0	0.0	25.9	74.1	0.0
	50대	0.0	0.0	0.0	11.8	88.2	0.0
	60대	0.0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40.0	60.0	0.0
	전문학교	0.0	0.0	0.0	13.0	87.0	0.0
	고등중학교	0.0	0.0	0.0	24.2	69.5	6.3
	인민학교	0.0	0.0	0.0	0.0	66.7	33.3
	무학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0.0	16.7	83.3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0.0	0.0	23.6	69.8	6.6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27.2	69.6	3.3
	없다	0.0	0.0	0.0	12.5	75.0	1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11.1	88.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23.0	68.9	8.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32.3	61.3	6.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0.0	0.0	29.4	61.8	8.8
	없다	0.0	0.0	0.0	15.6	81.3	3.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0.0	0.0	9.4	79.2	11.3
	결혼(동거 포함)	0.0	0.0	0.0	36.7	60.0	3.3
	이혼	0.0	0.0	0.0	16.7	83.3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평화 위협 국가

문5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2.3%(3)	75.8%(100)	5.3%(7)	1.5%(2)	15.2%(20)	0.0%(0)
성별	남자	1.4	74.3	5.7	1.4	17.1	0.0
	여자	3.2	77.4	4.8	1.6	12.9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4.3	80.9	2.1	2.1	10.6	0.0
	30대	0.0	79.5	7.7	0.0	12.8	0.0
	40대	3.7	55.6	11.1	3.7	25.9	0.0
	50대	0.0	82.4	0.0	0.0	17.6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60.0	0.0	0.0	40.0	0.0
	전문학교	0.0	73.9	8.7	0.0	17.4	0.0
	고등중학교	3.2	78.9	4.2	2.1	11.6	0.0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0.0
	무학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83.3	4.2	4.2	8.3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8	73.6	5.7	0.9	17.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3.3	73.9	6.5	1.1	15.2	0.0
	없다	0.0	80.0	2.5	2.5	15.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70.4	7.4	3.7	14.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78.4	4.1	1.4	14.9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2	74.2	6.5	0.0	16.1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82.4	2.9	1.5	13.2	0.0
	없다	4.7	68.8	7.8	1.6	17.2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3.8	79.2	7.5	0.0	9.4	0.0
	결혼(동거 포함)	1.7	76.7	1.7	3.3	16.7	0.0
	이혼	0.0	61.1	11.1	0.0	27.8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문5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9.8%(13)	13.6%(18)	20.5%(27)	56.1%(74)
성별	남자	0.0	12.9	8.6	17.1	61.4
	여자	0.0	6.5	19.4	24.2	5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2.8	10.6	29.8	46.8
	30대	0.0	12.8	15.4	23.1	48.7
	40대	0.0	7.4	18.5	7.4	66.7
	50대	0.0	0.0	11.8	11.8	76.5
	60대	0.0	0.0	0.0	0.0	10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20.0	20.0	50.0
	전문학교	0.0	4.3	17.4	13.0	65.2
	고등중학교	0.0	10.5	12.6	21.1	55.8
	인민학교	0.0	33.3	0.0	33.3	33.3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	12.5	12.5	70.8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10.4	14.2	21.7	53.8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13.0	13.0	19.6	54.3
	없다	0.0	2.5	15.0	22.5	6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4.8	11.1	18.5	55.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5	13.5	23.0	54.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	16.1	16.1	61.3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7.4	8.8	25.0	58.8
	없다	0.0	12.5	18.8	15.6	53.1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1.3	15.1	26.4	47.2
	결혼(동거 포함)	0.0	8.3	16.7	16.7	58.3
	이혼	0.0	11.1	0.0	16.7	72.2
	무응답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중국의 통일희망

문5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3.8%(5)	10.6%(14)	31.8%(42)	53.8%(71)
성별	남자	0.0	2.9	7.1	20.0	70.0
	여자	0.0	4.8	14.5	45.2	35.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6.4	12.8	36.2	44.7
	30대	0.0	2.6	7.7	33.3	56.4
	40대	0.0	3.7	7.4	25.9	63.0
	50대	0.0	0.0	17.6	23.5	58.8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0.0	10.0	90.0
	전문학교	0.0	0.0	13.0	26.1	60.9
	고등중학교	0.0	5.3	10.5	36.8	47.4
	인민학교	0.0	0.0	33.3	0.0	66.7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	12.5	20.8	62.5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3.8	10.4	34.0	51.9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3	6.5	32.6	57.6
	없다	0.0	5.0	20.0	30.0	45.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4.8	3.7	22.2	59.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4	9.5	36.5	5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9.4	29.0	51.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1.5	13.2	35.3	50.0
	없다	0.0	6.3	7.8	28.1	57.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	11.3	30.2	50.9
	결혼(동거 포함)	0.0	1.7	8.3	38.3	51.7
	이혼	0.0	0.0	11.1	16.7	72.2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일본의 통일희망

문5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1.5%(2)	3.8%(5)	6.1%(8)	31.8%(42)	56.8%(75)
성별	남자	1.4	4.3	5.7	22.9	65.7
	여자	1.6	3.2	6.5	41.9	46.8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2.1	6.4	6.4	42.6	42.6
	30대	2.6	5.1	7.7	30.8	53.8
	40대	0.0	0.0	7.4	22.2	70.4
	50대	0.0	0.0	0.0	23.5	76.5
	60대	0.0	0.0	0.0	0.0	10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0.0	10.0	80.0
	전문학교	0.0	0.0	4.3	39.1	56.5
	고등중학교	2.1	3.2	7.4	32.6	54.7
	인민학교	0.0	33.3	0.0	33.3	33.3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4.2	16.7	79.2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1.9	3.8	6.6	34.9	52.8
	무응답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있다	2.2	3.3	6.5	32.6	55.4
	없다	0.0	5.0	5.0	30.0	6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7	7.4	11.1	18.5	59.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4	1.4	5.4	39.2	5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	3.2	25.8	64.5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2.9	0.0	4.4	36.8	55.9
	없다	0.0	7.8	7.8	26.6	57.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1.9	3.8	7.5	37.7	49.1
	결혼(동거 포함)	1.7	3.3	5.0	28.3	61.7
	이혼	0.0	5.6	5.6	27.8	61.1
	무응답	0.0	0.0	0.0	0.0	10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러시아의 통일희망

문6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4.5%(6)	18.9%(25)	32.6%(43)	43.9%(58)
성별	남자	0.0	1.4	17.1	28.6	52.9
	여자	0.0	8.1	21.0	37.1	33.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8.5	23.4	36.2	31.9
	30대	0.0	2.6	17.9	33.3	46.2
	40대	0.0	0.0	7.4	33.3	59.3
	50대	0.0	5.9	29.4	17.6	47.1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	30.0	60.0
	전문학교	0.0	4.3	17.4	34.8	43.5
	고등중학교	0.0	4.2	18.9	33.7	43.2
	인민학교	0.0	33.3	33.3	0.0	33.3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5.0	20.8	54.2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5.7	17.9	34.9	41.5
	무응답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있다	0.0	4.3	16.3	30.4	48.9
	없다	0.0	5.0	25.0	37.5	32.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4	11.1	22.2	59.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	18.9	39.2	37.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2	25.8	25.8	45.2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4	20.6	33.8	41.2
	없다	0.0	4.7	17.2	31.3	46.9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5.7	20.8	34.0	39.6
	결혼(동거 포함)	0.0	1.7	18.3	31.7	48.3
	이혼	0.0	11.1	11.1	33.3	44.4
	무응답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협조 필요 국가

문6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0.0%(0)	39.4%(52)	14.4%(19)	8.3%(11)	0.0%(0)	37.9%(50)
성별	남자	0.0	35.7	17.1	5.7	0.0	41.4
	여자	0.0	43.5	11.3	11.3	0.0	33.9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38.3	8.5	17.0	0.0	36.2
	30대	0.0	43.6	15.4	5.1	0.0	35.9
	40대	0.0	29.6	25.9	0.0	0.0	44.4
	50대	0.0	41.2	11.8	5.9	0.0	41.2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30.0	0.0	0.0	30.0
	전문학교	0.0	30.4	13.0	8.7	0.0	47.8
	고등중학교	0.0	42.1	13.7	9.5	0.0	34.7
	인민학교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7.5	20.8	0.0	0.0	41.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40.6	13.2	10.4	0.0	35.8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3.7	15.2	9.8	0.0	41.3
	없다	0.0	52.5	12.5	5.0	0.0	3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4.4	0.0	11.1	0.0	44.4
북한소식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2.4	18.9	8.1	0.0	40.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1.6	16.1	6.5	0.0	25.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33.8	14.7	11.8	0.0	39.7
남한친척	없다	0.0	45.3	14.1	4.7	0.0	35.9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41.5	18.9	5.7	0.0	34.0
	결혼(동거 포함)	0.0	41.7	11.7	10.0	0.0	36.7
	이혼	0.0	22.2	11.1	11.1	0.0	55.6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발전이 필요한 국가

문6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0%(0)	6.1%(8)	1.5%(2)	56.1%(74)	34.1%(45)	2.3%(3)
성별	남자	0.0	5.7	2.9	57.1	31.4	2.9
	여자	0.0	6.5	0.0	54.8	37.1	1.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8.5	0.0	51.1	36.2	4.3
	30대	0.0	2.6	2.6	61.5	30.8	2.6
	40대	0.0	11.1	3.7	59.3	25.9	0.0
	50대	0.0	0.0	0.0	47.1	52.9	0.0
	60대	0.0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0.0	70.0	20.0	0.0
	전문학교	0.0	0.0	0.0	56.5	39.1	4.3
	고등중학교	0.0	6.3	2.1	53.7	35.8	2.1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0.0	4.2	62.5	33.3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7.5	0.9	54.7	34.0	2.8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5.4	1.1	62.0	29.3	2.2
	없다	0.0	7.5	2.5	42.5	45.0	2.5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1.1	0.0	59.3	25.9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	2.7	58.1	32.4	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	0.0	48.4	45.2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2.9	1.5	57.4	36.8	1.5
	없다	0.0	9.4	1.6	54.7	31.3	3.1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7.5	0.0	54.7	34.0	3.8
	결혼(동거 포함)	0.0	5.0	1.7	60.0	31.7	1.7
	이혼	0.0	5.6	5.6	50.0	38.9	0.0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친근감

문63)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0%(0)	37.1%(49)	55.3%(73)	6.1%(8)	1.5%(2)
성별	남자	0.0	31.4	64.3	4.3	0.0
	여자	0.0	43.5	45.2	8.1	3.2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7.7	61.7	10.6	0.0
	30대	0.0	38.5	56.4	0.0	5.1
	40대	0.0	29.6	63.0	7.4	0.0
	50대	0.0	64.7	29.4	5.9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60.0	0.0	0.0
	전문학교	0.0	26.1	65.2	8.7	0.0
	고등중학교	0.0	40.0	51.6	6.3	2.1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50.0	50.0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34.9	55.7	7.5	1.9
	무응답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40.2	52.2	5.4	2.2
	없다	0.0	30.0	62.5	7.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9.6	63.0	3.7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0.5	50.0	8.1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5.5	61.3	3.2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42.6	50.0	5.9	1.5
	없다	0.0	31.3	60.9	6.3	1.6
	무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35.8	60.4	3.8	0.0
	결혼(동거 포함)	0.0	38.3	48.3	10.0	3.3
	이혼	0.0	38.9	61.1	0.0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문64)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0.0%(0)	25.0%(33)	53.8%(71)	20.5%(27)	0.8%(1)
성별	남자	0.0	17.1	57.1	24.3	1.4
	여자	0.0	33.9	50.0	16.1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2.8	55.3	31.9	0.0
	30대	0.0	28.2	59.0	12.8	0.0
	40대	0.0	25.9	51.9	18.5	3.7
	50대	0.0	47.1	41.2	11.8	0.0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70.0	10.0	0.0
	전문학교	0.0	13.0	56.5	26.1	4.3
	고등중학교	0.0	28.4	50.5	21.1	0.0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25.0	54.2	16.7	4.2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25.5	52.8	21.7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27.2	53.3	19.6	0.0
	없다	0.0	20.0	55.0	22.5	2.5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40.7	25.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3.0	56.8	20.3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2.6	58.1	16.1	3.2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26.5	51.5	22.1	0.0
	없다	0.0	23.4	56.3	18.8	1.6
	무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24.5	54.7	18.9	1.9
	결혼(동거 포함)	0.0	23.3	51.7	25.0	0.0
	이혼	0.0	33.3	55.6	11.1	0.0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국민의식

문65)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
		0.0%(0)	72.7%(96)	20.5%(27)	6.8%(9)
성별	남자	0.0	71.4	24.3	4.3
	여자	0.0	74.2	16.1	9.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20대	0.0	74.5	19.1	6.4
	30대	0.0	76.9	20.5	2.6
	40대	0.0	63.0	25.9	11.1
	50대	0.0	70.6	17.6	11.8
	60대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80.0	10.0	10.0
	전문학교	0.0	47.8	43.5	8.7
	고등중학교	0.0	78.9	14.7	6.3
	인민학교	0.0	33.3	66.7	0.0
	무학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0.8	25.0	4.2
	후보당원	0.0	0.0	100.0	0.0
	비당원	0.0	73.6	18.9	7.5
	무응답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9.6	22.8	7.6
	없다	0.0	80.0	15.0	5.0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6.7	22.2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4.3	23.0	2.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4.2	12.9	12.9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82.4	13.2	4.4
	없다	0.0	62.5	28.1	9.4
	무응답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69.8	24.5	5.7
	결혼(동거 포함)	0.0	76.7	15.0	8.3
	이혼	0.0	72.2	27.8	0.0
	무응답	0.0	0.0	0.0	10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남한생활 만족도

문66)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0)	40.9%(54)	39.4%(52)	14.4%(19)	4.5(6)	0.8%(1)
성별	남자	0.0	41.4	34.3	20.0	2.9	1.4
	여자	0.0	40.3	45.2	8.1	6.5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38.3	40.4	12.8	6.4	2.1
	30대	0.0	38.5	35.9	20.5	5.1	0.0
	40대	0.0	48.1	37.0	14.8	0.0	0.0
	50대	0.0	41.2	47.1	5.9	5.9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40.0	60.0	0.0	0.0	0.0
	전문학교	0.0	21.7	39.1	26.1	13.0	0.0
	고등중학교	0.0	44.2	37.9	13.7	3.2	1.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3.3	50.0	16.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42.5	37.7	13.2	5.7	0.9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41.3	39.1	14.1	4.3	1.1
	없다	0.0	40.0	40.0	15.0	5.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7.0	33.3	18.5	7.4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9	40.5	13.5	4.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1.9	41.9	12.9	3.2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50.0	36.8	10.3	2.9	0.0
	없다	0.0	31.3	42.2	18.8	6.3	1.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7.7	39.6	18.9	1.9	1.9
	결혼(동거 포함)	0.0	41.7	38.3	11.7	8.3	0.0
	이혼	0.0	50.0	44.4	5.6	0.0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문67)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0)	56.8%(75)	33.3%(44)	7.6%(10)	2.3%(3)	0.0%(0)
성별	남자	0.0	54.3	31.4	11.4	2.9	0.0
	여자	0.0	59.7	35.5	3.2	1.6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55.3	34.0	6.4	4.3	0.0
	30대	0.0	51.3	30.8	15.4	2.6	0.0
	40대	0.0	74.1	22.2	3.7	0.0	0.0
	50대	0.0	47.1	52.9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70.0	20.0	10.0	0.0	0.0
	전문학교	0.0	26.1	60.9	13.0	0.0	0.0
	고등학교	0.0	62.1	29.5	6.3	2.1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	0.0	58.3	25.0	16.7	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57.5	35.8	4.7	1.9	0.0
	무응답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56.5	37.0	4.3	2.2	0.0
	없다	0.0	57.5	25.0	15.0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3.0	33.3	3.7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8.1	32.4	8.1	1.4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8.4	35.5	9.7	6.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있다	0.0	54.4	41.2	1.5	2.9	0.0
	없다	0.0	59.4	25.0	14.1	1.6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미혼	0.0	50.9	34.0	11.3	3.8	0.0
	결혼(동거 포함)	0.0	61.7	30.0	6.7	1.7	0.0
	이혼	0.0	61.1	38.9	0.0	0.0	0.0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문화적 차이

문68)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31.8%(42)	46.2%(61)	18.2%(24)	3.8%(5)
성별	남자	0.0	40.0	38.6	15.7	5.7
	여자	0.0	22.6	54.8	21.0	1.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38.3	38.3	23.4	0.0
	30대	0.0	20.5	59.0	15.4	5.1
	40대	0.0	44.4	37.0	14.8	3.7
	50대	0.0	23.5	47.1	17.6	11.8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60.0	20.0	10.0
	전문학교	0.0	21.7	43.5	30.4	4.3
	고등학교	0.0	36.8	45.3	14.7	3.2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33.3	50.0	8.3	8.3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31.1	45.3	20.8	2.8
	무응답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34.8	42.4	17.4	5.4
	없다	0.0	25.0	55.0	2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4.4	40.7	11.1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9.7	44.6	20.3	5.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5.8	54.8	19.4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32.4	44.1	17.6	5.9
	없다	0.0	31.3	48.4	18.8	1.6
	무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37.7	37.7	18.9	5.7
	결혼(동거 포함)	0.0	28.3	53.3	16.7	1.7
	이혼	0.0	27.8	44.4	22.2	5.6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건강의 문제

문69)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7.6%(10)	18.9%(25)	42.4%(56)	31.1%(41)
성별	남자	0.0	2.9	20.0	38.6	38.6
	여자	0.0	12.9	17.7	46.8	22.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4.3	21.3	40.4	34.0
	30대	0.0	10.3	20.5	41.0	28.2
	40대	0.0	3.7	14.8	51.9	29.6
	50대	0.0	17.6	17.6	35.3	29.4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0.0	0.0	10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10.0	80.0	10.0
	전문학교	0.0	8.7	13.0	56.5	21.7
	고등중학교	0.0	8.4	20.0	35.8	35.8
	인민학교	0.0	0.0	66.7	0.0	33.3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	8.3	58.3	29.2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8.5	21.7	38.7	3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6.5	17.4	41.3	34.8
	없다	0.0	10.0	22.5	45.0	22.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1.1	11.1	37.0	4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	23.0	45.9	27.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2.9	16.1	38.7	32.3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4.4	20.6	42.6	32.4
	없다	0.0	10.9	17.2	42.2	29.7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8	18.9	43.4	34.0
	결혼(동거 포함)	0.0	8.3	18.3	40.0	33.3
	이혼	0.0	11.1	22.2	50.0	16.7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경제적 문제

문70)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22.7%(30)	41.7%(55)	25.0%(33)	10.6%(14)
성별	남자	0.0	17.1	45.7	25.7	11.4
	여자	0.0	29.0	37.1	24.2	9.7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5.5	46.8	21.3	6.4
	30대	0.0	23.1	41.0	25.6	10.3
	40대	0.0	11.1	37.0	40.7	11.1
	50대	0.0	29.4	35.3	11.8	23.5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40.0	50.0	10.0
	전문학교	0.0	17.4	43.5	21.7	17.4
	고등중학교	0.0	27.4	41.1	23.2	8.4
	인민학교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	45.8	29.2	20.8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26.4	40.6	24.5	8.5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23.9	40.2	23.9	12.0
	없다	0.0	20.0	45.0	27.5	7.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9.6	40.7	11.1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7.6	43.2	27.0	12.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9.0	38.7	32.3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3.5	42.6	23.5	10.3
	없다	0.0	21.9	40.6	26.6	10.9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17.0	45.3	26.4	11.3
	결혼(동거 포함)	0.0	31.7	36.7	25.0	6.7
	이혼	0.0	5.6	50.0	22.2	22.2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인간관계

문71)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7.6%(10)	27.3%(36)	50.0%(66)	15.2%(20)
성별	남자	0.0	7.1	27.1	51.4	14.3
	여자	0.0	8.1	27.4	48.4	16.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14.9	29.8	48.9	6.4
	30대	0.0	7.7	23.1	46.2	23.1
	40대	0.0	0.0	25.9	63.0	11.1
	50대	0.0	0.0	29.4	41.2	29.4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30.0	50.0	20.0
	전문학교	0.0	8.7	21.7	52.2	17.4
	고등중학교	0.0	8.4	27.4	50.5	13.7
	인민학교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8.3	16.7	54.2	20.8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7.5	30.2	48.1	14.2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6.5	29.3	45.7	18.5
	없다	0.0	10.0	22.5	60.0	7.5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4.8	37.0	29.6	18.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8	21.6	51.4	20.3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7.4	29.4	47.1	16.2
	없다	0.0	7.8	25.0	53.1	14.1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9.4	32.1	49.1	9.4
	결혼(동거 포함)	0.0	8.3	16.7	60.0	15.0
결혼상태	이혼	0.0	0.0	44.4	22.2	33.3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사회적 편견

문72)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14.4%(19)	34.8%(46)	41.7%(55)	9.1%(12)
성별	남자	0.0	14.3	35.7	38.6	11.4
	여자	0.0	14.5	33.9	45.2	6.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5.5	34.0	36.2	4.3
	30대	0.0	12.8	30.8	43.6	12.8
	40대	0.0	3.7	37.0	51.9	7.4
	50대	0.0	5.9	41.2	35.3	17.6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0.0	20.0	60.0	20.0
	전문학교	0.0	13.0	30.4	52.2	4.3
	고등중학교	0.0	15.8	37.9	36.8	9.5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8.3	20.8	50.0	20.8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16.0	37.7	39.6	6.6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16.3	37.0	35.9	10.9
	없다	0.0	10.0	30.0	55.0	5.0
북한소식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5.9	29.6	37.0	7.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3.5	37.8	35.1	13.5
남한친척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16.2	39.7	33.8	10.3
	없다	0.0	12.5	29.7	50.0	7.8
결혼상태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미혼	0.0	17.0	28.3	45.3	9.4
	결혼(동거 포함)	0.0	13.3	40.0	38.3	8.3
결혼상태	이혼	0.0	11.1	38.9	38.9	11.1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심리적 외로움

문73)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남한 거주시 어려움 정도)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0.0%(0)	30.3%(40)	31.8%(42)	20.5%(27)	17.4%(23)
성별	남자	0.0	32.9	28.6	18.6	20.0
	여자	0.0	27.4	35.5	22.6	14.5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27.7	40.4	12.8	19.1
	30대	0.0	38.5	25.6	23.1	12.8
	40대	0.0	25.9	33.3	14.8	25.9
	50대	0.0	29.4	17.6	41.2	11.8
	60대	0.0	0.0	0.0	10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10.0	30.0	30.0	30.0
	전문학교	0.0	34.8	21.7	30.4	13.0
	고등중학교	0.0	31.6	34.7	16.8	16.8
	인민학교	0.0	33.3	0.0	33.3	33.3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9.2	16.7	29.2	25.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30.2	35.8	17.9	16.0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31.5	28.3	22.8	17.4
	없다	0.0	27.5	40.0	15.0	17.5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5.6	22.2	11.1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1.6	32.4	23.0	23.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9.0	38.7	22.6	9.7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3.5	32.4	25.0	19.1
	없다	0.0	37.5	31.3	15.6	15.6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0.2	37.7	15.1	17.0
	결혼(동거 포함)	0.0	30.0	26.7	23.3	20.0
	이혼	0.0	27.8	33.3	27.8	11.1
	무응답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남한 사회에 도움이 된 정도

문74)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정부의 지원정책	NGO 등 민간 단체의 지원	교회 등 종교 단체의 지원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
		0.0%(0)	91.7%(121)	1.5%(2)	3.8%(5)	1.5%(2)	1.5%(2)
성별	남자	0.0	87.1	2.9	5.7	2.9	1.4
	여자	0.0	96.8	0.0	1.6	0.0	1.6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20대	0.0	85.1	2.1	6.4	2.1	4.3
	30대	0.0	92.3	2.6	2.6	2.6	0.0
	40대	0.0	96.3	0.0	3.7	0.0	0.0
	50대	0.0	100.0	0.0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90.0	0.0	10.0	0.0	0.0
	전문학교	0.0	91.3	4.3	4.3	0.0	0.0
	고등중학교	0.0	91.6	1.1	3.2	2.1	2.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5.8	0.0	4.2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91.5	1.9	3.8	0.9	1.9
	무응답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0.0	91.3	1.1	4.3	1.1	2.2
	없다	0.0	92.5	2.5	2.5	2.5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7.8	3.7	11.1	3.7	3.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3.2	1.4	2.7	1.4	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98.5	0.0	0.0	0.0	1.5
	없다	0.0	84.4	3.1	7.8	3.1	1.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86.8	0.0	5.7	3.8	3.8
	결혼(동거 포함)	0.0	93.3	3.3	3.3	0.0	0.0
	이혼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묻는 정도

문75)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가깝다	다소 가깝다	별로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0.0%(0)	33.3%(44)	47.0%(62)	8.3%(11)	11.4%(15)
성별	남자	0.0	28.6	50.0	7.1	14.3
	여자	0.0	38.7	43.5	9.7	8.1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20대	0.0	44.7	36.2	10.6	8.5
	30대	0.0	25.6	48.7	10.3	15.4
	40대	0.0	18.5	63.0	3.7	14.8
	50대	0.0	47.1	41.2	5.9	5.9
	60대	0.0	0.0	100.0	0.0	0.0
	70대	0.0	0.0	100.0	0.0	0.0
교육수준	대학교	0.0	20.0	80.0	0.0	0.0
	전문학교	0.0	21.7	43.5	21.7	13.0
	고등중학교	0.0	36.8	44.2	6.3	12.6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당원	0.0	25.0	54.2	4.2	16.7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34.9	46.2	8.5	10.4
장사경험	무응답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39.1	43.5	7.6	9.8
	없다	0.0	20.0	55.0	10.0	15.0
	무응답	0.0	0.0	0.0	0.0	0.0
북한소식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3.3	51.9	3.7	11.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2.4	45.9	10.8	10.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5.5	45.2	6.5	12.9
	무응답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있다	0.0	32.4	42.6	10.3	14.7
	없다	0.0	34.4	51.6	6.3	7.8
	무응답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결혼상태	미혼	0.0	32.1	47.2	7.5	13.2
	결혼(동거 포함)	0.0	38.3	43.3	8.3	10.0
	이혼	0.0	22.2	55.6	11.1	11.1
	무응답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㉔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㉕ 확충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㉖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㉗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②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 ③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 ④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⑤ 통일이 이뤄지지만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9.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 ① 북한에서 살 것이다.
- ② 남한에서 살 것이다.
- ③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 ④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대남 인식

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㉔ 4.19 혁명	1	2	3	4
㉕ 5.18 광주항쟁	1	2	3	4
㉖ 88서울올림픽	1	2	3	4
㉗ 2002 월드컵	1	2	3	4
㉘ 세월호 사건	1	2	3	4
㉙ 개성공업지구 운영	1	2	3	4

1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해봤다.
- ② 한두 번 접해봤다.
-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2-1. (12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십니까?

- 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 ②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 ③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 ④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2-2.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① 매우 친숙했다.
- ② 약간 친숙했다.
-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2-3.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 ①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 ②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 ③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 ④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 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13.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㉔ 선거방식	1	2	3	4
㉕ 사회복지	1	2	3	4
㉖ 언어사용	1	2	3	4
㉗ 생활풍습 (관혼상제 등)	1	2	3	4
㉘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㉙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1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위협적이다.
- ② 다소 위협적이다.
-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 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도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	약간 부정	매우 부정
㉔ 남한의 대북지원	1	2	3	4	5
㉕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1	2	3	4	5
㉖ 개성공업지구	1	2	3	4	5

북한실태 변화

19.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 ⑥ 60%
- ⑦ 70%
- ⑧ 80%
- ⑨ 90% 이상

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약간 있다.
- ③ 대체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10년
- ③ 10~15년
- ④ 15~20년
- ⑤ 20~30년
- ⑥ 30년 이상
-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했다.
- ② 다소 찬성했다.
- ③ 반반/그저 그랬다.
- ④ 다소 반대했다.
- ⑤ 매우 반대했다.

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 ②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 ⑨ 기타 ()

2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미만
- ② 30~50%
- ③ 50~70%
- ④ 70~90%
- ⑤ 90% 이상

2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 ① 자주 가보았다.
- ② 가끔 가보았다.
-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내(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 ③ 내(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④ 내(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②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③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 ① 조선신문 (로동신문)
- ② 조선방송
- ③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
- ④ 강연, 학습
- ⑤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통신, 배라 등)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돈 _____ 원)

주변국에 대한 인식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국 ② 미국
- ③ 러시아 ④ 일본
-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3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3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㉞ 미국	1	2	3	4
㉟ 중국	1	2	3	4
㊱ 일본	1	2	3	4
㊲ 러시아	1	2	3	4

남한사회 적응실태

40.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1.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포용적이다.
- ② 약간 포용적이다.
-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2.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는 남한사람이다.
- ② 나는 북한사람이다.
- ③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3.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4.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㉞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 차이	1	2	3	4
㉟ 질병 등 건강의 문제	1	2	3	4
㊱ 취업 등 경제적 문제	1	2	3	4
㊲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	1	2	3	4
㊳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1	2	3	4
㊴ 타향살이에서 오는 심리적 외로움	1	2	3	4

45.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6.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부의 지원정책
- ②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 ③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 ④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 ⑤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47.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 ① 매우 가깝다.
- ② 다소 가깝다.
- ③ 별로 가깝지 않다.
- ④ 전혀 가깝지 않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년 월)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① 평양 ② 남포
- ③ 개성 ④ 평안남도
- ⑤ 평안북도 ⑥ 함경남도
- ⑦ 함경북도 ⑧ 자강도
- ⑨ 양강도 ⑩ 황해남도
- ⑪ 황해북도 ⑫ 강원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대학교 ② 전문학교
- ③ 고등중학교 ④ 인민학교
-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 ① 노동자 ② 농민
- ③ 사무원
-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 ⑤ 학생 ⑥ 군인

- ⑦ 외화벌이일군 ⑧ 장사
- ⑨ 가정부인 ⑩ 무직 및 기타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 ① 당원 ② 후보당원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_____ 원)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_____ 원)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미혼 ② 결혼 (동거 포함) ③ 이혼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Q16.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 ⑥ 실업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Q17.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북한돈 _____ 원)

Q18.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37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

인 쇄 2018. 03. 19
발 행 2018. 03. 19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정근식
저 자 정동준 · 정근식 · 조동준 · 서보혁 · 천경효 · 문인철 · 이정옥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전 화 02)880-4052-4, 874-7304
팩 스 02)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
저자: 정동준, 정근식, 조동준, 서보혁, 천경효, 문인철, 이정옥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37)
ISBN 979-11-961299-6-5 93340 : 비매품
북한 주민[北韓住民]
통일 의식[統一意識]
340.911-KDC6
320.95193-DDC23
CIP2018008735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